

목 차

제 5 호

1. 프랑스 한국학 동향 및 학술기관	나 은 주	1
Status of Korean Studies and Related Academic Institutions		
in France	Eunjoo Na	18
2. 호주 모나쉬대학교 한국학장서	김 정 심	39
Korean Collection at Monash University in Australia	Jung-Sim Kim	53
3. 북한 자료의 현황과 수집 및 활용	송 승 섭	69
North Korean Resources: Current Stat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Sungseob Song	97
4. 국립중앙도서관 사업소개		
▪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관련 기록 자료 영인 수집 사업	최 유 진	133
Introduction of NLK's Project		
▪ Declassified Documents Collection Project (DDCP)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Yujin Choi	151
5.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169
NLK News		175

1. 프랑스 한국학의 기원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는 19세기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이루기 전부터 가톨릭 신부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한국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고 있는 저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불 간의 교류 역사의 흔적은 이진명 교수가 재유럽 한인 언론 사이트인 유로코레에 연재한 글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있다¹⁾. 이진명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에 최초로 한국이 소개된 것은 1670년 헨드릭 하멜의 “하멜 표류기” 불어번역본을 통해서다. 하멜 표류기 2부에 조선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그로부터 가톨릭 신부들의 보고서와 개척자들의 지리 탐구서나 지도들에서 한국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한불 외교 관계가 수립된 이후에는 지적, 문화적 호기심이 강한 프랑스 외교관들에 의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유물들이 수집, 조사되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프랑스 국립도서관, 기메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 콜레쥬드프랑스(Collège de France), 동양어 문화대학 중앙도서관 등에 잘 보존되어있다.

*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학술정보연구원(CRC-EHESS, CNRS-UMR8173, Chine, Corée, Japon)

1) 이진명, “프랑스 안의 한국 문화(1~12)” <http://www.euro-coree.net/news/viewbody.php?board=alaune&page=1&number=1697&search=section&genre=alaune161> 외

본고에서는 이진명의 “프랑스 안의 한국 문화(1~12)”에 나오는 자료들을 연도별로 정리해보았고, 이어 다니엘 부셰가 동방학지에 번역 발표한,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꾸랑(상, 하)”²⁾에 근거하여 한국학의 기원이 되는 꾸랑의 출판물들을 첨가해 <표 1> 프랑스 내 한국 소개 출판물 연표를 만들어 보았다.

표 1 프랑스 내 한국 소개 출판물 연표

연도	주요사건	한국소개저서	천주교저서	학술저서	지리서-화보
1670		헨드릭 하멜, 『하멜 표류기』 불어번역(2부에 조선에 대한 묘사)			
1735		뒤 알드(Jean-Baptiste Du Halde) 신부, 『지나제국전지(支那帝國全誌)』(4권에 장바티스트 레지스(Jean-Baptiste Regis) 신부가 쓴 “조선 왕국의 지리적 고찰”과 “조선 역사”)			
1736		샤를르보아(Charlevoix) 신부, 『일본사(Histoire et description générale du Japon)』			
1800			고베아(Govea) 주교, 『한국 천주교 설립에 관한 보고서(Relation de l'établissement du Christianisme dans le royaume de Corée)』		
1846					김대건 신부,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 d'après l'original dressé par André Kim)』
1849					리앙쿠르호, 프랑스해군 『수로지(Annales hydrographiques) 1854-1855』
1859				레옹 드 로니(Léon de Rosny), “한반도와 그 미래”, 『동양학보』	
1861				레옹 드 로니(Léon de Rosny), “중국어-한국어-아이누 단어(Vocabulaire chinois, coreen, aino : expliqué en français et précédé d'une introduction sur le écritures de la Chine, de la Corée et de Yéso)”, 『동양학보』	

2) 다니엘 부셰,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꾸랑 (상, 하)”, 동방학지 51-52호, 1986 ;
http://halshs.archives-ouvertes.fr/docs/00/44/35/74/PDF/Courant_TBHC_1.pdf
http://halshs.archives-ouvertes.fr/docs/00/44/35/75/PDF/Courant_TBHC_2.pdf

연도	주요사건	한국소개저서	천주교저서	학술저서	지리서-화보
1864				레옹 드 로니(Léon de Rosny), “한국어에 대한 고찰(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 『동양학보』	
1866	병인양요				
1867					위베르 쥐배르(Hubert Zuber), 크로키 『화보 L'illustration 1-2월호』
1868				레옹 드 로니(Léon de Rosny), “한국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Sur la géographie et l'histoire de la Corée)”, 『동양학보』	
1868	파리 동양어 학교 일본어학과 설치 (레옹 드 로니가 교수하고 모리스 꾸랑이 학생으로 강의 들음)				
1873					위베르 쥐배르(Hubert Zuber), 펜화 『세계 일주 (Le Tour du Monde)』 (인물, 강화도 풍경화, 조선전도)
1874				달레(Charles Dallet) 신부, 『한국천주교회사(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1879				리델(Ridel) 주교, 『나의 서울 옥중기(Ma captivité dans les prisons de Séoul)』	
1880				리델(Ridel) 주교, 최지혁, 『한불사전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한국 최초의 외국어 사전)	
1881				리델(Ridel) 주교, 최지혁, 『한어문전 (Grammaire coréenne)』 (최초의 한국어 문법책)	
1886	한불 수호 조약				
1887	콜랭 드 플랑시 초대 대사 임명				
1889				까미외 앙보 위아르(Camille Imbault-Huart), 『프랑스인을 위한 한국어 구어 독본 (Manuel de la langue coréenne parlée)』	
1892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역대 관직 총람(Repertoire Historique de l'Administration Coreenne)”	

연도	주요사건	한국소개저서	천주교저서	학술저서	지리서-화보
1892		샤를르 바라(Charles Varat), “한국여행(Voyage en Corée)”, 『세계 일주(Le Tour du Monde)』			
1894		샤이에 - 롱 - 베(Chaille-LongBey), 『조선(La Corée ou Tchosen - La terre du calme matinal)』			
1894-1896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한국 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1897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9세기까지의 한국, 일본과의 관계와 일본문화의 기원에 미친 영향(La Corée jusqu'au IXe siècle, ses rapports avec le Japon et son influence sur les origines de la civilisation japonaise)” (기메 박물관 강연)	
1897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한국의 판소리와 무용”	
1898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고구려 왕국의 기념비(Stèle chinoise du royaume de Ko koy rye)”	
1899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조선 종교의식의 연혁과 개요(Sommaire et historique des cultes coréens)”(기메 박물관 강연)	
1900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파리 만국 박람회 한국관 소개서(Souvenir de Séoul, Corée)”	
1901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한국 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증보판 (Supplément)	
1901				아드리앵 로네(Adrien Launay) 신부, 『조선과 프랑스 선교사들(La Corée et les missionnaires français)』	
1903-1904			에밀 부르다레(Emile Bourdaret) 리옹 인류학회지에 한국의 돌멘과 선사유적, 한국인의 인종학적 고찰 등 발표		
1904		에밀 부르다레(Emile Bourdaret), 『한국에서(En Corée)』			
1904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조선과 외세(La Corée et les puissances étrangères)”, 『정치학 연보(Annales des sciences politiques)』	

연도	주요사건	한국소개저서	천주교저서	학술저서	지리서-화보
1904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조선의 일본 기지, 15세기 이래의 부산(Un établissement japonais en Corée : Fou-san depuis le XVe siècle)”, 『정치학 연보(Annales des sciences politiques)』	
1905		이폴리트 프랑댕(Hippolyte Frandrin), 『한국에서(En Corée)』			
1905		피에르 로티(Pierre Roti, 본명: Julien Viaud), “서울에서(A Seoul)” 『매화부인의 제3의 청춘(La troisième jeunesse de Mme Prune)』			
1913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중국 음악 小史, 부록: 조선 음악(Essai historique sur la musique classique des Chinois, avec un appendice relatif à la musique coréenne)』	

이상과 같이 한국을 학문적 대상으로 탐구했던 모리스 꾸랑의 연구업적을 기원으로 하는 프랑스 한국학은 파리의 주요 학술기관에 정식 인가를 받은 강의와 학과가 점차적으로 설립되면서 프랑스 교육계에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오늘날까지 꾸준히 발전하며 나날이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2. 프랑스 한국학의 역사

프랑스에서 한국학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역사에 대해서는 이진명의 보고서 “프랑스 한국학 : 기원에서 2006년까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³⁾. 본고에서는 프랑스 한국학 역사의 발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2006년 이후의 변경 사항 등 약간의 최근 자료를 보충하여 <표 2> 한국학 연구 기관 설립과 변천 연표를 만들어 보았다.

3) 이진명, “프랑스 한국학 : 기원에서 2006년까지”, 『해외한국학백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을유문화사, 2007, pp. 366-390

표 2 한국학 연구 기관 설립과 변천 연표

현존 기관명	1956	1959	1968 - 1970	1984	1987	1988	1989	1991	1998	2000	2006	2009 이후	
소르본느 대학	1956, 한국어 강의 개설(이옥)												
		1959, 일본학자 샤를르 아게노어가 한국학과 (Centre d'études coréennes) 설립											
		1968-1970, 파리 1-7대학으로 개편											
파 리 7 대 학				1970, 소르본느 동양학부가 흡수되면서 동양어문화학부(LCAO) 한국섹션 설립(이옥) / 동아시아 언어 문화과 도서관 설립							2006, 유럽학위제 LMD 실시		
폴레쥬드프랑스				1969, 한국연구소(Institut des études coréennes) 설립(샤를르 아게노어) / 극동 전문도서관 설립									
동 양 어 대 학	1956, 한국어 강의 개설(이옥)											2006, 유럽학위제 LMD 실시	
		1959, 동양어대학(ENLOV, INALCO 전신)에 한국어 전공 국가 학위(DULCO) 신설											
		1969, 한국-일본 학부 설립											
사 회 과 학 고 등 연 구 원								1989, 한국경제사회연구팀 GRESCO 개설(정성배-베르트랑)		2006, 프랑스 국립과학원 CNRS 정책 개편으로 한국, 중국, 일본 연합 연구소 UMR 8173 소속 한국팀으로 변경			
								1991, 파리7대학과 함께 프랑스 국립과학원 CNRS 인증 연구팀 UPRES-A8033설립					
								1998, 현 “한국학연구 센터 (CRC)” 설립, 박사학위만 수여				2006, 유럽학위제 LMD 개편으로 석사 과정 도입	
리 옹 3 대 학				1983, 한국어 강의 개설(이진명)				2000년 이후 대학인증학위(DU)로 변경					
				1988, 한국학과 학부 2년 과정 학위(DEUG) 설립									
보 르 도 3 대 학				1984, 한국어 강의 개설(김보나)									
르 아 브 르 대 학					1987, 한국어 강의 개설(샤발-최은숙)								
루 앙 대 학											2002, 한국어 강의 개설(보몽 규영)		
라 로 셸 대 학											2002, 한국어 강의 개설(에블린 쉐렐)		
프로방스대학												2005, 한국어 강의 개설(김혜경)	
파리정치학교												2005, 한국어 강의 개설	

연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연구는 1956년 일본학자 샤를르 아게노어 (Charles Haguenauer) 교수의 노력으로 소르본느 대학에 한국어 강의를 개강한 이래 프랑스 고등교육의 역사와 함께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왔다. 한국학이 프랑스 학제에 편입되어 있는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그 다양한 형태를 세부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프랑스 고등교육 체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여 학위의 특징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프랑스 교육기관은 대부분 국립기관으로서 수여하는 학위, 즉, 일반적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는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 학위”이다. 그 밖에 각 대학이나 학술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학위가 있는데 이는 “대학 인증 학위(Diplôme de l'Université, DU)” 내지는 “(각 학술기관 명) 인증학위”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몸담고 있는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는 국가 학위인 석사, 박사 학위 외에도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학위(Diplôme de l'EHESS)”를 수여하고 있다.

2006년에 유럽국가 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 학제에도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국가 학위 제도에 생긴 변화를 보면 다음 <표 3> 프랑스 (유럽) 대학 학제⁴⁾와 같다. 대학 2년 과정 학위 DEUG가 없어지고 3년차 학사 과정 학위로 통일 되었으며 석사과정 1년 학위와 박사 준비과정 학위 DEA가 통합되어 석사 2년 과정 학위로 되었다. 이 개편된 제도를 LMD(Licence-Master-Doctorat) 즉, 학사, 석사, 박사 학위체제라 부르며 거의 모든 국립 고등교육-연구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독특한 학위체제를 가지고 있던 동양어문대학 INALCO에서도 2006년 이후 이 유럽 학위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표 3 프랑스 (유럽) 대학 학제

학년	1	2	3	4	5	6	7	8
구학제	DEUG		Licence	Maîtrise	DEA	Doctorat		
신(유럽) 학제	Licence			Master I, II		Doctorat (180 학점)		
동양어 대학	DULCO		Dip. Sup.	DREA	DEA			
	Dip. Bilingue avec maj-min			Diplôme CPEI				

4) 이진명, 2007, idem

3. 프랑스 수도 파리의 한국학 기관

프랑스 한국학의 근원지 수도 파리에 한국학의 핵심을 이루는 세 개의 학술기관인 파리 7대학(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동양어문화대학(Institut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일명 Langues'O), 사회과학고등연구원(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이 있다. 프랑스에 최초로 개설된 소르본느대학의 한국학과가 1968년 프랑스 대학 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파리7대학으로 옮겨와 동양어 문화학부에 한국학섹션으로 거듭났고, 프랑스 식민지 관리와 외교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통 깊은 동양어문화대학에도 1956년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이후 꾸준히 발전했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1989년 한국연구센터(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 CRC)가 설립되었다.

동양어문화대학(Institut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은 한국부가 유라시아학과에 속해 있으며 학부 과정 1학년에서는 주로 한국어 문법과 회화, 한국 지리에 대한 강의가 있고 2학년 때 한자와 역사, 경제, 시사 한국어 등이 첨가되고 3학년이 되면 한국 문학과 문화사, 예술, 영화 등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선택과목으로 실용회화, 방법론, 컴퓨터 강의 등이 있다.

파리 7 디드로대학(Université Paris 7 - Diderot)에는 한국섹션이 동양어문화학부(LCAO)에 속해 있으며 학부 과정 1학년에서는 한국어 문법과 회화, 한국 문화 강의를 하고 2학년 때 한문이 첨가된다. 3학년에서는 고급 문법과 번역, 한국 사회와 한국 사상의 흐름에 대한 강의와 현대 문학 텍스트를 다루며 전문 분야에 대한 지도가 시작된다.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에는 한국연구센터(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 CRC)가 지역학 계열에 속해 있으며 학부 과정 강의는 없고 석사, 박사 과정을 위한 세미나와 외부 초청 강사의 강연, 학술 대회가 정기적으로 있다.

위 세 기관에서는 국가 학위를 수여하는데, 파리7대학과 동양어문화대학이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학부 교수 과정의 비중이 크다. 동양어문화대학과 파리7대학은 한국어, 일반 역사 등 기초 문화에 대한 수준 높고 우수한 강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파리7대학은 백여 명의 졸업생과 오십여 명의 박사를 배출하여 프랑스 등지에서 한국학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교부 엘리트의 희귀언어 교육장으로서의 오랜 전통이 있는 동양어문화대학(INALCO)은 장교, 외교관 지망생, 기업의 간부,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관련 전문가를 배출했다⁵⁾.

한편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CRC-EHESS)는 연구원 양성과 연구 활동 지원을 소명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학위 제도는 박사 과정 밖에 없다가 2006년 학제 개편 이후 석사 과정을 도입하여 석사 학위도 수여하고 있다.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지식 교육 보다는 연구 과정의 비중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국어 강의나 기초 문화 강의보다는 박사 과정 중심의 전공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세미나와 연구발표들을 제공한다. 또한 해마다 전 세계의 한국 연구자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특히 유럽 차원의 한국학 활성화를 위해 유럽 각지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열고, 박사 과정 학생들도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박사 과정 학생들 스스로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주관하게 하고 있다.

표 4 파리 한국학 기관 현황

기관명 (정보 해당 연도)	학사생	석사생	박사생	교수	분야	한국 장서	장서 담당자
동양어문화대학 (2009)	221	6	0	정규3 임시6	한국어, 문학, 번역, 역사(문화사, 사상사)	10,000	임시 0.5
파리7대학 (2009)	120	10	10	정규3 임시3	한국어, 언어학, 역사 (고대사, 불교)	17,000	임시 1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2011)	0	2	15	정규3	역사(근현대, 종교사, 사회사, 문화사), 인문사회지리, 남북한학, 인류학 (무속, 민간신앙, 전통문화)	단행본 : 8,000 정기간행물 : 4,000 시청각자료 : 500	정규 1
폴레쥬드프랑스 (2011)	0	0	0	0	철학, 종교, 예술	30,000	임시1 (정규1 예정)

5) Yannick Brunneton et al., 파리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2010(비출판물)

위의 <표 4> 파리 한국학 기관 현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학사 과정의 학생들이 파리 7대학과 동양어문화대학에 등록한 많은 수의 저학년 학생들이 한국어와 문화 등 기초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 석사 과정 이상의 연구 활동을 파리7대학과 사회과학고등 연구원에서 계속하게 된다. 특히 2005-2006년도 유럽 공동 학제 LMD(학사-석사-박사) 개편 이후, 세 기관에서는 석사 과정 세미나의 학점 교환제를 실시하여 석사 과정 세미나를 공유하고 있다.

4. 프랑스 지방 한국학 현황

프랑스 수도 파리에 있는 주요 학술기관뿐만이 아니라 지방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의 개설이 증가했다. 특히 약 5년 전부터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보급에 따른 한류와 한국 경제 향상과 IT 기술 개발에 힘입어 프랑스 젊은 세층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와 문화 강의에 등록하는 학생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⁶⁾. 다음 표에서 지방 대학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리옹3대학과 보르도3대학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⁷⁾.

기관명	2007-2008 학생 수	2008-2009 학생 수	2009-2010 학생 수	2010-2011 학생 수
리옹3대학	83	87	104	133
보르도3대학	70	73	79	111

지방 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문화 강의를 다른 전공 과정의 선택이나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수여 학위는 라로셀 대학의 경우 응용 외국어 학과에서 영어-한국어 전공으로 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대학 인증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6) 이진명(Li Jin-Mieung), «Vague des apprenants du coréen dans les universités françaises», pp 22-23, in Bulletin AFPEC N° 23, 2009

7) 최신 정보들을 모으기 위해 이메일로 보낸 설문에 자상하게 대답해 주신 김보나 교수님과 이진명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5> 지방 한국학 연구 현황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표 5 지방 한국학 연구 현황

기관명	교수	수여 학위	담당자 및 연락처
엑스 - 마르세이유대학	계약 1 (정규1예정)	DU 대학인증학위	김혜경 courtils2003@yahoo.fr
라로셀대학	정규 2	응용 외국어학과 ; 영어-한국어 학사 경제, 국제 관계 석사과정에 선택과목	Evelyne Cherel echerel@univ-lr.fr
보르도3대학	정규 1	Certificat(중전의 DU와 동일) 유럽대학 어학코스인증보르도1234 기타 대학 생에게 오픈, 선택 3년 언어과정 외의 한국학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사과정에 필수과목, 1학기에 16시간(8주) : “한국 언어와 문화” 석사 과정 2학년, 필수과목 : 2학기에 5시간 내지 10시간 : “삼국시대 불교 예술과 향가”	김보나 bona.kimlee @u-bordeaux3.fr
리옹3대학	정규 1, 계약 1	DU 대학인증학위(중국어 학사, 일본어 학사 과정 필수 선택) 3년 과정 중 1-2학년은 한 학년에 주 1, 5시간, 주 2회 “언어” 강의(1학기 10주, 2학기 10주). 3학년은 1, 5시간은 “언어”, 1, 5시간은 “문화와 사회”	이진명 http://www.univ-lyon3.fr/
루앙대학		DU 대학인증학위	Kyu-Young Beaumont coree_cescc@yahoo.fr
벨포르기술대학			배정숙 jung-sook.bae@utbm.fr
르아브르대학	정규 1	DU 대학인증학위	최은숙(chabal), eun-sook.chabal @univ-lehavre.fr

5. 연구 활동

프랑스 한국학은 그 교육 내용과 연구의 양적 질적인 수준을 감안할 때 영국, 러시아, 독일, 덴마크와 함께 유럽 5대 한국학 강국 중 하나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류학과 역사, 문학, 지리학, 사회학, 언어학을 망라하며 근현대사뿐만이 아니라 고문서 자료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도 현재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한국학의 강점은 고전분야의 연구원들의 왕성한 활동, 근대사 연구 분야에서 다루는 폭넓은 주제, 인문사회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체제,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 정기적인 교류를 갖는다는 점이다⁸⁾.

프랑스 한국학의 핵심을 이루는 세 기관의 전공 분야를 보면 파리7대학에는 한국 현대 문학, 언어학, 고대 역사, 한문 등이고, 동양어문화대학(INALCO)은 문학, 번역, 사상-문화사, 동아시아 종교 전통 등이 있으며,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CRC-EHESS)는 문화인류학, 근현대 역사, 정치-경제, 문화-사회학, 일제 식민지시기 사회사, 인문사회 지리 분야에서 도시사와 남북 관계, 한인 디아스포라 등 사회과학 전반 분야이다. 지리적으로 한반도 전체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하며 시기적으로는 폭넓은 의미의 근대, 즉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를 망라한다.

5.1 프랑스 국립과학원 한-중-일 연합연구소(UMR 8173 CNRS-EHESS)

프랑스 고등교육-연구 체제에서는 교수 활동과 연구 활동이 별개의 행정 체제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좋은 예가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 산하에 있는 한-중-일 연합연구소다. 이 연합연구소에 소속된 한국학 연구팀에서는 서로 다른 대학과 학술기관에 소속된 한국학 연구자들이 모여 함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프랑스 교육기관들이 국립이라는 점과 기관 간의 연계를 독려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가능한 체제다. 이런 체제 덕분에 프랑스 한국학의 핵심을 이루는 독립적인 행정 체제인 세 개의 학술기관의 멤버들이 매우 밀접한 유대관계 속에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다.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 산하의 연합연구실은 프랑스 한국학의 교차점이자 중심지로서 파리와 지방에 있는 한국 학자들도 대부분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박사 과정 학생들도 대부분 소속되어 있다.

8) Yannick Brunneton et al., 2010, idem

현재 연구팀 구성을 보면 역사, 지리, 언어 분야가 중심을 이루며 독도 문제나 동해 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박사 과정 학생들의 주제를 보면 사회 인류학, 사회학, 정보커뮤니케이션, 정치학, 문학 그리고 한류와 같은 대중문화 연구 등 다양하다. 진행 중인 공동연구의 구체적인 주제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사회과학과 번역”, “한반도의 메타문화: 남북사회의 내적 경계와 인터페이스”, “한국의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 “서울 아틀라스: 서울, 아시아에 떠오르는 메트로폴”, “한국사 교재 연구” 등이 있다.

연구원들과 교수들은 이 밖에도 각자 관련 학문 분야의 전문협회에 가입해 활동하여 프랑스 학계에서 주변 학문이었던 한국학이 프랑스 학계로부터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게 함으로써 한국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학은 최근 프랑스 학계로부터 지역학의 새로운 연구형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최근 권위 있는 인문사회지리 학술지 『Espace-temps』에 발표된 연구원들의 공동 논문이 이론 파트에 선정 소개 되었는데⁹⁾, 이는 논문의 학술적인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5.2 한국학 파리 컨소시엄

현재 프랑스 정부는 대대적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 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학술기관들을 지리 및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둘째, 교육-연구 분야의 개별화를 통하여 각 기관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개혁의 취지대로라면 지금까지 다른 기관 소속이면서 함께 모여 연구하던 연계의 전통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 개혁의 결과가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는 각 기관의 상황과 연구 분야와 정책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한국학과 같이 소수 집단에 해당하여 상호 간에 협력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한국학 전문가들의 분산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불리한 요건을 극복하고 지금까지처럼 일관성 있는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랑스 한국학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세 기관(파리7대학, 동양어문화대학,

9) Valérie Gelézeau et al., “Interfaces et reconfigurations de la question Nord/Sud en Corée” in EspacesTemps.net (2010) <http://espacestemp.net/document8430.html>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이 한국학 파리 컨소시엄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한국학 컨소시엄 결성 계획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중핵대학 결성 정책에 선정되어서 프랑스의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학의 세계화, 특히 불어권에 한국학을 보급한다는 목적하에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 한국 장서

프랑스 한국학의 발전과 함께 한국 관련 장서들도 발전되었다. 파리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한국 관련 장서들이 상당수 있다. 초기에 프랑스 외교관들이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자료들은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끌레주드프랑스, 동양어문화대학 중앙도서관 등지에 주로 보관되어 있다.

프랑스 한국학이 제도적으로 정착한 이후 초기 학자들의 노력으로 프랑스에 한국 관련 자료들은 상당한 평가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학술 서적도 증가하였다. 파리에 있는 주요 한국 장서가 있는 도서관으로는 끌레주드프랑스 한국연구소 도서관, 파리 7대학 한국학과 도서관, 동양어문화대학 중앙도서관,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도서관 등이 있다.

6.1 주요 한국 학술 장서

1969년 한국연구소와 함께 시작된 끌레주드프랑스 극동전문 도서관에는 현재 정기 간행물까지 약 3만 권의 장서가 있고, 1970년 동양학부 한국섹션과 함께 이옥 교수에 의해 설립된 파리7대학 동양학부 도서관의 장서 규모는 현재 1만여 권이다.

1998년 설립된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의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지만 가장 빠르고 큰 폭의 발전을 했다. 2004년 약 5천 권 정도였던 장서 규모가 2011년 현재 1만여 권에 달하고 있다. 2006년 이전까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기지원이 주된 신규자료로 매년 200권 정도의 신착자료들이 있었던 반면 2006년 이후에는 기존의 정기 지원 이외에도 연구센터의 자체 예산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자료 구입에 사용되어서 신착자료 구입이 연간 400권 이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연구기관이나 지원 기관과의 관계 폭이 넓어짐에 따라 각 기관들의 기증하는 자료들도 괄목할 만큼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한국 영화 진흥원이 지원하는 한국 영화 허브 라이브러리 선정됨에 따라

한국 영화 관련 서적 150권과 한국 영화 DVD 400여 점이 추가 되어 2011년 4월 현재 까지 접수된 신착자료 증가 규모는 약 1,000부에 달한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 센터는 한국 영화 전문 자료관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다 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폭 넓은 자료 보급을 위해 여러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동양어문화대학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된 동양어문화대학 중앙도서관은 긴 역사만큼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 한때 파리3대학 등 여러 대학과 연계하여 다 대학 연합 도서관인 BIULO¹⁰⁾였다가 현재는 언어문명도서관 BULAC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BULAC은 BIULO의 서고 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구책으로 시작되었다가 한 때 라틴 어권을 제외한 세계의 언어와 문명 관련 장서를 한 곳에 집중시킨다는 야심찬 취지가 부가되면서 9개 교육-연구 기관이 협력하도록 되었다. 이 9개의 협력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서구 언어문화 장서를 BULAC으로 통합하여 약 1,600,000권의 장서 규모를 갖추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8년경부터 다시 정책이 바뀌어 초기 협력 기관들 대부분이 이 장서 통합 계획에서 탈퇴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애초의 계획대로 다 대학 협력체제에서 나온 동양어문화대학 도서관의 확장 이전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 BULAC의 협력 기관 중 하나였던 사회과학고등연구원도 계획과는 달리 통합을 위한 장서 기증 대신, 프랑스 정부의 대학 개편 정책에 따른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이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서고 자리 확보를 위해서 장서의 일부를 임시 기탁하기로 결정하였다. 파리7대학은 공식 협력 기관은 아니었으나 그동안 관리하지 못하고 있던 장서의 일부인 12,000여 권을 BULAC에 기증 했다.

상기한 각 도서관이 다루는 주요 분야와 운용 방식, 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 센터 웹사이트에 소개되어있다¹¹⁾.

10) Bibliothèque Interuniversitaire des Langues Orientales(다대학동양어도서관), 프랑스 국립동양어학교 뿐 아니라 파리 3, 7, 8 대학을 연계하여 일개 대학의 행정 영역을 초월하는 대학 간 연합 도서관으로, 도서관 본과 외에도 파리 9대학과 프랑스 국립동양어학교에 각각 그 부속 도서관을 두고 있다. 한국 장서는 주로 본 도서관과 꼬뤼시 센터에 소장되어 있다. (나은주, 2006, “Fonds coréens : histoire et état général 한국장서 유래와 현황”(http://lodel.ehess.fr/crc/document.php?id=426)

11) 나은주, “Fonds coréens파리의 한국 관련 장서”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웹사이트 http://crc.ehess.fr/document.php?identifiant=documentation

6.2 도서관 간의 협력 체제

프랑스에서는 연구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활동도 상호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협력 형태는 다양하며, 크게 기관 내 협력과 기관 간의 협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국 장서를 보유한 각 도서관들은 소속 학술기관의 연구 분야와 행정상의 특성을 따르면서도 도서관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상호 중복을 피하면서 각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 간의 협력의 예가 될 수 있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 소속된 각 연구소의 자료관들 간의 협력은 기관 내 협력의 예가 될 수 있겠다. 구체적인 협력 양상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적이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프랑스 인문사회과학 전문 도서관 상호 협력 사례”에 소개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¹²⁾. 이에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아시아 전문 도서관들 간에 결성된 아시아 전문 도서관 협회(Réseau DocAsie)이다. 이 협회는 매년 정기적인 학술 모임을 주관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사례-연구 발표들을 통해 아시아 전문 정보관리자들이 스스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6.3 한국 학술 전자 자료와 주제 모니터링 서비스

프랑스 한국학자들은 RISS International, KISS, DBpia 등 주요 한국 학술 전자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연구소(UMR 8173 CNRS-EHESS)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이용권한을 갖는데, 연합연구소의 주 운영자인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센터(CRC-EHESS)가 관리하고 있다. CRC-EHESS는 또한 현재까지는 학술 정보 관리를 위해 유일하게 정규직을 둔 연구소로서 진행 중인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출판물이나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토론 등에 관한 정보와 세계 각국의 한국학에 관련된 소식들을 모아 제공하는 “한국학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하고 있다. 파리 컨소시엄 시행과 아울러 한국학 전자 자료의 다양한 개발과 보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12) 나은주 “프랑스 인문사회과학 전문 도서관 상호 협력 사례”, 『도서관문화』, 2009년 7월호 vol 50 - n.7 (V. 409), 한국도서관협회(Korean Library Association), 서울, pp.67-76.
<http://www.kla.kr/business/publication/paper/tblPaper/view.asp?pkid=68&page=6&pYear=&pMonth=&searchValue=&BBSCode=P0002>

참 고 자 료

- Yannick Brunneton et al. 2010. 파리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비출판물).
- Valérie Gelézeau et al. 2010. “Interfaces et reconfigurations de la question Nord/Sud en Corée” 『EspacesTemps.net』, <http://espacestemps.net/document8430.html>
- 이진명(Li Jin-Mieung). 2009. “Vague des apprenants du coréen dans les universités françaises”. 『Bulletin AFPEC』 23호. pp.22-23.
- 이진명, “프랑스 안의 한국 문화(1-12)” <http://www.euro-coree.net/news/viewbody.php?board=alaune&page=1&number=1697&search=section&genre=alaune161> 외
- 이진명. 2007. “프랑스 한국학 : 기원에서 2006년까지”. 『해외한국학백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을유문화사, pp.366-390.
- 다니엘 부셰. 1986.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꾸랑(상, 하)”. 『동방학지』 51-52호. http://halshs.archives-ouvertes.fr/docs/00/44/35/75/PDF/Courant_TBHC_2.pdf
- 나은주, “Fonds coréens 파리의 한국 관련 장서”.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한국 연구센터 웹사이트 <http://crc.ehess.fr/document.php?identifiant=documentation>
- 나은주, 2009. “프랑스 인문사회과학 전문 도서관 상호 협력 사례” 『도서관문화』 2009년 7월호 vol 50 - n.7 (V. 409). 한국도서관협회(Korean Library Association), pp.67-76. <http://www.kla.kr/business/publication/paper/tblPaper/view.asp?pkid=68&page=6&pYear=&pMonth=&searchValue=&BBSCode=P0002>
- 나은주, 2006. “한국장서 유래와 현황(Fonds coréens : histoire et état général)”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웹사이트 <http://lodel.ehess.fr/crc/document.php?id=426>

Status of Korean Studies and Related Academic Institutions in France

Eunjoo Na *

1. Origin of Korean Studies in Fr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France and Korea was already burgeoning with the activities of Catholic priests before the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established in the 19th century and books introducing Korea to the Western world started to be published. The history of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detailed in the articles contributed by Professor Li Jin - Mieung to Euro - coree, an online news site for Korean expatriates in Europe¹⁾. According to Professor Li, Korea was first introduced to the French in 1670 when a French version of Hendrick Hamel's report was published. The second part of the *Journal of Hamel* gives a detailed account of the Joseon Dynasty. Descriptions of ancient Korea are also found in reports by Catholic priests as well as geographic books and maps by early explorers. With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France and Korea, French diplomats were deployed to Korea and those with strong intellectual curiosity started collecting diverse materials and relics of Korea. A significant part of those items are hous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 Guimet, Collège de France, and the Central Library of Institut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

* Ingénieur d'études,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 (CRC),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CRC-EHESS, CNRS -UMR8173, Chine, Corée, Japon)

1) Li Jin-Mieung, "Korean Culture in France (1-12)" <http://www.euro-coree.net/news/viewbody.php?board=alaune&page=1&number=1697&search=section&genre=alaune161>

This paper presents a chronological table of early French publications introducing Korea, created based on Professor Li's Korean Culture in France (1-12) and Maurice Courant's publications. Courant's publications can be said to be the origin of Korean Studies in France and were accessed by referring to A Pioneer in Korean Studies, Maurice Courant (Parts 1 and 2)²⁾ which was written by Daniel Bouchez, translated into Korean and published in the *Dong Bang Hak Chi*.

Table 1 A chronological table of French publications introducing Korea

Year	Major historical events	Books introducing Korea	Catholic publications	Academic publications	Geographic books –drawings
1670		French translation of the <i>Journal of Hamel</i> by Hendrick Hamel (Part 2 gives a description of the Joseon Dynasty.)			
1735		<i>Description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i> (A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and Chinese-Tartary) by Jean-Baptiste Du Halde, a French Jesuit historian (Volume 4 includes “geographical reflections on the Joseon Dynasty” and “Joseon's brief history”)			
1736		<i>Histoire et description générale du Japon</i> (History and General Description of Japan) by Pierre Francois Xavier de Charlevoix, a French Jesuit historian			
1800			<i>Relation de l'établissement du Christianisme dans le royaume de Corée</i>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ity in Korea) by Bishop De Govea		
1846					<i>Carte de la Corée d'après l'original dressé par André Kim</i> (The Map of Korea by Priest Kim Dae-geon)
1849					<i>Annales hydrographiques</i> (Annals of hydrographic surveying) of the Liancourt (1854-1855), a French naval warship
1859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Future by Léon de Rosny in the <i>Journal Asiatique</i>	

2) Daniel Bouchez, “A Pioneer in Korean Studies, Maurice Courant (Parts 1 and 2)” *The Dong Bang Hak Chi* No. 51-52, 1986; http://halshs.archives-ouvertes.fr/docs/00/44/35/74/PDF/Courant_TBHC_1.pdf; and http://halshs.archives-ouvertes.fr/docs/00/44/35/75/PDF/Courant_TBHC_2.pdf

Year	Major historical events	Books introducing Korea	Catholic publications	Academic publications	Geographic books –drawings
1861				Vocabulaire chinois, coreen, aino: expliqué en français et précédé d'une introduction sur le écritures de la Chine, de la Corée et de Yéso (Chinese, Korean, and Ainu vocabularies) by Léon de Rosny in the <i>Journal Asiatique</i>	
1864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 (Overview of the Korean language) by Léon de Rosny in the <i>Journal Asiatique</i>	
1866	Byeongin Yangyo (French invasion of Ganghwa Island)				
1867					A croquis by Hubert Zuber in <i>L'illustration</i> January-February edition
1868				Sur la géographie et l'histoire de la Corée (About the Geography and History of Korea by Léon de Rosny in the <i>Journal Asiatique</i>	
1868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installed at Ecole Nationa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Léon de Rosny worked as a professor and Maurice Courant became a student.)				
1873					Pen drawings by Hubert Zuber in <i>Le Tour du Monde</i> (Portraits, landscapes of Ganghwa Island, and map of Joseon)
1874			<i>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i> (The History of Catholicism in Korea) by Priest Charles Dallet		
1879			<i>Ma captivité dans les prisons de Séoul</i> (The Journal of Imprisonment in Seoul) by Bishop Félix-Clair Ridel		
1880				<i>Dictionnaire Français-Coréen</i> (Korean-French Dictionary) by Bishop Félix-Clair Ridel and Ji-hyeuk Choi (It is the first Korean-foreign language dictionary.)	
1881				<i>Grammaire coréenne</i> (Korean Grammar) by Bishop Félix-Clair Ridel and Ji-hyeuk Choi (It is the first Korean grammar book.)	
1886	Treaty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France and Korea established				

Year	Major historical events	Books introducing Korea	Catholic publications	Academic publications	Geographic books –drawings
1887	First French ambassador to Seoul Collin de Plancy installed				
1889				Manuel de la langue coréenne parlée (Korean Spoken Language) by Camille Imbault-Huart	
1892				Repertoire Historique de l'Administration Coréenne (Historical Directory of the Korean Administration) by Maurice Courant	
1892				Voyage en Corée (A Trip to Korea) in <i>Le Tour du Monde</i> by Charles Varat	
1894				<i>La Corée ou Tchosen - La terre du calme matinal</i> (Joseon: The Land of Morning Calm) by Chaille-LongBey	
1894-1896				<i>Bibliographie coréenne</i> (Korean Bibliography) by Maurice Courant	
1897				La Corée jusqu'au IXe siècle, ses rapports avec le Japon et son influence sur les origines de la civilisation japonais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until the 9th century and its impact on the origin of the Japanese culture) by Maurice Courant (lecture in Musée Guimet)	
1897				Korean Pan-so-ri and Dancing by Maurice Courant	
1898				Stèle chinoise du royaume de Ko koy rye (A Stela of Goguryeo) by Maurice Courant	
1899				Sommaire et historique des cultes coréens (History and Overview of Religious Rituals of the Joseon Dynasty) by Maurice Courant (lecture in Musée Guimet)	
1900				Souvenir de Séoul, Corée (Introductory Note about Korea in Paris Exposition) by Maurice Courant	
1901				<i>Korean Bibliography</i> , a supplement edition by Maurice Courant	
1901				La Corée et les missionnaires français (Joseon and French Missionaries) by Priest Adrien Launay	
1903-1904				Emile Bourdaret published an article about dolmen, prehistoric relics, and his reflections on ethnic Koreans in <i>Société d'anthropologie de Lyon</i> (Journal of Anthropology, Lyon)	

Year	Major historical events	Books introducing Korea	Catholic publications	Academic publications	Geographic books –drawings
1904		En Corée (In Korea) by Emile Bourdaret			
1904				La Corée et les puissances étrangères (Joseon and Foreign Powers) in <i>Annales des sciences politiques</i>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by Maurice Courant	
1904				Un établissement japonais en Corée : Fou-san depuis le XVe siècle (A Japanese Base in Joseon: Busan since the 15th Century) in <i>Annales des sciences politiques</i>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by Maurice Courant	
1905		En Corée (In Korea) by Hippolyte Frandin			
1905		A Seoul (In Seoul) and <i>La troisième jeunesse de Mme Prune</i> (Mrs. Plum's third Youth) by Pierre Roti (Julien Viaud)			
1913				<i>Essai historique sur la musique classique des Chinois, avec un appendice relatif à la musique coréenne</i> (Historical Essay on the Chinese Classical with an Appendix on the Korean Music) by Maurice Courant	

As shown in the table, Korean Studies in France, which have evolved from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Maurice Courant, have taken root and continued to develop in the French education system, with official courses and separate departments of Korean Studies being installed in major academic institutions.

2. History of Korean Studies in France

The history of Korean Studies in France is explained in detail in Professor Li's report titled *Korean Studies in France from Its Birth through 2006*³⁾. Table 2, which has been created based on this report, complemented with some recent developments made since 2006, presents a snapshot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France.

3) Li, Jin-Mieung, "Korean Studies in France from Its Birth through 2006" in the *Overseas Korean Studies Whitepaper*, Korea Foundation, Uryu Munhwasa, 2007, pp. 366-390

Table 2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Korean Studies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Institution Name	1956	1959	1968 – 1970	1984	1987	1988	1989	1991	1998	2000	2006	after 2009	
Sorbonne University	1956, Korean language course opened (Li, Ogg)												
		1959, Charles Haguenauer, a scholar on Japanese studies, initiated Centre d'études Coréennes (Center for Korean Studies)											
			1968-1970,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was integrated into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1970, Oriental Studies Program at Sorbonne was absorbed into establishing the Korean stream in Langues et Civilisations de l'Asie Orientale (Li, Ogg); Asian Language and Culture Library established							2006, LMD (new European school system) launched		
Collège de France			1969, Institut des études coréennes was established by Charles Haguenauer; Far Eastern Studies Library established										
Ecole Nationa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1956, Korean language course started (Li, Ogg)												
		1959, state diploma for Korean Studies introduced at ENLOV (predecessor of INALCO)									2006, LMD launched		
			Division of Korea and Japan established in 1969								2000, changed from the department of Japanese and Korean Studies to the department of Eurasian Studies		
												Centre des études Coréennes was established in 2009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1989, GRESCO, a research team on Korean economy and society established (Jeong, Seong-bae and Bertrand)						
								1991, UPRES-A8033, a CNRS-certified research team established at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in collaboration with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2006, changed to Korean stream under UMR 8173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d CNRS policy		

Institution Name	1956	1959	1968 – 1970	1984	1987	1988	1989	1991	1998	2000	2006	after 2009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1998, Korean Studies Research Center (CRC) established, which offers doctoral degrees only.		2006, master's cours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LMD	
Université Jean Moulin Lyon 3				1983, Korean language course opened (Li, Jin-Mieung)								
						1988,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offers a 2-year undergraduate program (DEUG)			University diplomas (DU) have been offered since 2000			
Université Bordeaux 3				1984, Korean language course opened (Kim, Bo-na)								
Université du Havre				1987, Korean language course opened (Chaval-Choï, Eun-sook)								
Université de Rouen									2002, Korean language course opened (Beaumont Moon, Kyu-Young)			
Université de La Rochelle									2002, Korean language course opened (Evelyne Cherel)			
Université de Provence											2005, Korean language course opened (Kim, Hye-Gyeong)	
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											2005, Korean language course opened	

As indicated in Table 2, Korean Studies in France have developed in a range of forms, influenced by the changes in the tertiary education in the country since the Korean language course first opened in Sorbonne University in 1956 by Professor Charles Haguenauer of Japanese Studies. Korean Studi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French school system in several different forms. As an elaborate account of the details is deemed unnecessary, however, this paper will explain only some particulars of related diplomas in order to help the readers understand the French tertiary education system.

Most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ance are state - funded and the diplomas they offer, such as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are called “state diploma” certified by the state. Each university and academic institution can also award their own diplomas called *Diplôme de l'Université (DU)* or diploma with the name of the specific academic institution. For example, my institution,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offers *Diplôme de l'EHESS* in addition to state - certified master's and doctoral diplomas.

The French school system was reshaped in 2006 as part of an effort to further promote exchanges between academic institutions in European countries. Table 3 shows the changes in the state diploma system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form initiative⁴⁾: DEUG, a two - year college program, was absorbed into a three - year undergraduate program; and the one - year master's program and the preparatory diploma for doctoral course (DEA) were absorbed into a two - year master's program. This new system, which is called LMD (*Licence-Master-Doctorat*) or a bachelor - master - doctoral system, is uniformly applied to most of the state tertiary educational and academic institutions. Accordingly, INALCO, which used to have its own diploma program, has adopted this European diploma system since 2006.

4) Li Jin-Mieung, 2007, *idem*

Table 3 French (European) University Diploma System

Year	1	2	3	4	5	6	7	8
Old system	DEUG		Licence	Maîtrise	DEA	Doctorat		
New (European) system	Licence			Master I, II		Doctorat (180 credit points)		
Ecole Nationa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DULCO		Dip. Sup.	DREA	DEA			
	Dip. Bilingue avec maj-min			Diplôme CPEI				

3. Institutions for Korean Studies in Paris

There are three major academic institutions for Korean Studies in Paris,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in France: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Institut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 or Langues'O), and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n Sorbonne University, the first of its kind in France, was integrated into the then newly - established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in accordance with the 1968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reborn as the Korean stream in Langues et Civilisations de l'Asie Orientale (Languages and Civilizations of Eastern Asia). Meanwhile,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t the long - established INALCO, which was first set up for the purpose of the management of French colonies and cultivation of qualified diplomats, has continued to advance since its inception in 1956. EHESS established Centre de Recherchers sur la Corée (CRC, Korean Studies Research Center) in 1989 with the suppo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Korean stream at INALCO (Institut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which is placed under the department of Eurasian Studies, offers courses on grammar, conversation, and geography to first - year undergraduate students; Chinese characters, history, economy, and modern Korean to second - year students; and literature, culture, arts, and films to third - year students. Practical Korean, methodology, and computer skills are offered as optional units.

Université Paris 7 - Diderot also has a Korean stream under Langues et Civilisations de l'Asie Orientale (LCAO) or the division of Languages and Civilizations of Eastern Asia. Students take courses on Korean grammar and conversation, and Korean culture in the first year, and Chinese characters in the second year. Students in the third year learn more specialized subjects including advanced grammar, translation, Korean society, Korean philosophy, and modern Korean literature.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 (CRC) at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belongs to the school's Regional Studies stream. It does not offer lectur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stead, it holds seminars for graduate students as well as guest lectures and conferences on a regular basis.

All of these three institutions offer state diplomas. Université Paris 7 - Diderot and INALCO award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and have substantial undergraduate programs. These two institutions also provide a number of quality lectures on Korean culture including language and history. Université Paris 7 - Diderot has produced about 100 undergraduates and 50 - odd doctors, who are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furthering Korean studies in France. INALCO, which boasts of its long tradition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non - major languages for diplomatic elites, has produced Korean experts in a diverse range of fields including the military, diplomatic, corporate, and media sectors⁵⁾.

CRC-EHESS, which began with an aim to produce qualified researchers and support their research activities, had only offered doctoral programs before they introduced master's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al reform in 2006. The programs provided by CRC - EHESS are mainly research - oriented: seminars and presentations on in - depth topics targeting doctoral students are offered rather than introductory courses in area language and culture. Also, the center holds seminars on a regular basis by inviting researchers of area studies from around the world, elected master's scholars in Europe in an effort to support area studies across Europe. Furthermore, students in doctoral programs are encouraged to run research teams of their own and hold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5) Yannick Brunneton et al., Paris Consortium Business Plan, 2010 (not for publishing)

Table 4 Institutions for Korean Studies in Paris

Institution (Most recent year available)	No. of under- graduate students	No. of master's students	No. of doctoral students	No. of professors	Areas	No. of Korea-related collections	Staff in charge of the collection
INALCO (2009)	221	6	0	Permanent 3 Temporary 6	Korean language, literature, translation, history (culture and philosophy)	10,000	Temporary 0.5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2009)	120	10	10	Permanent 3 Temporary 3	Korean language, linguistics, history (ancient history, Buddhism)	17,000	Temporary 1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2011)	0	2	15	Permanent 3	History (modern history, religion, society, culture), Humanities/social sciences/geography, North and South Korean Studies, anthropology (shamanism, folk beliefs, traditional culture)	monographs: 8,000 periodicals: 4,000 audiovisual items: 500	Permanent 1
Collège de France (2011)	0	0	0	0	philosophy, religion, arts	30,000	Temporary 1 (plans to hire one permanent staff member)

As indicated in Table 4, a number of students obtain a basic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t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and INALCO before advancing to a master's course or higher at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or EHES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universal European school system (LMD) in 2006, the three institutions have had in place a credit exchange system for seminars in master's programs.

4. Status of Korean Studies in other parts of France

An increasing number of local universities other than major institutions in Paris have introduced courses on Korean Studies over the past years. Since around five years ago, in particular,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ourses has surged as young French students have grown more interested in Korea partly thanks to the international popularity of Korea's pop culture, strengthened economy, and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⁶⁾.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the courses on Korean Studies in Université Jean Moulin Lyon 3 and Université Bordeaux 3, both of which are among the longest - established local universities⁷⁾.

Institution	2007-2008 (No. of students)	2008-2009 (No. of students)	2009-2010 (No. of students)	2010-2011 (No. of students)
Université Jean Moulin Lyon 3	83	87	104	133
Université Bordeaux 3	70	73	79	111

In general, local universities do not have separate departments of Korean Studies but offe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ourses as an optional or required course in other majors. Most universities award university diplomas except Université de La Rochelle, which offers undergraduate diplomas for English - Korean major in the department of applied foreign language studies. Table 5 summarizes the status of Korean Studies in local universities.

6) Li, Jin-Mieung, Vague des apprenants du coréen dans les universités françaises, pp 22-23, in Bulletin AFPEC N° 23, 2009

7) I truly thank Professors Bo-na Kim and Jin-Mieung Li for their kind responses to my questions about recent information.

Table 5 Status of Korean Studies in local universities

Institution name	No. of professors	Diploma	Contacts
Université D'Aix-Marseille	Temporary 1 (plans to install one permanent position)	University Diploma (DU)	Kim, Hye-kyoung courtils2003@yahoo.fr
Université de La Rochelle	Permanent 2	Department of Applied Linguistics: English-Korean is an optional course to Economics (undergradu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s) majors.	Evelyne Cherel echerel@univ-lr.fr
Université Bordeaux 3	Permanent 1	Certificat (equivalent to former DU): certificate for language programs in universities in Europe. It is open to students of Université Bordeaux 1, 2, 3, and 4 as well as other universities. Korean Studies outside of the 3-year language program: required course for students who study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undergraduat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s offered 16 hours per semester (8 weeks). Required course for 2nd-year master's students: Buddhism Art and <i>Hyang-ga</i> in the Three Kingdom Era is offered 5-10 hours in the second semester.	Kim, Bo-na bona.kimlee@u-bordeaux3.fr
Université Jean Moulin Lyon 3	Permanent 1, Temporary 1	DU (required course in undergraduate Chinese and Japanese programs) 5 hrs per week for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Korean language course is offered twice per week (10 weeks each semester); 5 hrs of Korean language course and 5 hrs of Korean Culture and Society are offered for the third year students.	Li, Jin-Mieung http://www.univ-lyon3.fr/
Université de Rouen		University Diploma (DU)	Beaumont, Kyu-Young coree_cescc@yahoo.fr
Université de technologie de Belfort-Montbéliard			Bae, Jung-sook jung-sook.bae@utbm.fr
Université du Havre	Permanent 1	University Diploma (DU)	Choi, Eun-sook (Chabal), eunsook.chabal@univ-lehavre.fr

5. Research activities

When it comes to the quality and quantity of works on Korean Studies, France is one of the five major countries along with England, Russia, Germany, and Denmark. Their subject areas range from anthropology to history, literature, geography, sociology, and linguistics, as well as from ancient to modern history. The strength of Korean Studies in France comes from the vigorous activities of the researchers, a wide spectrum of research topics, close cooper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ty, and regular exchanges based on an international network centered around Europe⁸⁾.

The main research areas of the three major Korean Studies institutions in France are the following: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focuses on Korean modern literature, linguistics, ancient history, and Chinese characters; INALCO covers literature, translation, philosophy and culture, and religious traditions of East Asia; and CRC-EHESS deals with cultural anthropology, modern history, economy and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Japanese colonization, geography, urban history, North - South relations, and the Korean diaspora. All in all, their research areas range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Korean diaspora and from the 16th through the 21st century.

5.1 China - Japan - Korea Joint Lab at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UMR 8173 CNRS-EHESS)

In general, teaching and research are considered two separate systems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French tertiary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one good example is UMR 8173 CNRS (프랑스 국립과학원) at EHESS, a China-Japan-Korea Joint research center. Researchers from other universit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gather at this center to work on common research topics, which is possible due to the fact that French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state-funded and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is highly encouraged. UMR 8173 CNRS - EHESS is considered the crossroads and center of Korean Studies in France, in which most researchers and PhD students in the area from both Paris and other provinces join as members.

8) Yannick Brunneton et al., 2010, idem

Currently, several research teams are formed in the areas of history, geography, and languages. Research on the controversial Dokdo issues and naming dispute over the East Sea is also noticeable. PhD students also cover a range of topics in their research from social anthropology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tics, literature, and pop culture. Some of the ongoing joint studies include “social sciences and translation”, “the metacul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nal boundaries and interface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cultural and religious diversity of Korea”, “Seoul Atlas: Seoul, the rising metropolis in Asia”, and “research on textbooks on Korean history”.

By participating in professional associations related to their research areas, the researchers are contributing to heightening the status of Korean Studies by earning recognition for their work in French academic circles in which the Korean Studies community is considered to have presented a new research framework for regional studies. One good example is a recent paper published in the theory section of *Espace-temps*, an authoritative journal on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geography⁹); publication in the journal is a testament to the academic value of the paper.

5.2 Paris Consortium of Korean Studies

Currently, the French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reform across the tertiary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n order to integrate and reshape academic institutions in terms of geography and function; and second, in order to stimulate competition between institutions by separating teaching and research.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is reform may jeopardize the tradition of joint research and cooperation among researcher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Although the results of the reform will vary depending on the situation each institution is in, their research areas, and policy factors, it may bring negative consequences to small research communities like Korean Studies, which usually benefit more from cooperation. In

9) Valérie Gelézeau et al., “Interfaces et reconfigurations de la question Nord/Sud en Corée” in *EspacesTemps.net* (2010) <http://espacestemp.net/document8430.html>

recognition of such potential problems,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INALCO, and CRC-EHESS have decided to stay united and maintain their cooperative system by forming a Paris consortium of Korean Studies. This consortium has been selec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has become subject to support by the organization's Core University for Korean Studies Policy. Currently, the consortium is being actively supported under the goal of promoting Korean Studies in France and around the world.

6. Korean collections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Korean Studies in France, the colle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Korea has expanded. Paris is home for a number of academically significant Korea - related materials. Those materials brought to France by early French diplomats are held mostly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Collège de France, and the Central Library of INALCO.

Since Korean Studies were officially settled in the French education system, Korean collections have received close attention from French academia and have significantly grown thanks to the efforts of early scholars. The libraries that hold major Korea - related materials include Bibliothèque des Instituts d'Extrême Orient at Collège de France,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Library at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the Central Library of INALCO, and the Library at CRC-EHESS.

6.1 Major Korean collections

The Far Eastern Studies Library at Collège de France, which was set up along with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in 1969, is housing about 30,000 items including periodicals. The Korean collection at Langues et Civilisations de l'Asie Orientale at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which was launched along with the Korean stream in the division in 1970 by Professor Li Ogg, possesses some 10,000 volumes.

The Library at CRC-EHESS has expanded significantly since its inception in 1998 despite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the size of its collection has increased from about 5,000 books in

2004 to some 10,000 books in 2011. Until 2006, the library acquired about 200 books per year, mainly relying on the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Since then, however, it has assigned its own budget to acquire about 400 new books per year. The number of materials donated by other institutions has also greatly increased as the center's external network expanded. Designated a library for Korean films by the Korean Film Council in 2010, it has received 150 books and 400 DVDs of Korean films, putting the total number of newly arrived items as of April, 2011, at about 1,000. The Library at CRC-EHESS is working on ways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comprehensive access to these materials in order to live up to its newly acquired role as a Korean film storage in France.

The Central Library of INALCO has undergone a number of changes over its long history. The library, which was once a BIULO¹⁰⁾, a joint library among several universities including Université Paris - III, is now reinventing itself into a BULAC, a language and culture library. BULAC started as a measure to resolve the space shortage in BIULO; then it was turned into a cooperative project involving nine institutions when an ambitious plan emerged to bring together all the materials related to world languages and civilizations held in the nine institutions into BULAC. If this plan were implemented, BULAC was going to hold some 1,600,000 volumes.

10) Bibliothèque Interuniversitaire des Langues Orientales (Inter-university library of Oriental languages): an inter-university library that goes beyond the administrative boundary of each university, linking INALCO and Université Paris 3, 7, and 8. It has its branch libraries in Université Paris 9 and the National School of Oriental Languages. Korea-related collections are mostly housed in the main library and BIULO-Clichy. (Na Eunjoo, 2006, "Fonds coréens : histoire et état général (History and status of Korea-related collections)" (<http://lodel.ehess.fr/crc/document.php?id=426>))

However, it had to return to its original plan in 2008 as most of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withdrew from the initiative. EHESS, one of the early members of the initiative, scrapped its original plan to donate books but instead, decided to temporarily deposit part of its collections at BULAC until its relocation plan is confirmed by the government's university reform plan. Although Université Paris 7 Denis Diderot was not a member of the initiative, it has donated about 12,000 books that it could not afford taking care of.

The areas of coverage, operation, and contact details of these libraries are provided on the CRC-EHESS website¹¹⁾.

6.2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As in research activities, mutual cooperation is a critical part of the library community. In general, there are two types of cooperation: intra-organizational and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The libraries that hold Korean collections have strived to build a system that can highlight the uniqueness of each library in terms of areas of coverage and administration while avoiding duplication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The cooperation between research centers at EHESS presents a good example of such cooperation. The methods of cooperation are much more complex; however, it may not be necessary for me to reiterate the details as I have already dealt with them in “Cases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ies”¹²⁾. There is also Réseau DocAsie, an association of Asian libraries. This association holds academic conferences on a regular basis with an aim to promote information exchanges and help the managers of Asian materials keep up with new knowledge emerging in the field.

11) Na Eunjo, “Fonds coréens (Korea-related collections in Paris)”, CRC-EHESS website <http://crc.ehess.fr/document.php?identifiant=documentation>

12) Na Eunjo, “Cases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ies in France” in *Library Culture (KLA Journal)*, July 2009, vol 50 - n.7 (V. 409), Korean Library Association, Seoul, pp. 67-76 <http://www.kla.kr/business/publication/paper/tblPaper/view.asp?pkid=68&page=6&pYear=&pMonth=&searchValue=&BBSCode=P0002>

6.3 Electronic resources and topic monitoring service

Researchers on Korean Studies in France can also tap into key electronic resources of Korea such as RISS International, KISS, and DBpia. Access to such resources is managed by CRC - EHESS and offered to the members of UMR 8173 CNRS-EHESS. CRC-EHESS, as the only institution that has a permanent position for information management, is providing a “Korean Studies monitoring service” on a trial basis in order to offer updates on new publications, current issues in Korea, and news on Korean Studies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consortium, further efforts will be made in order to develop and disseminate more diverse electronic resources on Korean Studies.

References

- Yannick Brunneton et al. 2010. Paris Consortium Business Plan (not for publishing)
- Valérie Gelézeau et al. 2010. “Interfaces et reconfigurations de la question Nord/Sud en Corée”, *EspacesTemps.net* (<http://espacestems.net/document8430.html>)
- Li, Jin-Mieung. 2009. “Vague des apprenants du coréen dans les universités françaises”, *Bulletin AFPEC*, vol 23, pp 22-23.
- Li, Jin-Mieung, “Korean Culture in France (1-12)” (<http://www.euro-coree.net/news/viewbody.php?board=alaune&page=1&number=1697&search=section&genre=alaune161>)
- Li, Jin-Mieung. 2007. “Korean Studies in France from its Birth through 2006” in the *Overseas Korean Studies Whitepaper*, Korea Foundation, Uryu Munhwasa, pp. 366-390
- Daniel Bouchez, 1986, “A Pioneer in Korean Studies, Maurice Courant, (Parts 1 and 2)”, *Journal Asiatique* v. 51-52.
(http://halshs.archives-ouvertes.fr/docs/00/44/35/75/PDF/Courant_TBHC_2.pdf)
- Na, Eunjoo, “Fonds coréens”,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website (<http://crc.ehess.fr/document.php?identifiant=documentation>)
- Na, Eunjoo. 2009. “Cases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ies in France”, *Library Culture (KLA Journal)*, July 2009, vol 50 - n.7 (V. 409). Korean Library Association, pp.67-76.
(<http://www.kla.kr/business/publication/paper/tblPaper/view.asp?pkid=68&page=6&pYear=&pMonth=&searchValue=&BBSCode=P0002>)
- Na, Eunjoo. 2006. “Fonds coréens : histoire et état général”,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website
(<http://lodel.ehess.fr/crc/document.php?id=426>)

1. 서론

이 글은 호주 모나쉬대학교의 한국학장서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본고에서는 한국학에 대한 배경, 모나쉬대학교의 한국학장서, 한국학사서, 한국학 도서관 가이드에 초점을 두었으며, 또한 한국학데이터베이스, 번역, 멜버른 지역 아시아도서관(ALIM)을 위한 한국 건축 자료, 한국학 DVD, 그리고 도서관 내에서의 한국에 관한 전시도 다루었다.

2. 배경

호주 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이 호주에서 한국어장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지만, 호주 (그리고 남반구) 대학교 도서관 중에서 한국학장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은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이다.

모나쉬대학교의 한국학장서가 시작된 것은 1990년 초이다. 이 시기에 호주의 여러 대학들이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하지만 한국학장서는 열악하여 한국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었다.

1992년, 호주 국립한국학센터(the National Korean Studies Centre)는 특히 경제, 정치,

* 호주 모나쉬대학교 매스슨 경 도서관 아시아학연구장서 한국학사서

법학, 그리고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 중점을 둔 한국어 자료를 특별히 강조하였으며, 현대 한국과 한국에 대한 호주 기반 연구 자원에 대한 주요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학연구도서관(the Korean Studies Research Library)을 설립하였다. 이 한국학연구도서관은 모나쉬대학교의 아시아학연구도서관에 위치해 있었다.

아시아 경제 위기가 시작된 1997년 중순 이후, 호주의 많은 대학교들이 재정 문제로 한국학 과목을 줄이거나 폐지하였다. 호주 국립한국학센터도 2001년 초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다. 호주 국립한국학센터가 문을 닫은 후 한국학연구도서관은 클레이튼 캠퍼스에 있는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의 아시아학연구장서 속의 한국학장서로 남게 되었다.

현재 호주국립대학교, 모나쉬대학교,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퀸즐랜드대학교, 그리고 시드니대학교 이렇게 다섯 개의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다. 2011년 1학기 각 대학들의 학생 등록 수¹⁾는 모나쉬대학교 578명, 시드니대학교 472명,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256명, 퀸즈랜드대학교 209명, 그리고 호주 국립대학교 67명(2010년)이다²⁾. 이 외에도 호주에는 호주·뉴질랜드의 한국학협회(KSAA),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의 한국연구기관(이전 명칭은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의 한호연구센터, KAREC), 그리고 호주 국립대학교의 한국학센터 등과 같은 한국 관련 센터나 협회가 있다.

3. 모나쉬대학교

모나쉬대학교는 높은 학문 수준과 연구 중심으로 유명한 8개 호주 대학(Go8) 그룹 중 하나이다³⁾. 1958년에 설립된 모나쉬대학교는 세계1차대전 당시 뛰어난 장군이었으며 1920년대 동부 빅토리아 주의 갈탄 개발로 저명한 엔지니어였던 존 모나쉬 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존 모나쉬 경은 철학자이기도 하였다. 모나쉬대학교는 7,597명의 전임 직원과 59,925명의 학생들이 있다⁴⁾. 호주 빅토리아 주에 있는 6개의 캠퍼스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캠퍼스가 있으며, 이탈리아의 프라토에도 센터가 있다⁵⁾. 45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모나쉬대학교가 시작된 클레이튼 캠퍼스에 등록하고 있으며, 한국학장서 또한 클레이튼 캠퍼스에 위치해 있다.

1) 시드니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대학 한국어 현황 - 2011 호주 대학 한국어 및 한국학 현황 참조 http://www.auskec.org/bbs/board.php?bo_table=prog3&wr_id=2

2) 호주국립대학교는 2011년 학생 등록 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2010년 등록 수를 사용하였다.

3) 사실, 한국학을 가르치는 다섯 대학교 모두 8대(Go8) 대학에 속해 있다.

4) <http://www.opq.monash.edu.au/us/summary/pocketstats-2010.pdf>

5) <http://www.monash.edu.au/campuses/>

4. 모나쉬대학교 도서관

모나쉬대학교 도서관⁶⁾은 호주를 이끄는 대학도서관 중 하나이다.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은 클레이튼 캠퍼스에 있는 세 개의 분관을 포함하여 호주 빅토리아 주에 여덟 개의 분관이 있다.

- 베릭 도서관
- 코필드 도서관
- 김스랜드 도서관
- 하그레이브-앤드류 도서관(클레이튼 캠퍼스)
- 법학 도서관(클레이튼 캠퍼스)
- 루이스 매드슨 경 도서관(클레이튼 캠퍼스)
- 페닌술라 도서관
- CL 부처스 약학 도서관(파크빌)

각 도서관의 전문 분야 장서는 아래와 같다.

베릭 도서관	통신, 관광, 비즈니스 및 멀티미디어
코필드 도서관	미술과 디자인, 비즈니스 및 경제, 정보학, 사회 사업, 심리학, 예술
김스랜드 도서관	인문과학 ⁷⁾ , 비즈니스, 정보학, 간호, 초등 및 중등교육 사회과학
하그레이브-앤드류 도서관	생물학 및 물리학, 공학, 정보학, 의학 및 보건학
법학 도서관	회사법, 범죄법, 인권법 및 국제법
루이스 매드슨 경 도서관	인문, 사회 과학, 비즈니스와 경제, 교육
페닌술라 도서관	간호, 보건학, 유아 및 초등 교육, 사업, 지역 사회 응급 구조학, 물리 치료 및 작업 요법
CL 부처스 약학 도서관	약학, 약제학, 약리학, 의약 화학, 배합학

해외에는 두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하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모나쉬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서관 학습 광장(Library and Learning Commons)이고, 다른 하나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나쉬대학교 쉐웨이 도서관 학습 광장(Library and Learning Commons)이다.

6) <http://www.lib.monash.edu.au/>

7) 호주에서의 “Arts”란 용어는 “교양” 또는 “인문 사회과학”을 뜻한다.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은 21만여 권의 단행본, 10만 점이 넘는 인쇄물과 전자 저널, 341,825점의 전자책, 그리고 네트워크화 된 1,118개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32만 점이 넘는 장서를 구축하고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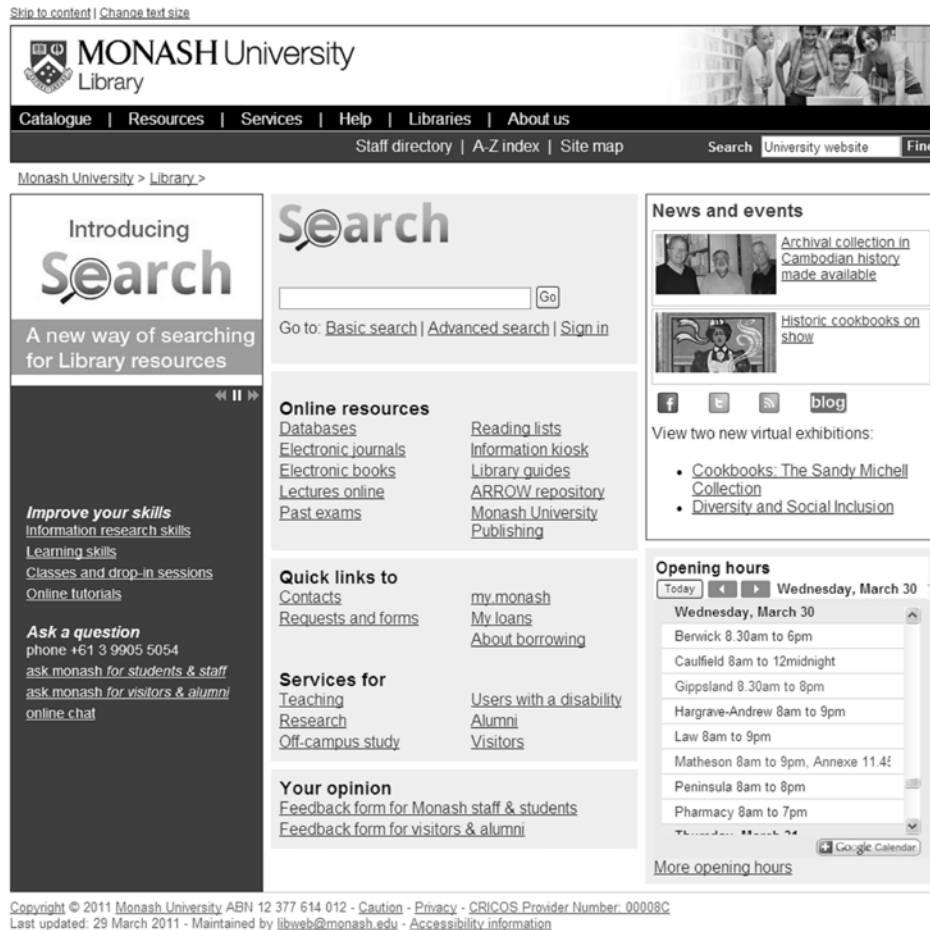


그림 1 모나쉬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그림 1은 모나쉬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이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왼쪽 단에서 이용자들은 정보 조사 능력⁹⁾(이전에는 정보 활용 능력으로 사용)과 학습 능력¹⁰⁾에 관한

8) <http://www.lib.monash.edu.au/about/glance-collection.html>

9) <http://www.lib.monash.edu.au/information-research-skills/>

10) <http://www.lib.monash.edu.au/learning-skills/>

항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운데 단에서는 웹목록, 온라인 자원, 도서관 연락처, 요청 및 양식 등의 링크를 나타내며, 오른쪽 단에서는 모나쉬대학교 도서관 페이스북, 트위터, RSS, 그리고 블로그로 접속을 할 수 있다.

4.1 아시아학연구장서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의 아시아학연구장서(ASRC)는 호주 내의 아시아학을 위한 주요 연구 시설이다. 아시아학연구장서는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중점으로 한 아시아 언어로 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는 10만 권이 넘으며, 데이터베이스와 그 외의 전자자료, 상당한 양의 마이크로형태자료와 시청각 자료, 그리고 중요한 남아시아 자료를 포함하여 아시아와 관련된 광범위한 영어 자료로 구축되어 있다¹¹⁾.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은 멜버른대학교 도서관과의 협력체인 멜버른 지역 아시아도서관(ALIM)에 가입하고 있다.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은 일본어 교육을 위한 멜버른센터(MCJLE) 장서도 소장하고 있다.

4.2 멜버른 지역 아시아도서관(ALIM)

멜버른 지역 아시아도서관(ALIM)¹²⁾은 모나쉬대학교와 멜버른대학교 도서관들 간의 공동 사업이다. 자료와 전문가 그리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장서를 공유하면서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멜버른 지역 아시아도서관이 제공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 중국, 일본,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담당하는 아시아학 전문 사서들
- 두 대학의 이용자들이 장서에 상호 접속
- 다른 도서관으로의 연장 대출을 용이하게 함
- 두 도서관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장서 수집 개발
- 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
- 컨소시엄 회원이 소장한 자료를 강조한 아시아학 자원에 대한 웹 가이드와 멜버른 지역 아시아도서관 웹사이트

11) 아시아학연구장서(ASRC) 안내서 참조

12) <http://alim.monash.org/>

1993년부터 시작된 공동 사업의 참여 일원으로서 멜버른대학교는 매년 모나쉬대학교 한국학장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에서 멜버른대학교 도서관에 한국 법학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였고, 지금은 모나쉬대학교 한국학장서에서 한국 건축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는 멜버른 지역 아시아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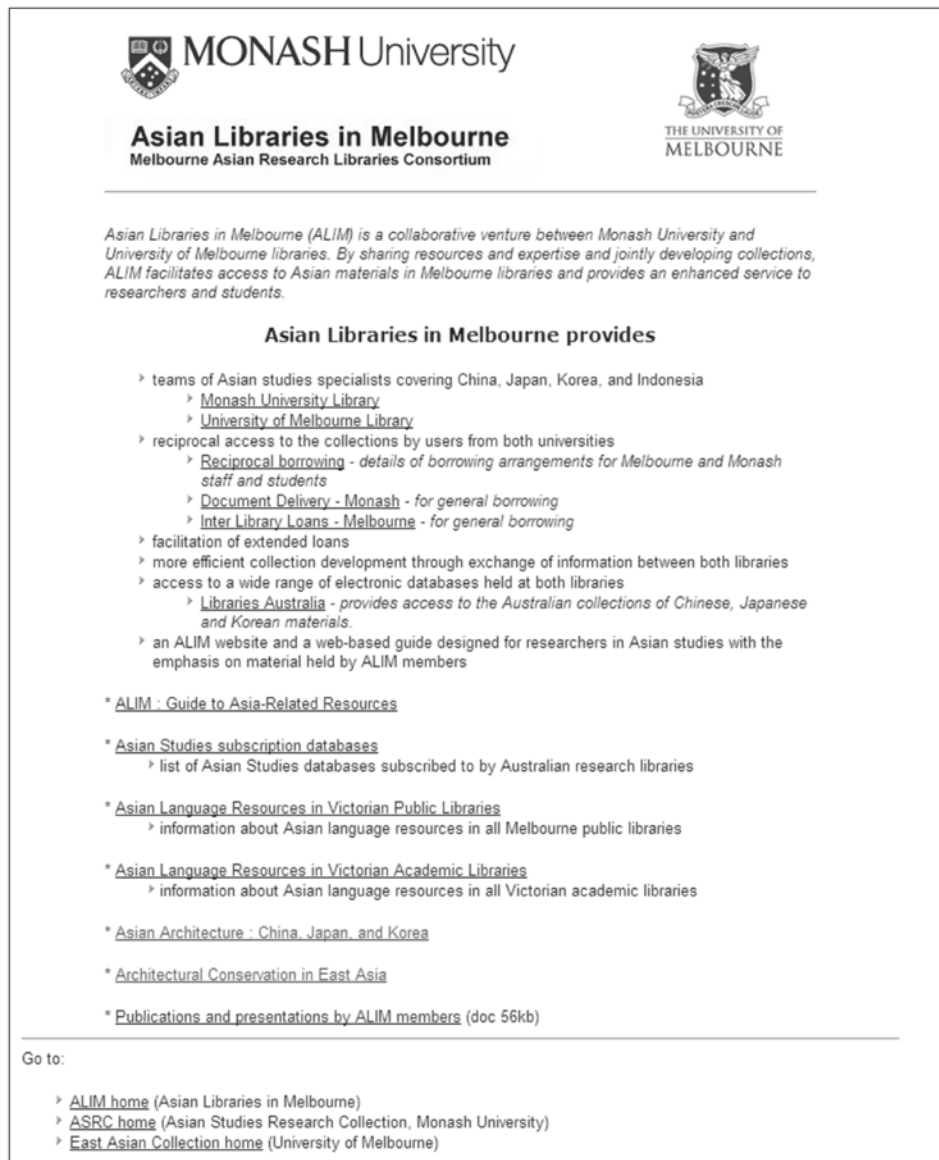


그림 2 ALIM 웹사이트

5. 모나쉬대학교 한국학장서

한국학장서는 모나쉬대학교 클레이튼 캠퍼스에 있는 루이스 매스슨 경 도서관의 아시아 학연구장서에 속해 있다. 한국학장서는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 특히 경제와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언어, 건축과 음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많은 한국 비디오와 DVD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카이브 자료나 오래된 신문류는 마이크로필름과 마이크로 피쉬 형태로 소장하고 있다. 이들 한국에 관한 비도서 자료들은 음악 및 멀티미디어 장서(the Music and Multimedia Collection)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의 영어 자료들은 모나쉬 대학교 도서관 전체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학장서는 구입, 기증 또는 기부를 통해서 입수한다. 한국학장서의 주요 기증처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히 재단의 “한국연구자료지원”을 통해서 매년 한국어나 영어로 된 출판물이나 CD-ROM, DVD 등의 비도서 자료가 포함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¹³⁾.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은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연구전자자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한국학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구입비 일부를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보조 받고 있다.

2010년 9월 30일자로 한국학장서는 총 18,000권이 넘었다. 한국학 자료들은 엑스리 브리스의 프리모를 이용한 모나쉬대학교 도서관 웹목록 “Search”(<http://www.lib.monash.edu/search/>)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학장서에서 한국어로 된 자료는 매쿰-라이샤워 로마자화시스템(the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과 듀이십진분류법(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 system)의 분류 체계에 의거해 보이며 목록에서 목록화 된다. 만약 목록하고자 하는 레코드가 Libraries Australia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때는 미국 의회도서관이나 OCLC 등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목록을 작성한다. 그래도 레코드가 없을 때는 한국학 사서가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의 목록에 자료에 대한 새로운 레코드를 만든다. 한국어 레코드들은 원어(한글과 한자)와 함께 로마자화된 한국어가 같이 나타난다.

13) <http://www.kf.or.kr/>

5.1 한국학사서

현재 호주의 대학도서관에서 고용된 한국학사서는 단 한 명이다¹⁴⁾. 모나쉬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학사서의 기본적인 역할은 모나쉬대학교의 한국학장서를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학사서는 한국학 주제전문 사서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학연구도서관(ASRC), 멜버른 지역 아시아도서관(ALIM), 그리고 인문사회과학(Arts)팀의 일원으로서 일반적인 참고봉사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학사서는 해당 학과의 교직원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아시아학연구도서관의 이용자들에게 포괄적인 참고봉사를 제공한다. 또한 멜버른 지역 아시아도서관 회원들과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멜버른 지역 아시아도서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호주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며, 한국학에 관한 도서관가이드를 작성 및 관리하며, 한국학 이용자들에게 이용자 교육 수업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학사서는 한국학장서가 교육과 연구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료 선택과 제적을 하며, 한국학장서의 이용 확대와 홍보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모든 종류의 한국학 자료를 목록한다. 이것은 모나쉬대학교 검색 시스템 “Search”를 통해서 호주에 있는 연구자들이 자료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게다가 한국학사서는 한국학도서관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나란히 발맞추기 위해서 관련된 학회, 세미나, 그리고 워크숍에 참석한다.

5.2 한국학 도서관가이드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LibGuides 플랫폼을 통한 도서관가이드를 사용한다. 모든 주제전문사서들이 그들의 주제 분야에 대한 도서관가이드를 준비한다.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도서관가이드는 다음 주소를 통하여 볼 수 있다. <http://guides.lib.monash.edu/korean>(아래의 그림 3 참조).

한국학 도서관가이드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공한다.

14) 다른 한국 사서는 호주 국립도서관에 있다.

- 저널 기사 혹은 논문을 찾으려면 “데이터베이스/논문(Databases/Theses)” 탭을 이용,
-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소설과 단편에 대한 원문을 찾으려면 “문학/번역(Literature/Translations)” 탭으로,
- 매클라이사워 로마자 시스템과 한국 정부 로마자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로마자(Romanisation)” 탭을 이용,
- 한국 건축에 대해서는 “보존 건축학(Architecture Conservation)”과 “한국 건축(Korea Architecture)” 탭들을 이용,
- 다양한 미디어 사이트, 검색 엔진, 그리고 기타 유용한 한국 사이트는 “신문, 외부 리소스(Newspapers, external resources)” 탭을 이용,
- 한국 관련 행사들은 “행사(Events)” 탭 이용.

그림 3은 모나쉬대학교 도서관가이드 - 한국학 홈페이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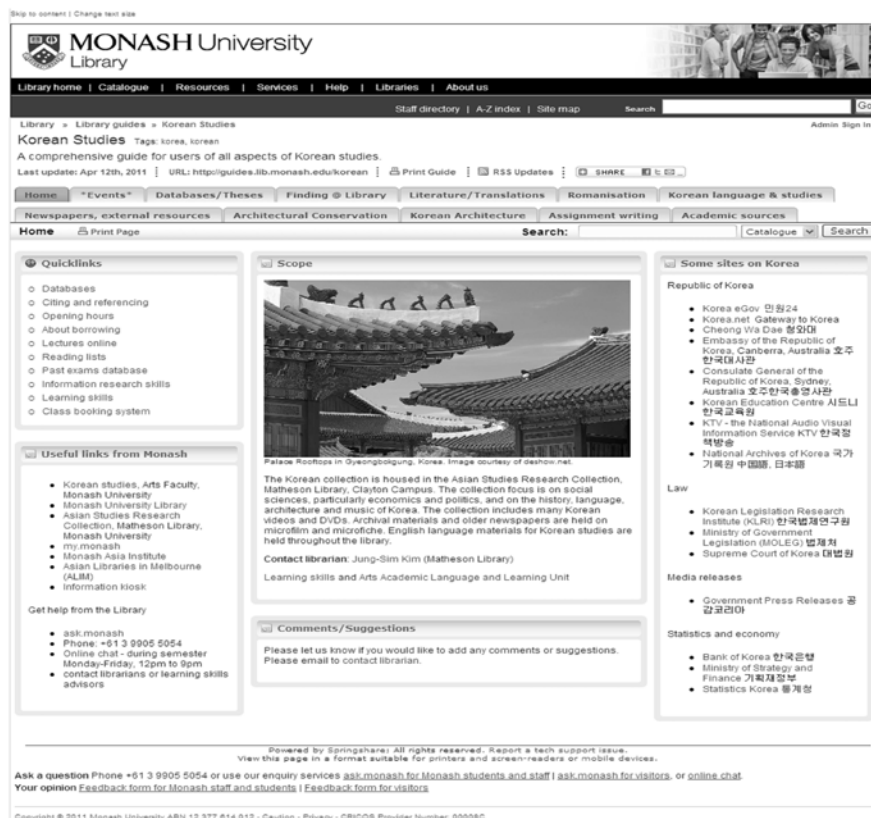


그림 3 모나쉬대학교의 도서관가이드 - 한국학¹⁵⁾

15) <http://guides.lib.monash.edu/korean>

5.2.1 한국학 데이터베이스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에서는 11개의 한국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고 있다. 이들 중 9개의 데이터베이스는 한국학 데이터베이스(the eKorean Studies database) 그룹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 한국학술정보 원문 데이터베이스(KSI KISS)
- 한국학술정보 단행본 및 e-Book(KSI e-Book)
- Korea A2Z 한국학 DB 콘텐츠
- 디지털문화예술강좌
- 한국현대사 통합데이터베이스
- 북한학술지 통합데이터베이스
- 한국 역사 문화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 진인진 역사 문화 시리즈
- 로앤비 법률정보서비스

그리고 다른 두 데이터베이스는 누리미디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 DBpia : 한국 학술논문 전문 데이터베이스
- KRpia : 한국학 지식콘텐츠 통합 서비스(일부 전자책 포함)

이들 구독 데이터베이스는 모나쉬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직접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하는 외부 이용자들에게만 제공되며,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구독료 일부를 보조했다.

모나쉬대학교 이용자들은 아시아학연구도서관의 지정된 PC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나쉬대학교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복사전송권협회¹⁶⁾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사업소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¹⁷⁾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http://www.dlibrary.go.kr/JavaClient/jsp/wonmun/Service/service_05.jsp?menu=2)에

16) <http://www.copyright.or.kr>

17)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3호 (2010년 6월), 114p, 국립중앙도서관 사업소개 참조.

서도 볼 수 있다.

모나쉬대학교 외부 이용자들에게는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학 데이터베이스가 유용할 수 있다. 이 정보 역시 모나쉬대학교 도서관가이드 - 한국학 “데이터베이스/논문” 탭에 링크시켜 놓았다. 외부 이용자들은 상호대차를 통하여 모나쉬대학교에서 소장한 자료들을 구할 수 있다.

5.2.2 번역

최근에 모나쉬대학교는 한국학도 포함된 번역 프로그램들을 개설했다. 한국학사서는 한국학 교수진과 의논한 후 한국 번역 강좌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다. 한국 번역 강좌는 종종 단편문학을 사용했지만 단편문학은 도서관 목록에서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학사서는 단편소설의 한국어 원문과 번역된 자료를 각각 조사해서, 한글 저자명, 로마자 저자명, 한글 도서명, 영문 도서명을 넣은 도표를 만들었다. 이들은 모나쉬대학교 도서관가이드 - 한국학의 “문학/번역”이라는 웹페이지에 나타난다. 리스트가 꽤 길어서, 지금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림 4의 모나쉬대학교 도서관가이드 - 한국학의 “문학/번역” 웹 페이지를 참조.

Translations

Translations table are divided in three parts: Translations (ㄱ - ㅁ), Translations (ㄴ - ㅎ), and Translations (ㅈ - ㅊ). The tables list **Korean fiction and short stories** in Monash University Library.

Use your browser menu bar **Edit > Find...** function to search for specific works in the table. Links in the table open in a new browser window or tab and go to the item record.

Alternatively, English works can also be found via Monash University Library's holdings of Korea journal, v18 (1978) to present. The Korea journal web site contains a searchable index to the archive back to 1961.

Useful "Translation" site from Korea, 한국문학번역원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KLTi)

Translations (ㄱ - ㅁ)

Author	Author - Romanised	Title - Korean	Title - English
강석경	Kang, Sok-kyong	'낮과 꿈', in 숲속의 방	'Days and dreams', in Words of farewell
강석경	Kang, Sok-kyong	'숲속의 방', in 숲속의 방	'A room in the wood', in Words of farewell
강신재	Kang, Sin-jae	임진강의 민들레	The dandelion on the Imjin River
강신재	Kang, Sin-jae	'젊은 느티나무', in 젊은 느티나무 외	- 'The young Zelkova tree', in Modern Korean literature : an anthology 1908-65 - 'The young Zelkova', in Flowers of fire
강신재	Kang, Sin-jae	'파도 (波濤)', in 한국중편 소설문학 전집 5	The waves
강영숙	Kang, Yong-suk	'갈색 눈물방울', in DBpia (databases)	'Brown tears / Kang Youngsook', in New writing from Korea 1
공선옥	Kong, Son-ok	'명랑한 밤길', in DBpia (databases)	'Merrily through the night', in New writing from Korea 2
공지영	Kong, Chi-yong	'인간에 대한 예의', in 인간에 대한 예의	'Human decency', in Wayfarer
김동리	Kim, Tongri	'까치소리', in 무녀도 (巫女圖)	The cry of the magpies', in - Loess Valley, and other Korean short stories - The cry of the magpies

그림 4 모나쉬대학교 도서관가이드 - 한국학의 “문학/번역” 웹 페이지

5.2.3 한국 건축

한국 건축 자료는 특히 멜버른대학교의 아시아 건축 강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되고 있다. 멜버른대학교는 매년 한국 건축 자료 구입을 위해 모나쉬대학교 한국학장서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학사서는 멜버른대학교로 가서 한국 건축과 한국 보존 건축에 대한 이용자 교육 수업을 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선정하여 학기 대출과 같은 특별 대출도 하게 한다.

5.2.4 한국학 DVD

모나쉬대학교는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학 DVD를 구입하였으나 이들 한국학 DVD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 요즘,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음악, 건축 그리고 다른 분야에까지 관련된 한국 DVD를 900종 넘게 소장하고 있다. 이들 DVD는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 DVD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겨울연가(Winter sonata)”이다. 그 다음으로 모나쉬대학교에서 인기가 있었던 DVD에는 “엽기적인 그녀(My sassy girl)”, “내 사랑 싸가지(My love ssagaji 또는 100 days with Mr. Arrogant)”, “그녀를 믿지마세요(Too beautiful to lie)”, “영어완전정복(Please teach me English),” “내 남자의 로맨스(How to keep my love)”, “내 이름은 김삼순(My lovely Sam-Soon)” 그리고 “마이걸(My girl)”이 있다. 이들 DVD의 이용 횟수는 모두 100회 이상이다¹⁸⁾.

5.2.5 전시

지난 10년간 한국학장서는 한국에 대한 전시 관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진열대에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의 아시아학연구장서, 음악 및 멀티미디어 장서, 그리고 고서를 전시했었다. 그림 5는 모나쉬대학교 한국학 전시 사진들이다.

18) 모나쉬대학교 도서관 동료이자 정보자원과(Information Resources Division)에 근무하는 칼 하통이 친절하게도 모든 한국 DVD 현황과 이용 통계를 조사하여 제공하였다.



그림 5 모나쉬대학교 한국학 전시 사진들

6. 결론

이 글에서 모나쉬대학교 한국학장서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한국학장서가 모나쉬 대학교의 한국학과 외부 이용자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필자는 모나쉬대학교 한국학장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특히 매년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은행,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포함한 많은 기증처에 특별히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Korean Collection at Monash University in Australia

Jung-Sim Kim *

1. Introduction

This paper outlines information about the Korean collection and library services at Monash University in Australia. It focuses on the background of Korean studies and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Monash University,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and the Library guide for Korean studies. It also covers Korean databases, Translations, Korean architecture for the Asian Libraries in Melbourne (ALIM) partnership, Korean DVDs and Korean displays within the Library.

2. Background

Although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LA) has the largest Korean language collection in Australia,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is the largest academic Korean collection in Australia (and the southern hemisphere).

A Korean collection began to be developed at Monash University in the early 1990s. Several Australian universities established Korean programs around this time. However, their library holdings were poor and could not meet the needs of researchers or students working on Korea.

* Korean Studies Librarian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 Matheson Library, Monash University

In 1992, the National Korean Studies Centre (NKSC) established its research library, the Korean Studies Research Library (KSRL), to support a major program of research on contemporary Korea and Australian-based research resources on Korea, with a special emphasis on Korean language material focusing on Economics, Politics, Law and the other social sciences. This Korean Studies Research Library was located at the Asian Studies Research Library of Monash University.

After the Asian economic crisis began in mid-1997, many Australian universities eliminated or reduced the number of subjects on Korean studies due to financial problems. The NKSC name disappeared in early 2001. Since the closure of the NKSC, the Korean Studies Research Library became known as the Korean Collection under the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 of Monash University Library at the Clayton campus.

At present, five Australian universities teach Korean-language and related studies program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 Monash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nd the University of Sydney. The student enrolments at each university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2011 are¹⁾: 578 at Monash University, 472 at the University of Sydney, 256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9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nd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67 (in 2010)²⁾. There are also Korean related centers and associations in Australia such as the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KSAA),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formerly UNSW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KAREC), and ANU Centre for Korean Studies.

3. Monash University

Monash University is part of the Group of Eight (Go8) Australian universities, renowned for their focus on research and their high standard of education³⁾. Founded in 1958, Monash University was named after a prominent Australian, Sir John Monash, an eminent general in World War I who became a prominent engineer in the development of brown coal in eastern

1) From website "Korean Language Program" by Korean Education Centre in Sydney, http://www.auskec.org/bbs/board.php?bo_table=prog3&wr_id=2

2) The ANU has not provided information for 2011, hence the use of 2010 data.

3) In fact, each of the five universities offering Korean belongs to the Group of 8.

Victoria during the 1920s. Sir John Monash was also a philosopher. Monash University has 7,597 full-time equivalent staff and 59,925 students⁴). It has six campuses in the state of Victoria in Australia as well as campuses in Malaysia and South Africa. It also has a centre in Prato, Italy⁵). About 45 percent of the students are enrolled on Clayton Campus, the initial Monash University campus. The Korean Collection is located on the Clayton Campus as well.

4. Monash University Library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⁶) is one of Australia's leading academic libraries. It has eight branch libraries in Victoria, Australia, including three on the Clayton Campus.

- Berwick Library
- Caulfield Library
- Gippsland Library
- Hargrave-Andrew Library (Clayton Campus)
- Law Library (Clayton Campus)
- Sir Louis Matheson Library (Clayton Campus)
- Peninsula Library
- CL Butchers Pharmacy Library (Parkville)

Collection strengths in each branch are:

Berwick Library	Communication, tourism, business, and multimedia
Caulfield Library	Art and design, business and economics, information technology, social work, psychology, and arts
Gippsland Library	Arts ⁷),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nursing,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social sciences
Hargrave-Andrew Library	Biological and physical sciences,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cine and health sciences
Law Library	Corporations, criminal,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Sir Louis Matheson Library	Arts, social sciences, business and economics, and education

4) <http://www.opq.monash.edu.au/us/summary/pocketstats-2010.pdf>

5) <http://www.monash.edu.au/campuses/>

6) <http://www.lib.monash.edu.au/>

Peninsula Library	Nursing, health sciences, early childhood and primary education, business, community emergency health and paramedic practice, physio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CL Butchers Pharmacy Library	Pharmacy, pharmaceutical sciences, pharmacology, medicinal chemistry, and formulation science

Overseas, there are two libraries, the Monash South Africa Library and Learning Commons, South Africa, and Monash University Sunway Library and Learning Commons, Malaysia.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has over 3.2 million items, including 2.1 million books, over 100,000 print and electronic journals, 341,825 electronic books, and 1,118 networked electronic databases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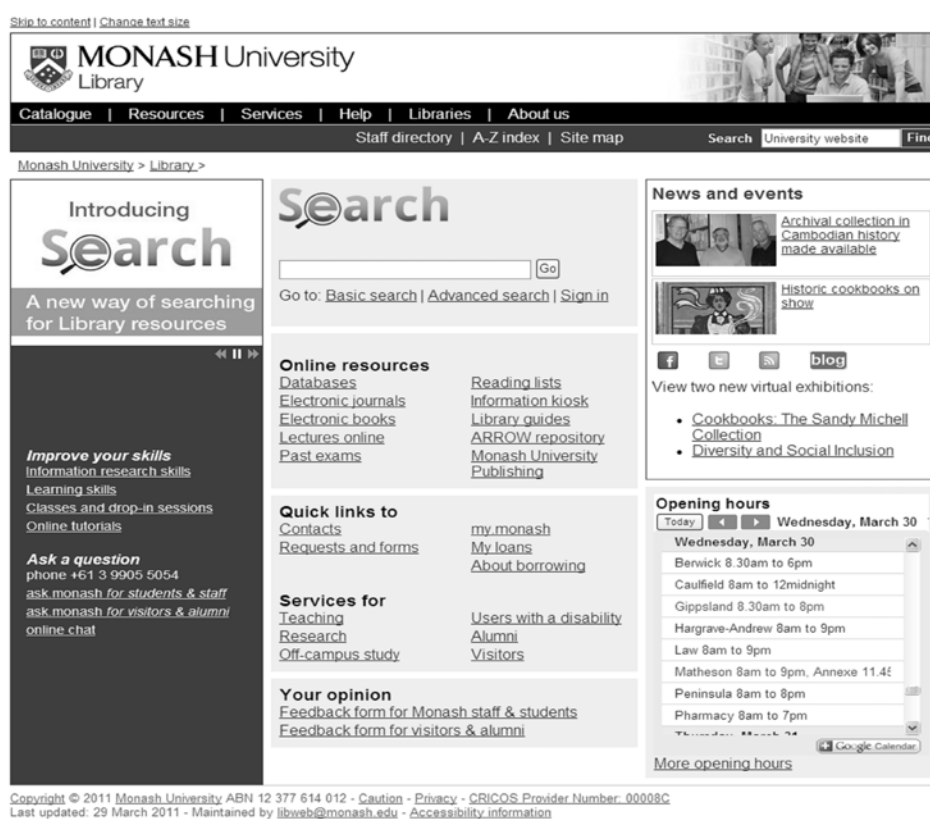


Fig. 1 Monash University Library Homepage

7) The term “Arts” in Australia refers to what is sometimes called the “liberal arts” 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8) <http://www.lib.monash.edu.au/about/glance-collection.html>

Figure 1 shows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s Homepage. From the left column of the Library homepage, the user can easily access the subject of information research skills⁹⁾ (formerly known as information literacy) and learning skills¹⁰⁾ information. The middle column shows links to Search, online resources, quick links to library contacts, requests and forms, etc. The right column allows access to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facebook, twitter, rss, and the blog.

4.1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

The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 (ASRC) of Monash University Library is a leading research facility for Asian studies in Australia. The collection consists of Asian language materials with a focus on Southeast Asia and East Asia. It contains over 100,000 volumes, supplemented by databases and other electronic resources, large microform and audio-visual holdings and an extensive range of English language resources relating to Asia, including substantial resources on South Asia¹¹⁾.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has joined with the University of Melbourne Library to form a collaboration called Asian Libraries in Melbourne (ALIM).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is also home to the Melbourne Centre for Japanese Language Education (MCJLE) collection.

4.2 Asian Libraries in Melbourne (ALIM)

Asian Libraries in Melbourne (ALIM)¹²⁾ is a collaborative venture between the libraries of Monash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Melbourne. By sharing resources and expertise and jointly developing collections, ALIM facilitates access to Asian materials in Melbourne libraries and provides an enhanced service to researchers and students.

9) <http://www.lib.monash.edu.au/information-research-skills/>

10) <http://www.lib.monash.edu.au/learning-skills/>

11) From the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 (ASRC) brochure

12) <http://alim.monash.org/>

ALIM provides:

- Teams of Asian studies specialists covering China, Japan, Korea and Indonesia
- Reciprocal access to the collections by users from both universities
- Facilitation of extended loans to the other Library
- More efficient collection development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both libraries
- Access to a wide range of electronic databases held at both libraries
- An ALIM website and web-guide to Asian studies resources with the emphasis on material held by consortium members.

As part of this collaborative venture, starting in 199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has contributed financially each year to support the Korean Collection at Monash University Library. Before 2000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provided materials on Korean law to the University of Melbourne Library. Now the Monash University Korean Studies Collection provides materials on Korean architecture. Figure 2 shows the homepage for the ALIM website.



MONASH University

Asian Libraries in Melbourne
Melbourne Asian Research Libraries Consortium



Asian Libraries in Melbourne (ALIM) is a collaborative venture between Monash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Melbourne libraries. By sharing resources and expertise and jointly developing collections, ALIM facilitates access to Asian materials in Melbourne libraries and provides an enhanced service to researchers and students.

Asian Libraries in Melbourne provides

- teams of Asian studies specialists covering China, Japan, Korea, and Indonesia
 - [Monash University Library](#)
 - [University of Melbourne Library](#)
 - reciprocal access to the collections by users from both universities
 - [Reciprocal borrowing](#) - details of borrowing arrangements for Melbourne and Monash staff and students
 - [Document Delivery - Monash](#) - for general borrowing
 - [Inter Library Loans - Melbourne](#) - for general borrowing
 - facilitation of extended loans
 - more efficient collection development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both libraries
 - access to a wide range of electronic databases held at both libraries
 - [Libraries Australia](#) - provides access to the Australian collections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aterials.
 - an ALIM website and a web-based guide designed for researchers in Asian studies with the emphasis on material held by ALIM members
- * [ALIM : Guide to Asia-Related Resources](#)
- * [Asian Studies subscription databases](#)
- list of Asian Studies databases subscribed to by Australian research libraries
- * [Asian Language Resources in Victorian Public Libraries](#)
- information about Asian language resources in all Melbourne public libraries
- * [Asian Language Resources in Victorian Academic Libraries](#)
- information about Asian language resources in all Victorian academic libraries
- * [Asian Architecture : China, Japan, and Korea](#)
- * [Architectural Conservation in East Asia](#)
- *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by ALIM members](#) (doc 56kb)

Go to:

- [ALIM home](#) (Asian Libraries in Melbourne)
- [ASRC home](#)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 Monash University)
- [East Asian Collection home](#) (University of Melbourne)

Fig. 2 ALIM Website

5. Korean Collection at Monash University

The Korean Collection is housed in the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 Sir Louis Matheson Library, Clayton Campus, Monash University. The collection emphasizes social science studies of Korea, particularly economics and politics, as well as the history, language,

architecture and music of Korea. The collection also includes many Korean videos and DVDs. Archival materials and older newspapers are held on microfilm and microfiche. These non-book materials on Korea are held in the Music and Multimedia Collection. English language materials for Korean studies can be found throughout the library.

The Korean Collection acquires materials through purchasing, gifts and donations. The major gifts to the Korean Collection come from the Korea Foundati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Korea Foundation provides an especially large amount of materials each year in Korean and in English including both books and non-book formats such as CD-ROMs and DVDs through its "Reference Materials Distribution Program"¹³⁾.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also receives grants from the Korea Foundation to subsidize the subscription fee for obtaining full-text databases through its "Supporting for Korean Studies e-Resources" program.

Korean studies resources total over 18,000 items as at 30 September 2010. They can be found through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Web OPAC "Search" (<http://www.lib.monash.edu/search/>), a discovery tool powered by Primo from Ex Libris.

Korean language materials in the collection are catalogued using the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 and classified by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 system on the Voyager Cataloguing Client. If a desired item record is not in the Libraries Australia database, then it is necessary to search other databases such as LC or OCLC for copy cataloging. If a record is not found in those databases,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creates a new record in the local system. The Korean language records are displayed in Romanized Korean as well as Korean script (Hangul and Hancha).

13) <http://www.kf.or.kr/>

5.1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At this stage, there is only one Korean Studies Librarian employed by an academic library in Australia¹⁴). Located at Monash University, the primary role of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is to look after Korean Collection at Monash University.

The Librarian performs subject specialist duties for Korean as well as general reference duties as a member of the ASRC, ALIM and Arts teams.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liaises regularly with relevant faculty staff, provides a comprehensive reference service to ASRC users, liaises with ALIM members and participates in ALIM projects, publicizes and promotes the Korean Collection to enhance the Australian community'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creates and maintains Library guides for Korean studies, and provides user education classes for Korean studies users.

The Librarian also selects and weeds the Korean Collection to meet teaching and research needs, develops strategies for promoting and increasing use of the Korean Collection and catalogs all types of Korean materials. This ensures that items are readily available to researchers in Australia through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Search system.

The Librarian also attends relevant conferences, seminars, and workshops in order to keep abreast of developments in Korean libraries as well as various areas of Korean studies.

5.2 Library Guide for Korean Studies

Monash University Library develops Library Guides on the LibGuides platform to help users find resources easily. All subject librarians prepare library guides for their subject area. The Library Guide for Korean Studies at Monash University Library is available at <http://guides.lib.monash.edu/korean> (see Figure 3 below).

The Library guide for Korean Studies provides assistance to library users on the following areas:

- To find journal articles or thesis, use the “Databases/Theses” tab,
- To find full-text works on Korean fiction and short stories from Monash University Library holdings, go to the “Literature/Translations” tab,

14) The other Korean Librarian is at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To compare the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of Korean with the Korean Government Romanization system, use the “Romanisation” tab,
- For architecture on Korea, use the “Architecture Conservation” and “Korean Architecture” tabs,
- For various media sites, search engines, and other useful Korean sites, use the “Newspapers, external resources” tab,
- For Korea related events, see the “Events” tab.

See Figure 3 for the homepage of the Korean Studies Library Guide at Monash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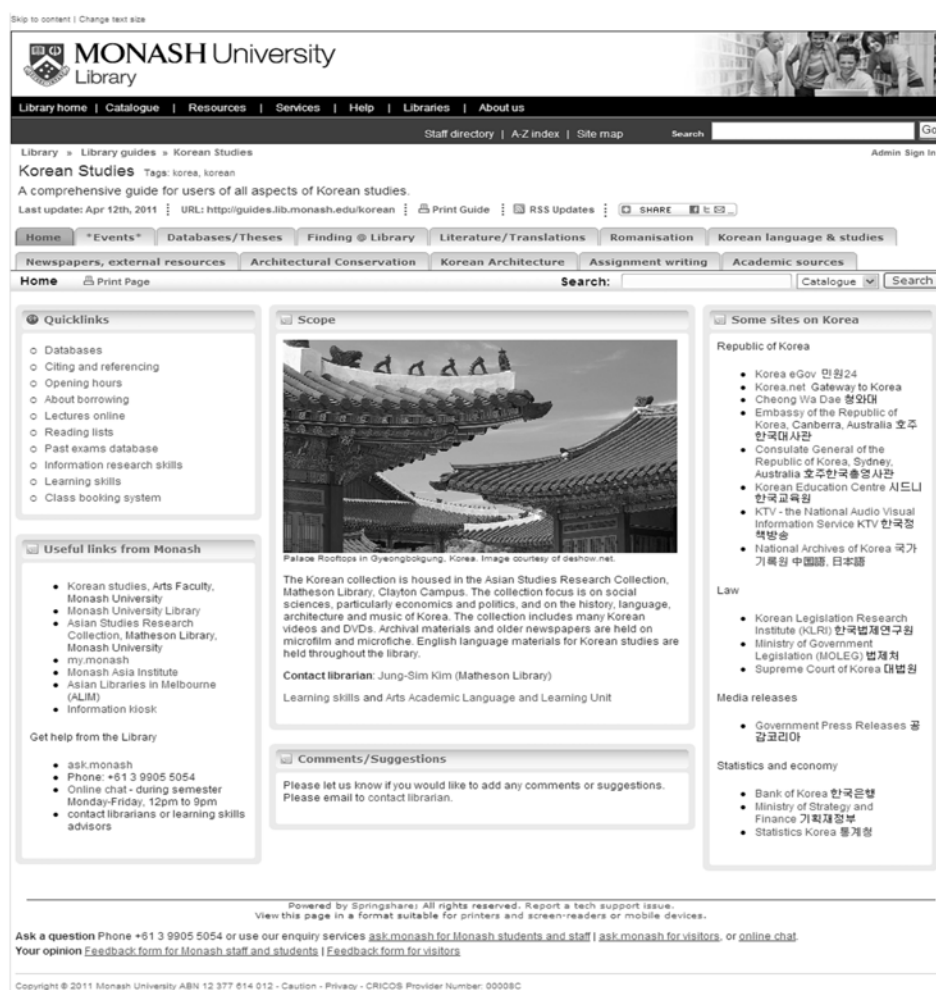


Fig. 3 Korean Studies–Library Guide at Monash University¹⁵⁾

15) <http://guides.lib.monash.edu/korean>

5.2.1 Korean databases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subscribes to eleven Korean databases. Nine of these databases are from the eKorean Studies database group.

- KISS: Korean full text database
- KSI eBook: Korean eBook database
- Korea A2Z Korean Studies DB Contents
- The Digital Culture Art Course
- Kdatabase: Unified Database of Korean Modern History
- KPjournal: The unified database of North Korean scientific journals
- Korean History & Culture Research Database
- History Culture Series
- LawnB's Legal Information Service

The other two databases are from Nurimedia

- DBpia : Korean full text database
- KRpia : Korean eBook database

These subscription databases are available only for Monash University staff and students or other users who visit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Grants from the Korea Foundation subsidize the subscription fees.

Monash University users can also access the full-text databas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rom designated PCs in the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 (ASRC). The University has license agreement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¹⁶⁾ to use copyrighted work. Details of the full-text databas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can be found at the "Introduction of NLK's Projects" at the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¹⁷⁾. Or users can go to the NLK's Website (http://www.dlibrary.go.kr/JavaClient/jsp/wonmun/Service/service_05.jsp?menu=2).

16) <http://www.copyright.or.kr/>

17) Introduction of NLK's Projects.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 no. 3 (June 2010) p. 114.

For users from outside Monash University, Korean databases on the Internet will be useful. This information is also linked to “Databases/Thesis” tab in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Guide for Korean Studies. Outside users can obtain Korean materials held by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through document delivery.

5.2.2 Translations

In recent years, Monash University has developed some important translation studies programs, in which Korean studies has participated.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approached Korean studies academics and then prepared information for the Korean translation subject. The Korean translation classes often use short stories, but short stories in literature are not easily found from the library catalog. To solve this problem, the librarian checked each translated work and each original work of fiction and put the translations and original texts together in tables. These appear as a webpage entitled “Literature/Translations” as part of the Korean Studies–Library Guide at Monash University. As the list has become quite long, it is now divided into three sections. See Figure 4 for the homepage of this “Literature/Translations” webpage.

Translations

Translations table are divided in three parts: Translations (ㄱ - ㅁ), Translations (ㄴ - ㄷ), and Translations (ㄹ - ㅎ). The tables list **Korean fiction and short stories** in Monash University Library. Use your browser menu bar **Edit > Find...** function to search for specific works in the table. Links in the table open in a new browser window or tab and go to the item record. Alternatively, English works can also be found via Monash University Library's holdings of Korea journal, v18 (1978) to present. The Korea journal web site contains a searchable index to the archive back to 1961. Useful "Translation" site from Korea, 한국문학번역원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KLTi)

Translations (ㄱ - ㅁ)

Author	Author - Romanised	Title - Korean	Title - English
강석경	Kang, Sok-kyong	'날과 꿈', in 숲속의 방	'Days and dreams', in Words of farewell
강석경	Kang, Sok-kyong	'숲속의 방', in 숲속의 방	'A room in the wood', in Words of farewell
강신재	Kang, Sin-jae	임진강의 민들레	The dandelion on the Imjin River
강신재	Kang, Sin-jae	'젊은 느티나무', in 젊은 느티나무 외	'The young Zelkova tree', in Modern Korean literature : an anthology 1908-65 'The young Zelkova', in Flowers of fire
강신재	Kang, Sin-jae	파도 (波濤), in 한국중편 소설문학 간집 5	The waves
강영숙	Kang, Yong-suk	갈색 눈물방울, in DBpia (databases)	Brown tears / Kang Youngsook, in New writing from Korea 1
공견옥	Kong, Son-ok	'명랑한 밤길', in DBpia (databases)	'Merrily through the night', in New writing from Korea 2
공지영	Kong, Chi-yong	'인간에 대한 회의', in 인간에 대한 회의	'Human decency', in Wayfarer
김동리	Kim, Tongri	'까치소리', in 무녀도 (巫女圖)	'The cry of the magpies', in - Loess Valley, and other Korean short stories - The cry of the magpies

Fig. 4 Literature/Translations webpage Korean Studies–Library Guide at Monash University.

5.2.3 Korean Architecture

Korean architecture materials have been acquired especially to support Asian Architecture subjects a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The University of Melbourne contributes financially each year to Monash to support Korean architecture purchasing.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visits the University of Melbourne to provide information literacy classes for Korean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Conservation in Korea as well as to select and organize special borrowing arrangements such as semester-long loans.

5.2.4 Korean DVDs

Monash University started to collect Korean DVDs to support Korean language classes, but Korean DVDs are very popular amongst many library users. Nowadays,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has more than 900 titles of Korea-related DVDs concerning Korean language as well as history, culture, music, architecture, and other areas. The DVD collection also has many feature films as well as documentary and animated films and television drama serials. The most popular title among the Korean DVDs is “Kyoul yonga (Winter sonata)”. Other popular titles at Monash University are: “Yopkijogin kunyo (My sassy girl)”, “Nae sarang ssagaji (My love ssagaji or 100 days with Mr. Arrogant)”, “Kunyo rul mitchi maseyo (Too beautiful to lie)”, “Yongo wanjon chongbok (Please teach me English)”, “Nae namja ui romaensu (How to keep my love)”, “Nae irum un Kim Sam-sun (My lovely Sam-Soon)” and “Mai gol (My girl)”. Each of these titles has been borrowed more than one hundred times¹⁸⁾.

5.2.5 Displays

Over the past decade the Korean Collection has also prepared many presentations in the display cases of the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 the Music and Multimedia Collection, and the Rare Books Collection of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to help viewers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Korea. Figure 5 shows images from some of these displays.

18) My colleague Carl Hartung, from the Information Resources Division at Monash University Library, kindly collected and provided the circulation statistics of all Korean DV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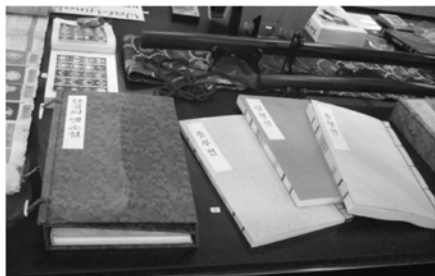


Fig. 5 Images of Korean Displays at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6. Conclusion

This brief information on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Monash University Library provides background on how the Korean Collection supports Korean studies at Monash University and among outside users.

I especially wish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various organizations which support the Korean Collection at Monash University Library, including the Korea Foundati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Bank of Korea, and the KIEP, all of which provide numerous Korean materials every year.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정치, 경제적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는 사회 문화 분야에도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그 관심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 7.7 선언¹⁾부터 6.15 남북 공동성명에 이르는 동안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 간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남북한 교류도 지속되었다. 학술교류 또한 제한적이지만 독도문제나 동북공정 같은 역사적 현안과 그들의 핵심 관심사인 IT분야를 중심으로 그 폭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양자 간의 출판물 교류도 제한적이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북한의 관심분야에 대한 지원도 물심양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진정한 의미의 학술교류 또는 상호협력이라기 보다는 북한을 개방체제로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지책의 지원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이제 7.7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출판물 분야의 속 시원한 개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북한의 출판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출판물은 그 발행 목적과 사명에서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센터장

1)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1988.7.7. 발표했다. 이 7.7 선언에서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1. 남북 동포 상호 간의 상호 교류 및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 2.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상호 방문 3. 남북한 교역문화개방 4.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방의 대북교역 용인 5. 남북 간 대결 외교 종결 6. 북한의 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의 6개 항을 밝혔다.

다른 생산 방식과 통제 체계를 갖고 있다. 북한의 출판물은 기본적으로 노동당의 강력한 선전선동의 수단이 된다. 김일성은 출판물의 성격에 대해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 건설의 과업 실천으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²⁾. 북한은 김일성의 이러한 ‘교시’에 따라 출판활동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주체의 원칙을 근본 초석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당의 지도 밑에 출판보도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셋째,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 있게 벌이는 것이다. 종자라는 용어는 작품의 핵으로서 ‘사상적 알맹이’를 말한다. 북한은 이상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출판물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양할 수 있고 보도성과 정론성, 과학성과 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³⁾.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의 출판물이 출판물로서의 본질적인 의미나 일반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북한의 출판물 현황과 그 특징을 알아보고, 둘째, 이러한 북한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셋째, 궁극적으로 이들 북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구하고자 하였다.

2) 김일성. 1980. 『김일성저작집』 제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296.

3) 북한에서의 출판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벽찬 투쟁으로 전체 인민들을 고무 추동하는 힘 있는 교양 선전자, 사람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교류를 발전시키는 위력한 정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월간 『조국』, 2005년 11월호. p.5.)

2. 북한의 출판물 현황과 특징

북한의 출판물을 크게 신문, 학술잡지 등 각종 정기간행물,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의 저작, 기타 북한의 주요 자료들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2.1 북한발행 신문 현황 및 특징

2.1.1 해방 전 시기

표 1 해방 전 북한의 주요 신문 현황

간행물명	창간일	성 격	주 요 내 용
새날	1928.1.	새날소년동맹 기관지	새날소년동맹, 반제청년동맹, 공청, 부녀회 조직들에서 학습교재로, 대중 선전선동 수단으로 이용 * '71.4. 복간 이후 '73.6.부터 중학교 4학년-6학년 대상으로 발간
서광	1937.5.	인민군 대내 기관지	주간정치신문으로 인민군과 공산주의자들의 정치교양으로 이용
종소리	1937.12.	인민군 대내 주간지	정치군사 학습자료와 일제만행 폭로기사를 통해 반일 수단으로 이용
철혈	1939.	인민군 대내의 반일청년동맹기관지	속보형식의 주간신문으로 반일 사상교양 수단으로 이용

북한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새날』은 청소년들과 광범위한 군중들을 대상으로 일제에 대한 반대와 계급사회의 모순 등의 강조를 통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다. 그 내용의 예로 “지주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등이 있다. 또한 『서광』, 『종소리』, 『철혈』 등은 항일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인민군의 역할과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학습 자료와 교양 자료를 통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서광), “나는 왜 유격대에 입대하였는가”(종소리), “나는 앞으로 학습을 더 잘 하겠다”(철혈) 등의 제목과 내용들이 들어 있다. 1930년대 후반에 발간된 인민군을 주요 대상으로 한 신문들은 주간지로 발간되면서 보다 계획적인 편집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1.2 해방 후 시기

표 2 해방 후 북한의 주요 신문 현황

간행물명	창간일	성 격	주 요 내 용
로동신문	1945.11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 노선과 정책 해설,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 건설, 교육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의 성과 선전 등 * 매일 6면 150만부씩 발간
민주조선	1946.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및 내각 기관지	법령, 규정 등 정부정책의 해설 및 대외 선전 등 * 주 6회(4면 4회, 6면 2회) 발간
청년전위	1946.4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기관지	주체사상 해설선전, 청년동맹조직들의 사업소개 선전 등 * 주 6회(4면) 발간
평양신문	1957.6	수도 신문	당의 입장 대변, 계급교양과 집단주의 교양자료, 생활편의 자료게재 등 * 주 6회(4면, 월요일 제외)
교원신문	1948.4	교육부문 신문	당의 교육방침 해설, 교원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한 모범사례 소개 선전 등 * 주 1회(4면) 발간
문학신문	1956.12	조선작가동맹 중앙위 기관지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문예이론 해설, 문학예술부문의 작품 편집소개 등 * 주 1회(4면) 발간
통일신보	1972.8	무소속대변지	국내외 동포 대상으로 통일과 남한문제 취급, 소개 선전 등 * 주 1회(6면) 발간

<표 2>의 주요 신문 중에 북한의 3대 신문으로 알려져 있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그리고 청년전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로동신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노동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노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 『정로』라는 제호로 창간되었으며, 동년 9월 1일 현재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북한 언론의 『총참모부』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 신문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김정일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며 당 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⁴⁾.

4) 백과사전출판사 편. 1998. 『조선대백과사전』 제7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p.489.

또한 노동신문은 대내외 주요 현안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정론이나 사설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간지 2면 포함 총 6면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다. 노동신문사의 기구와 편제는 조선기자동맹 위원장직을 자동으로 겸직하는 책임주필이 최고책임자로 있고, 책임주필 밑에 고문 부주필과 3~7명의 부주필이 있으며, 그 아래 편집국, 당 역사 교양부, 당 생활부, 혁명교양부, 남조선부, 국제부 등의 부서가 있다.

노동신문사는 신문 발행뿐만 아니라 계기 때마다 기념행사를 개최하는가 하면 주요 사설논집, 대내·대외일지, 노동통신원 등의 출판물을 발간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2005년 11월 1일 노동신문 창간 60돌을 맞이하여 창간 60돌 기념보고회를 개최하고 ‘선군혁명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적 기수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것임’ 등을 천명한 바 있다.

② 민주조선

민주조선은 1945년 10월 15일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직속기관지인 『평양일보』로 출발하여 1946년 6월 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그 후 1948년 9월부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기관지로 발행되고 있다.

민주조선은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 당정책 관철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⁵⁾.

조직은 책임주필·부주필 4명과 편집국, 인민행정부, 공업부, 사회문화부, 지방서한부, 사진부, 경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조선에 실리는 기사들은 행정부 기관지의 특징상 당 관계 기사보다는 행정관련 기사가 비교적 많이 실리고 있다. 민주조선은 조선중앙통신사와 노동신문 보도부, 국제부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 4면으로 제작되고 화요일 및 금요일과 특별한 날에는 6면으로 증면하여 발행된다.

5) 백과사전출판사 편. 1999. 『조선대백과사전』 제10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p.97.

③ 청년전위

청년전위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1946년 1월 17일 『민주청년』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 1964년 5월 12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 대회에서 동 연맹의 명칭이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바뀌자, 기관지명도 『노동청년』으로 개칭되었으며, 1996년 1월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뀔에 따라 1월 19일 『청년전위』로 명칭이 바뀌었다. “청년들 속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해설 선전하며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며 청년 대중을 당의 노선과 정책관철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하는 것”에 그 임무를 두고 있다⁶⁾. 『청년전위』는 청소년들이 당의 방침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선전·선동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당의 선전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1945년 10월 노동당 창건 이후 당 기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각 기관지, 근로단체 기관지 등이 다양하게 발간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당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일차적인 사명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부분적으로 각 신문의 특성에 맞게 편집되지만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의 원칙을 지키고 철저히 당의 지도를 받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각 신문 내용의 본질 면에서는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북한발행 잡지 현황 및 특징

북한은 앞서 살펴 본 주요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술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잡지류를 비롯하여 출판되는 모든 자료가 당의 철저한 통제 하에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검열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체사상에 반하는 사상적 내용이나 당의 방침에 맞지 않는 출판물들은 원천적으로 발간할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사실상 자유롭고 독창적인 학술활동은 제한되며, 학술정보라고 할지라도 과학기술과 경제의 병진정책에 따라 사회주의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학술유통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은 이른바 과학기술 통보사업으로 불리어지며, 주 정보원은 국내외의 과학기술 도서, 잡지들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발명창의고안자료, 학위논문자료, 공업카탈로그, 규격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유통하는 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통보기관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과학기술

6) 백과사전출판사 편. 1999. 『조선대백과사전』 제21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p.31.

통보사와 내각의 위원회, 부 및 기타 중앙기관들에 조직된 부문별 과학기술통보기관, 각 도 행정경제위원회에 조직된 지역별 통보단위, 공장, 기업소 및 과학연구기관들에 조직된 말단통보단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문별 계층별로 이루어 졌으며, 상하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과학기술통보잡지는 북한에서 생산된 과학기술 발전 추세(동향 연구) 및 과학기술 성과를 담은 자료들을 추려내어서 편찬한 잡지를 말한다. 이 또한 국내외의 과학기술 정보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연구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다. 북한의 과학기술통보잡지도 수록되는 과학기술 자료의 내용에 따라 번역 및 추세(trend) 잡지, 색인잡지, 초록잡지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과학기술 자료의 생산지에 따라 국내 과학기술통보잡지와 외국 과학기술통보잡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발간하는 국내 과학기술통보잡지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발명, 기술혁신 자료 등을 주로 싣게 되며, 외국 과학기술통보잡지는 물리, 수학, 생물학, 자동차 등 과학부문별로 나누어져 발간된다. 외국 과학기술통보잡지는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과학기술 성과자료들을 번역하여 편작자료, 초록자료, 색인자료 등으로 편집된다고 한다. 실제로 과학기술통보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과학기술 분야의 잡지가 주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과학기술 문헌 전체가 대상이 된다. 북한에서 말하는 과학기술 문헌의 종류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북한의 과학기술문헌의 종류

형 태	1차문헌	2차문헌
출판된 문헌	도서 및 소책자	
	교재, 공식출판물, 학술논문집	참고도서(백과사전, 편람)
	연속출판물	
	정기간행물, 축차간행물, 신문	서지 및 초록출판물, 개관출판물
	특수기술문헌	
	특허문헌, 규격문헌, 공업까달로그	발명색인(초록), 규격색인(초록), 공업까달로그색인
출판되지 않은 문헌	과학연구사업총화자료, 설계문건, 학위논문	연구논문색인(초록)카드, 학위논문색인카드, 설계문건색인카드

2.2.1 북한의 분야별 잡지현황

북한에서 발행되는 전체 잡지는 <표 4>에서 부문별로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개관해보면, 주요 잡지로는 『근로자』(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46년 10월 창간), 『천리마』(대중교양지, 59년 1월 창간), 『노동자』(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48년 2월 창간), 『농업근로자』(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65년 4월 창간), 『청년생활』(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48년 1월 창간), 『조선문학』(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46년 9월 창간), 『조선예술』, 『조선건축』, 『조선영화』(98년부터 폐간), 『청년문학』, 『아동문학』, 『시문학』, 『극문학』, 『조선어문』, 『철학연구』, 『역사과학』, 『정치지식』, 『당 생활』, 『당 초급간부』, 『조선여성』, 『인민교육』, 『경제관리』, 『과학의 세계』, 『체육』, 『우리나라 무역』, 『주체농법』, 『전자공학』, 『자동차공학』 등이 있다.

표 4 북한의 학문 분야별 잡지현황

과학기술 전문지	건설, 건설·운수, 경제관리, 과학원통보, 과학의 세계, 광업, 경공업, 광업석탄, 금속, 금속 및 채굴공학, 기계, 기계공학, 기술혁신, 기계제작,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등), 농기계, 농업, 룡운해운, 립업, 물리, 물리·수학, 발명 및 특허, 발명공보, 방사성동위원소이용, 방직, 분석, 분석화학, 산림과학, 석탄, 생물학, 수산, 수산업, 수의축산, 수학, 수학과 물리, 식료, 약학, 의학, 일용품, 전기자동차공학, 자동차공학, 전자자동차, 전력, 전자공학, 조선건축, 주체농법, 주체의학, 중공업, 지리과학, 지질, 지질과학, 지질 및 지리과학, 채굴공학, 철도, 펄프종이, 화학, 화학과 화학공학
정치이론 잡지	국제생활, 근로자, 농업근로자, 남조선문제, 노동자, 당생활, 정치지식, 당초급간부
문학예술 잡지	극문학, 시문학, 아동문학, 조선문학, 조선미술, 조선영화, 조선예술, 조선음악, 청년문학
인문·사회 분야학술지	경제연구, 역사과학, 문화어학습, 사회과학, 조선고고연구, 조선어문, 철학연구, 인민교육
청소년 및 여성잡지	대학생, 사로청사업, 새세대, 새희망, 소년과학, 소년단지도원, 우리동무, 조선, 청년학생, 조선여성, 청년생활, 체육
종합잡지	천리마
화보	조선
해외발행잡지 및 기타잡지	조선청년, 조선학술통보, 조선, 조선화보, 통일평론, 주체사상, 주체사상연구회, 민족교육, 체육, 우리나라 무역

북한의 경우에 잡지 역시 기관지화 되어 있고, 일반 대중 잡지는 『천리마』 하나 밖에 없다. 당 기관지로는 『근로자』가 있고, 주요 기관·단체별로 잡지가 하나씩 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같은 분야, 같은 부문에서 잡지가 두 종류 이상 발행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한 종류씩만 발간되며 그 결과 북한에서 발간되는 연속 간행물의 종수는 최근 70-80여 종으로 축소되었다. 몇몇 주요 잡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월간지 『근로자』는 월 30만 부씩 발행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이론 기관지로, 지질은 중질지에 분량은 90쪽 내외이다. 1946년 10월 창간 당시는 노동신문사에서 발간하였으나 현재는 조선노동당 출판사 산하의 근로자사에서 발행하며, 1992년부터 해외 배포용은 발행을 중단했다. 발행 목적은 당 간부를 주 대상으로 수시로 제기되는 노동당의 시책과 그 관철을 위한 방도제시, 당의 노선과 정책 선전,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에의 기여, 당 간부와 당원, 근로대중의 공산주의 교양에 이바지, 당중앙위원회의 조직·선전자 역할 수행 등이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당 정책 홍보와 집행을 위한 논설·논문이 주로 게재되고 있으며, 주제는 주로 당 정책의 이론적 해설, 혁명의 원리, 이상화와 족벌 세습의 정당화, 국제공산주의 경험, 통일문제 등이 되고 있다. 논설 외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문헌·담화·서한·연설 등의 내용도 게재되는데 1991년에 실린 김정일의 논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가 대표적인 예이다.

월간지 『천리마』는 북한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대중교양 잡지로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천리마편집위원회에서 간행되고 있으며, 지질은 중질지에 분량은 90쪽 내외이다. 1959년 초에 천리마운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주요 임무는 주민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이바지, 당의 노선과 정책, 특히 수시로 제기되는 시책을 선전, 그 관철을 위한 주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주민들이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크게 체제 찬양, 통일문제, 일반 생활상식 등으로 나뉘고 있으며, 수기·기행문·혁명유물 소개·지상연단·시·연재소설·만평 등의 형태로 게재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여성들의 옷 입는 법이나 화장법, 머리모양 등에 관한 기사가 연재되어 흥미를 끌기도 하였다. 이밖에 북한의 명승지 및 유적에 관한 기사도 게재되며, 사진은 대개 20컷 내외가 실린다.

2.3 김일성·김정일 로작 및 주요 자료 현황

북한에서 발행된 100여 종의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단행본 등 도서 자료들은 북한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기준으로 볼 때 약 1만여 종 정도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중 북한 사회의 담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저작들은 김일성, 김정일 저서로서 소위 ‘로작’으로 표현된다. 북한에서 쓰고 있는 ‘로작’은 우리나라 표현법으로는 노작(勞作)이다. 노작이라 함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적·이론적 지침을 담은 모든 출판물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명칭이다⁷⁾.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든 저작, 작품, 연설문 그리고 회의 결론까지를 ‘고전적 노작’으로 일컫고 있는데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노작’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현시대와 공산주의 미래의 전 역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위한 투쟁, 공산주의 건설 및 세계혁명 등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 실천적 문제들과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들이 밝혀져 있다”고 김일성의 노작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북한 사전에서는 노작에 대해서 남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힘을 들여 지은 저작이나 작품’,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란 뜻도 있다고 밝히고는 있다.

또한 김정일이 발표하는 논문이나 저작들도 노작으로 부르고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현재까지 김정일은 많은 담화와 논문, 그리고 서한을 발표했다. 북한이 그의 대표적 노작으로 꼽고 있는 것 가운데는 1994년 11월 1일에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와 1995년 6월 19일의 “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가 있다. 그리고 또한 1995년 10월 2일에 발표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도 자주 회자되는 노작이다. 다음 8.4 노작으로 알려진 논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 8. 4.)는 최근에 가장 잘 알려진 노작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단행본들은 그 내용이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정기간행물처럼 일반화하여 소개 할 수 없고, 수많은 자료들을 부문별하게 정형화시키기도 쉽지 않다. 다음은 북한의 출판물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만한 자료들을 개관한 것이다.

①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년감은 북한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참고자료이다. 1972년 이전에는 북한의

7) 사회과학출판사 편. 2006.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1410.

각 분야별 통계가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후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다. 주로 당해 연도 노동당과 정부의 정책, 국내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출판한 책이다. 1949년부터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설문, 논문 및 이들의 행적과 국가 행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의 내용이 수록된다.

예시적으로 『조선중앙년감』(1999년)을 보면 ‘조선의 지리와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관계’, ‘조국통일과 북남관계’, ‘미제식민지 남조선’, ‘총련과 재일동포’ 등으로 나누어진 ‘국내편’과 ‘국제편’, ‘문건 및 자료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조선중앙년감은 김일성-김정일의 연설문이나 담화 이외에도 정부와 외무성 명의의 성명서 및 최고인민회의 결정서와 같은 중요 문헌들이 수록되어 있다.

② 조선대백과사전 등 사전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을 개관할 수 있는 종합적 참고자료이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2006년 1월 중순 완간된 전 30권의 ‘조선대백과사전’은 편찬 준비 작업이 시작된 지난 1964년부터 계산하면 38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조선대백과사전』은 김일성의 ‘특별한 관심과 직접적인 지도’에 의해 1964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찬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2006년 30권이 완성되어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북한 관련 참고서적이 되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조선컴퓨터센터에서 조선대백과사전을 전자출판물로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출판되지는 않았다.

북한은 이상 소개된 자료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각종 연감류와 총류 성격의 단행본, 그리고 신문과 정기간행물 이외에도 각종 영상자료와 전자자료도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특히 영상자료는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상 국가이념이나 정책 홍보, 교육 매체로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IT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전자도서관이나 전자 자료에 대한 관심도 커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

3. 북한 자료의 구입경로와 주요 취급기관

3.1 국내 북한 자료 대행업체

국내에서의 북한 자료의 입수는 「특수자료취급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기관(대행사)이나 입수기관이 모두 특수자료취급기관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특수자료취급기관으로 북한 자료 구입을 대행하는 국내 업체로는 남북교역(주)과 아시아저널이 대표적이다. 이 두 회사 이외에는 대행사라기보다는 국내 북한 도서 전문 서점 1호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대훈서적이 있다. 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북교역(주)

사회과학출판사였던 일월서각이 모태가 된 남북교역은 1990년 12월 설립된 북한 자료수입 전문 대행업체로 중국, 일본을 통해 입수된 북한의 신문, 잡지, 단행본, 비디오 등 각종 자료를 판매하고 있고, 남북한 상품 교역과 사업중개, 한국학 자료의 전 세계 공급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1994년에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았다. 초기에는 주로 일본의 북한 자료 총판격인 구월서방을 통해 자료 입수를 대행하다가, 2001년 8월부터 중국 베이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북경사무소를 통해 자료구입을 대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입수경로(북한 신의주-단동-북경으로 이어지는 기차화물)가 바뀌면서 북한 신문의 국내 입수가 3일 이내로 가능해졌다. 이 회사는 초창기에는 단행본 위주로 거래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북한 신문과 정기간행물 쪽에서 강세를 띄면서 현재 유력한 북한 자료 대행업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 규모로는 아직까지 국내 전반의 북한 자료 구매력이 낮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⁸⁾를 통해 북한전문서적 쇼핑물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자료에는 제한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북측 자료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단독으로 북한의 간행물에 대한 총판(수입권) 계약을 맺어 정기간행물 공급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기도 했다.

② 아시아저널(주)

아시아저널은 2002년 설립된 후발 주자지만 남북교역(주)과 함께 북한 자료 전문 수입 업체로 현재 이 분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북한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8) <http://www.nambook.co.kr/index.htm>

러시아권 자료 입수도 대행하고 있으며, 로동신문 메일링 서비스와 같은 북한 정보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남북교역(주)에서 분리된 업체로 북한 자료 관련 전문성도 있고, 관련 조직도 튼튼한 편이다. 과거 일본의 학우서방, 구월서방 등을 중심으로 자료 입수를 해 왔고, 최근에는 베이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북경사무소를 통해 자료구입을 대행하고 있다. 단행본과 비디오 자료 입수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 회사도 자체 홈페이지⁹⁾를 통해 북한 전문서적 쇼핑물을 운영하고 있다.

③ (주)우일도서무역(Will Trade)

우일도서무역은 (주)유 피 에이¹⁰⁾ 계열사로 특수해외간행물을 전문으로 수입하여 배포하는 회사이다. UPA는 외국 정기간행물의 수입 및 배포를 목적으로 1958년 창립된 이 방면 굴지의 회사로 일간신문, 시사·경제분야, 과학·의학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다루는 600여 종의 정기 간행물을 국내에 보급한 바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정기간행물을 중심으로 한 북한 자료의 수입 및 배포를 위해 계열사로 (주)우일도서무역을 설립하였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남북교역(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국내 시장을 놓고 접전을 벌였으나 2000년 중반이후 새로운 시장 정책에 따라 특수자료 취급분야 사업권을 반납했다.

④ 대훈서적

대훈서적은 국내 북한 전문서점 1호로 2001년 2월 8일 서울역 앞에서 문을 연 후,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내에 입주하는 등 자리를 옮겨왔다. 대훈서적은 2000년 청주 인쇄출판박람회에서 145종의 북한 서적을 판매한 바 있고, 서울국제도서전을 통한 북한 도서전을 여는 등 북한 서적 알리기에 가장 앞장서 왔다. 『리조실록』을 들여왔고, 전시회를 추진한 바 있는 북한의 대표적 문예월간지 『조선문학』(1947-2000년)을 통합 영인본으로 수입했다. 이 밖에도 『조선대백과사전』 30권 전집을 들여와 판매하는 등 이벤트성이기는 하지만 북한 도서 알리기를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초창기의 북한 자료 고가정책이 시장에 역효과를 불러왔고 결국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훈서적의 김주팔 대표가 북한 자료 수집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서독 장벽이 무너진 후에 동독 출판사들이 망하고 관리가 안 돼서 동독에서 출판된 책을

9) <http://www.asiajournal.co.kr>

10) UPA: Universal Publication Agency, Ltd. (<http://www.upa.co.kr>)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들은 후부터라고 한다. 그는 “우리도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텐데 누군가는 북한 책을 모아두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 북한 책을 수집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10여 년간 책값으로 7-8억 원을 썼으니 서점에서 번 돈을 다 쏟아 부은 것 같다.”라고도 말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소장한 북한 서적이 3,500여 종 7만 8천여 권에 달한다고 하니, 일견 북한 자료에 대한 그의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¹¹⁾.

대훈서적은 각종 북한 도서를 중심으로 「특수자료취급기관」보다는 북한 전문가와 학생, 실향민 등 일반 국민을 상대로 판매활동을 펼쳤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북한 자료는 북한에서 생산된 특수자료 가운데 비정치적, 비이념적 자료로 재분류된 일반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이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서점측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김주팔 대표의 급작스런 서거와 판매실적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대훈서적은 Best Friend Book이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북한 자료 부문은 ‘NS One Korea’라는 이름으로 분리하여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활동 결과는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⑤ 기타 업체

이상에서 살펴본 업체 외에는 사실상 눈에 띄게 활동하는 업체가 없다. 중원기업과 동양물산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자료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한동안 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특수자료 판매실적이 거의 없어 사실상 이 분야의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오피플 닷컴¹²⁾ 같은 국내의 중개 무역상도 북한 자료 입수에 한 몫을 담당한 바 있는데, 2001년 2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시에서 열린 북한 도서전시회를 개최·지원한 바 있다. 이 전시회는 조선출판물수출입사와 중국 엔지휘포무역유한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 같은 형태의 북한 도서전은 중국 각처에서 매년 몇 번씩 열리고 있다¹³⁾. 이 전시회에 출품된 책들 가운데 일부가 국내에 반입되어 국사편찬위원회 등 일부

11) 한국일보 2001.3.12, 인물평/약력 27면(42판)

12) <http://www.ohpeople.com/>

13) 북한은 김일성 생일(4.15)과 김정일 생일(2.16)을 전후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북한 지역은 물론, 중국 각처에서 북한 도서전시회를 매년 개최하는 데, 김 부자의 사진자료 전시와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 등 소위 로작들을 중심으로 한 자료 전시로 이루어진다. 그 규모는 대략 20-30평의 전시장을 사용하고, 전시 책수도 2,500권 안팎으로 크지 않다.

기관에 판매된 바 있는데, 특히 400여 권의 북한 대학교재는 1950년대 이후의 한정본으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서울 본사와 중국 심양과 연변에 사무소를 두고 북한의 사회과학원 등과 중국을 통해 접촉하였다. 북한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자료를 국내에 반입하는 등 북한 자료의 국내 반입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다가 최근 남북한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고 현재 (주)북피플 닷컴을 새로 차려 운영하고 있다.

(주)오피플 닷컴과 유사한 무역거래를 펴 온 회사로 (주)가든종합무역이 있다. 이 회사는 1990년대까지 북한 자료와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대표적인 회사였지만 최근에는 두드러진 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동양물산(주) 문화사업부에서 북한 신문을 취급하고 있는데 활동 영역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온라인 전문업체로 (주)엑시디언이 운영하는 Book4949(www.book4949.co.kr)가 있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특별서적’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1,200여 권 자료 중에 북한 서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1950년대 전후의 전쟁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문학관련 자료 등 희귀본이 많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만 이 업체는 특수자료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특수자료를 구매할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3.2 국외 북한 자료 전문업체

국외 북한 자료 전문업체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북한 자료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내각 소속의 출판지도국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그 체계를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출판지도국장 밑에 부국장과 출판물보급국장이 있고 다시 본부와 평양시, 도별 출판국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별도로 출판인쇄과학연구소가 있고, 인쇄기계공장과 인쇄화학공장도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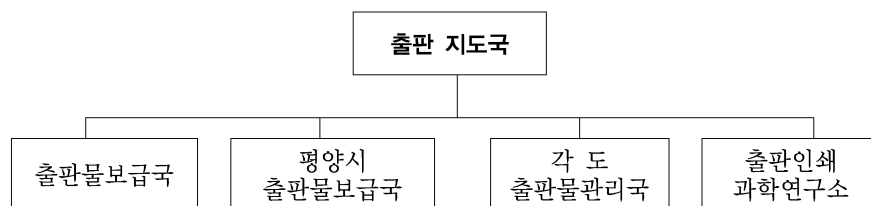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출판체계

14) <그림 1> 관련 내용은 북한기관·단체별인명집(통일부, 2010)의 p.108.의 ‘출판지도국’ 관련 부서를 재구성한 것이다.

북한에서 생산된 출판물의 해외 수출은 출판지도국의 지도 감독 하에 조선출판물수출입사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최근 평양출판사 등 개별 출판사들이 국내 출판사들과 접촉하는 등 해외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¹⁵⁾. 현재, 북한 출판물의 해외 수집경로는 중국, 일본, 홍콩, 미국과 캐나다 등의 친북 단체가 운영하는 서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중국¹⁶⁾, 일본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주요 북한 서적 전문 업체들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중국의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북경사무소

먼저, 조선출판물수출입사는 위에서 일부 설명한 것처럼, 내각 소속의 출판지도국(일명 출판총국, 출판지도국장은 부상급) 산하의 출판물 무역회사로 전체 직원은 약 2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총사장은 국장급 대우를 받고 있다. 산하에 ‘고려문화사’라는 출판사를 두고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저작물을 인쇄·출판하기도 하며, 특히 산하의 ‘고려전자출판물사’(2002년 설립, PC 30여대)를 통해 위임받은 저작물을 CD-ROM이나 인터넷용 자료로 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이 조선출판물수출입사의 북경사무소는 「베이징선영과무유한회사」라는 회사명을 사용하는데, 베이징선영의 ‘선영(鮮榮)’이란 말은 “조선이 영화롭다”는 뜻이다. 이 회사는 2001년 5월에 설립되었고, 직원은 8명이다. 2002년부터 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의 북한도서전시회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 회사는 북한 출판물의 대외교역량 60% 이상을 장악함과 아울러 그동안 북한저작물을 둘러싸고 발생한 모든 난맥상을 조선출판물수출입사와 그 대행사인 베이징선영과무유한공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바 있다. 베이징선영과무유한회사는 조선출판물수출입사의 북경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조선출판물수출입사가 투자한 회사가 아님을 고려하면, 서구적 개념으로 ‘지사’(Branch)라기보다 대행업자(Agent)로 판단된다.

과거 북한 자료 입수의 주 경로는 일본이었지만, 2001년부터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북경사무소가 생김으로써 북한 자료의 국내 입수기간이 대단히 단축되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북한 자료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운영

15) 북한의 저작권 사용과 북한 저작물의 국내 출판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도 일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중요한 문제로 다른 장에서 다룬다.

16) 필자는 2001년 2월 중국 하얼빈, 8월 연변, 200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도서전’에 참가한 바 있으며,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부사장 신학철, 과장 김길현,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북경사무소 사장 홍룡길과 면담한 바 있다. 다음에 기술되는 중국 관련 내용 중에는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득된 사실이 상당부분 있음을 밝혀둔다.

하는 「조선인포뱅크」¹⁷⁾의 서브 메뉴로 조선출판물¹⁸⁾ 코너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북경사무소 홈페이지¹⁹⁾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실제 구매가 가능한 목록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북한과의 접촉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전에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아직까지는 절차적 어려움이 남아 있다²⁰⁾.

국내의 남북교역(주) 및 아시아저널과 교역하고 있으며, 직거래도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개별 특수자료취급기관과 계약하여 직거래를 하는 경우, 자료 배송과 통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소수의 자료를 구독하는 기관은 단가 면에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이익을 볼 수 없고, 업무량만 많아지기 때문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국은 접경지역을 포함하여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조선족이 상당수 거주하기 때문에 북경 이외에도 자료 수집에 필요한 주요 거점들이 있다. 특히 학술교류의 중개 지역으로 남북한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연변지역은 중요하다. 연변의 조선족 출판사인 천지출판사, 연변출판사, 민족문화사 등 출판사와 신화서점 등 몇몇 북한서점과, 연변도서관, 연변대학중앙도서관도 북한 자료 수집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심양의 조선족 밀집 거주지역인 서탑 등에도 북한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정보 등 기본 인프라 면에서 우수하여 연변의 대안지역으로 자주 거론되는 곳이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하다²¹⁾.

② 일본의 구월서방, 학우서방, 레인보우통상

일본은 북한과는 지역적으로는 중국보다 멀지만, 북한을 지원하는 면에서는 중국보다 가까운 곳이다. 재일조선총련합회²²⁾를 중심으로 한 재일교포의 결속력이 강한데다 직접적으로 북한 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의 조총

17) <http://www.korean.dprkorea.com/>

18) <http://www.book.dprkorea.com/korean/>

19) <http://www.korea-publ.com/>

20)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북경사무소와는 이메일을 통한 상담과 전화통화도 무리가 없다. 조선족 사장이고 한국말에 능통하다. 그러나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북한 쪽 사람이라는 점에서 거래시 접촉과 관련해서는 관계 당국과의 의견 교환 등 사전에 사후발생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1) 북한은 중국 조선족의 일부업체에게 출판물의 판권을 위임하여 국내 출판인과 기업인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북경(이춘일: 신흥영시문화발전유한공사 대표), 심양(전정환: 고려민족문화연구원 소장), 연길(권수동: 휘포무역유한공사 대표) 등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사람으로, 북한 자료 입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2) <http://www.chongryon.com/index-k.htm>

련계 서점들은 북한에서 생산된 출판물을 보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에서 판매까지를 책임지기도 한다. 현재 조총련의 사업체로서 대표적인 북한 관련 서점은 구월서방과 학우서방으로 조선신보사 도서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양 서점의 조직체계는 부사장과 고문단을 두고 있으며, 구월서방은 경영·보급부와 자료부를, 학우서방은 편집부와 출판국을 두고 있다.

학우서방은 1949년 5월 창립하여, 최초 『김일성선집』을 비롯하여 북한의 각종 도서들과 신문, 잡지들을 일본 전역에 보급한 출판사로 그 역사가 63년이나 된 가장 오래된 북한전문 서점이자 출판사이다. 현재는 조총련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등 학교 교과서와 교재, 성인학교 교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월서방은 1954년 4월 1일 창립한 조총련계 회사로 북한에서 생산하거나 제작하여 수출되는 모든 출판물, 비디오, CD, 게임물 등의 일본 총판을 책임지고 있는 서점이다. 남북교역(주)과 월트레이드도 과거에는 대부분 이 서점을 통해서 북한 출판물을 입수하여 국내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북경의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북경사무소의 자료제공이 더 원활하고, 정기간행물 입수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북한을 연구하거나 특별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기관에게는 여전히 유용한 북한 정보원이다. 실제로 많은 북한 연구자들은 일본에 들르면, 이 서점들을 반드시 방문하고 있다²³⁾. 최근에는 1995년부터 인터넷 도메인으로 사용하던 ‘코리아 북 센터’라는 이름을 서점이름으로 바꾸어 자체 소유 건물인 조선출판문화회관에서 ‘코리아 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들어 그 활용도 면에서 이용 가치가 큰 서점으로 알려진 레인보우통상(레인보우通商)²⁴⁾이 있다. 북한, 중국 조선족의 서적을 취급하는 서점으로 일본 도쿄의 현책방 거리인 간다 진보초(神田神保町) 뒷골목 한쪽에 있다. 일명 ‘리틀 평양’이라고 불리는 이 가게를 운영하는 미야카와 준(宮川淳)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은 일본인이지만, 그 자신의 업종 때문에 나름대로 일가견을 갖춘 ‘북한통’으로 통한다. 이 ‘미야카와’ 운영자²⁵⁾는 어느 정도 한국말이 가능하며, 한글도 해석할 수 있어 전화

23) 구월서방은 조선신보사(www.korea-np.co.jp/korea) 사장이 현재 운영권자이며, 별도로 코리아북센터(www.nrbook.net)를 1995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거래도 가능하다.

24) <http://www.rainbow-trading.co.jp>

25) 이 운영자는 북한을 1달에 2번 정도 방문하며, 대행사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없는 많은 북한 자료들을 국내 인사에게 제공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일본에서의 언론 보도가 문제가 되어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나 이메일을 통한 의사전달에 큰 어려움은 없다. 그가 북한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2년 북한판 『조선왕조실록』 독점 판매권을 따낸 회사의 일을 거들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는 그 후 일본인들의 북한 관광사업 등 여러 가지 ‘대북사업’에 발을 담그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통’이 되었다. 서점 판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의 자료를 구매하기에 편리하다. 실제 이 운영자는 일본인으로 평양 출입이 자유로워 과거 북한 관련 희귀 자료를 많이 구해와 제공하였기 때문에 북한 전문 연구자들에게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 자료 제공 과정에서 북한 당국과 마찰을 빚어 현재는 주로 조선출판물수출입사의 북경사무소인 「베이징선영과무유한회사」의 자료를 주로 입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인터넷을 이용한 북한 자료 구매가 가능한 곳으로 북한영화 등 비디오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단군아시아 필름²⁶⁾이라는 곳이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지역에서는 조총련이 중심이 되어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물의 생산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북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서점과 출판사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조사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③ 미국의 고려종합무역상사

고려종합무역상사는 조선출판물교류협회의 미국 대리점(15417 S. Western Ave., Gardena CA 90249)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무역상사의 대표 김병주는 남가주내 친북 인사로 1985년 이 회사를 설립하여, 북한 출판물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등 북한 제품을 수입하여 미국 내에 판매하여 왔다. 김병주는 오랫동안 미국 내 도서관 및 대학에 북한 홍보물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LA에 북한 국영 TV 방송인 조선중앙TV방송국 설립을 추진하여 주목받은 바 있다. 현재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선출판물교류협회’ (신문, 잡지, 도서)와 ‘조선영화수출입사’(영화)와 같은 북한 국영회사제품의 미주 총판권을 확보하는 등 북한 관련 사업부문에 유력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 무역상사에 비치하고 있는 출판물은 인문, 사회, 미술, 무용, 영화, 각종사전, 연감, 화첩, 사진첩, 연구논문 등 북한의 각 분야 도서류 2만여 권과, 북한 영화 비디오 6백여 편, CD·카세트 100여 종 등으로 북한 서점 가운데는 대규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구입도 가능하다²⁷⁾.

26) <http://www.tangun.co.jp/moviekr/>

27) http://www.koreansuperpages.com/koryo_trad/default.html

미국, 캐나다 등지의 친북 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자료 판매활동이 여러 곳에서 있었지만, 그 영세성과 북한 측의 미비한 지원으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현재도 고려종합무역상사 이외에는 뚜렷한 활동을 보이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항공료 등 송료가 자료구입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북한 자료입수 경로로는 메리트가 없지만, 다른 지역보다 북한 서적이 자유롭게 유통된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둘 만하다²⁸⁾.

3.3 국내외의 북한 자료 주요 취급기관

국내에서 북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외에도 전국적으로 173개의 특수자료취급기관이 있다. 그러나 특수자료취급기관이라고 북한에서 생산된 북한 원전만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 원전보다는 북한 관련 국내외 자료가 더 많은 기관이 대부분이다. 다만 특수자료취급지침에 따라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를 별도의 특수자료실 서고에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을 뿐이다. 실제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활용 빈도는 오히려 북한 원전보다는 북한 관련 국내외 자료들이 높고 그 영향력도 큰 편이다. 그러나 예산 지원 능력이나 관련 조직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앞서 살펴 본 대행업체나 주요 서점을 통해 소수의 북한 관련 간행물을 구입할 뿐이지 현지 구입이나 직거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수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 중 북한 자료 입수에 많은 예산과 조직을 갖추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 온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가기관(외교통상부, 통일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록원 포함)과 대학 독자적으로 NARA 자료 입수와 번역, 해제 등 북한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업적을 세운 한림대학교 아사아문화연구소 등 10여 개 기관이 북한 자료 입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현재 해외 북한 자료의 수집 활용에 관한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전문성, 예산, 인력 측면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여 가장 활발히 해외자료 및 기록수집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으나 주로 한국사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북한 관련 자료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주제를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28)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북한 자료 유통은 원활하지 않지만 미국 국회도서관과 UCLA대학 등, 일부 도서관에서는 국내 도서관보다 훨씬 많은 북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미국 UCLA 도서관 속의 ‘작은 한국’/최용선, 오마이뉴스 2002.1.16, www.ohmynews.com 참조).

통일부는 북한자료센터를 운영하며 북한 관련 자료목록집 형태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 외에 민간연구소나 개인연구자, 개별 출판사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는 대학 부설 연구소지만 해방 직후 시기와 한국전쟁과 관련한 자료들을 20년 이상 꾸준히 수집, 정리, 편찬하고 있다.

다음, 수집 활용된 자료들이 포괄하는 시기는 해방 직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전쟁, 해방직전, 한국전쟁 이후 순인데, 주로 해방직후(3년)와 한국전쟁 관련 문서들이 대부분이다. 관련 주제는 정치 분야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군사관련 분야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외교 관련 분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고, 경제 관련 분야도 적지 않다. 전체적인 자료 분포에서는 미국 측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는 미국 측 자료들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분야에서 골고루 자료적 강점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북한 관련 자료도 미국 측 자료에 거의 편중되어 있다. 특히 미국 측 자료가 다루는 주제 범위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노획문서의 존재이다. 노획문서는 해방 이후 한국 전쟁기까지의 북한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포괄적이고 기초가 되는 자료군이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와 간행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하지만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의 정부문서 개방에 따라 일부 중요한 기초자료들이 공개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더불어 일본, 독일, 중국 등의 자료들을 활용한 국내 연구나 정리된 자료는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4. 북한 자료의 활용

4.1 북한 관련 디지털 자료의 이용

북한 자료의 국내 이용은 국가보안법이나 특수자료취급지침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해외에서의 이용은 자유스럽다. 다만 그 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이다. 따라서 국외에서 활용하기 용이한 북한의 디지털화된 자료를 이 장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아마존의 전자책(e-Book) 리더기 ‘킨들’의 성공에 이어 애플 ‘아이패드’의 등장으로

전자책 시장이 이미 크게 주목받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전자책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북한은 전자책 시스템인 ‘전자서고 미래 2.0’을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미래2.0』 프로그램을 돌리면 우리의 도서관 검색 시스템과 비슷한 구성의 첫 화면이 뜬다. 왼쪽의 분류 항목에는 ‘주체사상’, ‘문학작품’, ‘조선노래집’, ‘글쓰기 참조’, ‘문학대사전’, ‘조선말대사전’, ‘상식대사전’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다시 하위 목록이 펼쳐지는 식이다. 예컨대 ‘문학작품’ 항목은 다시 ‘조선고전문학선집’, ‘조선현대문학선집’, ‘조선단편집’, ‘세계문학선집’, ‘세계아동문학선집’, ‘조선문학작품’, ‘외국문학작품’, ‘아동문학작품’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세계문학선집’ 항목을 클릭하자 ‘일리아드’, ‘수호전’, ‘셰익스피어(셰익스피어) 희곡선’, ‘동끼호테(돈키호테)’, ‘제인에어’, ‘레 미제라블’, ‘고리끼(고리키) 작품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남한에서도 익숙한 외국 작품 목록이 나왔다. ‘셰익스피어 희곡선’의 경우 북한 조선문예출판사가 1991년 출간한 책 내용 전체를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정치, 문학 등 분야의 도서 1천 5백여 권과 약 35만 건의 정보가 수록돼 있는데, 북한 현대문학을 비롯해 상당 부분은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 추정된다. 이밖에 『미래2.0』은 음성인식기능과 수록된 책, 노래 가사, 사전 등의 내용을 각종 키워드로 검색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대북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남한보다 덜 복잡하고, 출판사들도 당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어 비교적 빨리 방대한 전자 콘텐츠를 확보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⁹⁾.

다음 <표 5>는 북한이 현재 CD-ROM으로 제작한 북한의 정기간행물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잡지들이 거의 전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이 밖에도 『조선중앙연감』(1970-2005)과 『조선문학예술연감(1985-2003)』, 『혁명의 성산 백두산』, 『과학기술대사전 광명- 2003』 등을 CD-ROM으로 제작하여 발간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통일연구원과 (주)동방미디어가 공동으로 『김일성저작집(전47권)』과 『김정일선집』을 제작하여 국내 대행사를 통해 판매한 바 있다.

29) 연합뉴스(2010.2.4)

표 5 북한발행 연속간행물 과월호 CD-ROM 목록

순번	잡지 명칭	수록 연도	순번	잡지 명칭	수록 연도
1	경제연구	1986-2005	16	과학원통보	1957-2005
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1997-2005	17	금속	1989-2005
3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	1997-2005	18	기계공학	1989-2005
4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1997-2005	19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자연과학	1991-2005
5	역사과학	1977-2005	20	물리	1962-2005
6	문화어학습	1977-2005	21	발명공보	1966-2005
7	민족문화유산	2001-2005	22	분석	1989-2005
8	사회과학원학보	1997-2005	23	생물학	1975-2005
9	정보과학	1991-2005	24	수학	1962-2005
10	정치법률연구	2003-2005	25	예방의학	2001-2005
11	조선문학	1977-2005	26	전기자동화	1991-2005
12	조선어문	1987-2005	27	조선약학	2002-2005
13	천리마	1977-2005	28	조선의학	1991-2005
14	철학연구	1996-2005	29	지질 및 지리과학	1989-2005
15	청년문학	1977-2005	30	채굴공학	1969-2005

4.2 「북한학술정보」 및 「북한 학술지」 웹DB 서비스

국내 북한 관련 웹 DB업체로는 CNC(www.yescnc.com)와 코리아콘텐츠 랩이 있다. CNC는 북한학술정보 DB를 갖고 있고 코리아콘텐츠 랩(<http://www.kclab.com/>)에는 북한학전자도서관 북한학술지통합DB(<http://www.kpjjournal.com/>)가 있다. 이들은 북한과 직접적인 전자출판계약을 했거나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중재 하에 저작권 계약을 맺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북한 원전을 웹서비스를 통해 직접 독자나 기관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이념성이 없는 과학기술분야의 자료들이다. 먼저 CNC 북한학술정보 DB의 주요 내용을 보면 <표 6>과 같다. 이 들 자료들은 개별적인 DB로 판매되기도 하며, 웹서비스 구독계약이나 연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최신 정보를 갱신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기관 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IP대역 방식으로 제공한다.

표 4 북한학술정보 DB 종류

번호	DB명	내 용
1	북한 법률	최근 북한 법전, 북한 법규집, 남북합의서 등
2	북한 어학	어학사, 어휘론, 의미론, 어음론, 문법론, 문체론, 명칭론
3	북한 요리	주식요리, 전통요리, 연회요리, 식사요리, 사냥물·지방특산 등
4	전통민속	가정생활, 주택, 생활풍습, 옷차림, 전통 민속, 전통무용, 공예 등
5	북한속담성구사전	북한에서 사용중인 8,700여 개의 속담과 6,000여 개 성구 수록
6	북한유적유물	원시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미술품과 도구양식 등 수록
7	북한중앙역사 박물관	조선 역사, 도자 공예, 기와벽돌 공예, 나무 공예, 금속 공예 등
8	북한 백두산	백두산의 동물, 지질, 미생물, 통양, 지형, 식물, 기상수문
9	북한 금강산	금강산의 자연, 역사와 문화, 명승, 한자시선, 기행문 등
10	북한고생물화석	북한의 생물, 지질 참고자료(동물화석103점, 식물화석 51점)

북한 학술지 통합데이터베이스는 코리아콘텐츠랩이 개발한 북한학술자료 원문사이트로 1945년 이후의 북한의 학술지, 논문, 단행본, 전집 등의 원문을 전자책이나 웹DB로 구축하여 공공 및 대학도서관, 연구소, 국가기관 등에 IP제한 방식으로 서비스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구독료 지불방식의 회원제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북한학술지 통합데이터베이스는 코리아콘텐츠랩과 민족21(남), 조선출판물수출입사(북)가 함께 구축하되 코리아콘텐츠랩은 개발 및 판매를, 민족21은 남북간의 법적 절차에 따른 접촉과 실무를, 조선출판물수출입사는 선정한 콘텐츠의 수집 및 진행에 필요한 내부 협의를 각각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학술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남북 최초로 제3국을 통하지 않고 평양에서 직접 합의서와 계약서를 교환하고 개발하는 문화콘텐츠 전송사업으로 북한이 베른 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체결한 첫 계약이다. 저작권 조항에 신설된 ‘전송권’의 개념과 원칙을 남북한이 공유하였다는 점도 의미 있는 사실이다. 현재 구축된 주요 학술지는 대체로 1960년 이후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자료들은 대부분 <표 5>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4.3 「북한 자연·인문지리 DB」 서비스

북한에서는 정권수립 이후 60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지도나 자료를 가지고 특정지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나온 북한의 행정구역관련 자료들은 8.15 해방 전 자료이거나 그 후 간헐적으로 나온 것이 대부분이었고, 지도의 경우도 위성사진을 토대로 제작되었지만 지명의 불일치나 부정확한 구획설정 등으로 대부분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 것이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 1999년 중국 ‘조선민족문화연구소’의 주선으로 북측 사업주체인 ‘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공동 편찬기로 합의하여 2004년 『조선향토대백과』 20권을 완간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자연·인문 지리정보는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취약한 형편이었으나 『조선향토대백과』의 간행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북한 연구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 자연·인문지리 DB」는 『조선향토대백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평화문제연구소」(www.ipa.re.kr)가 북한 측의 저작권 동의를 얻어내어 국가지식관리사업(정통부·행안부)으로 '06-'08년간 구축한 북한지리 관련 최대의 DB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웹DB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텍스트 48만 면, 사진 2만 8천 장, 동영상 340편을 「북한지역정보넷」(www.cybernk.net)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go.kr)에서도 검색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정보넷」은 북한의 전 지역 정보를 디지털화한 국내 최대의 정보포털사이트로 행정구역, 자연·인문지리, 유물유적, 민속문화관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검색 및 이용이 편리하다.

4.4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현황과 이용 서비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관련 국내외 도서자료 6만 9천여 권, 정기간행물 150여 종 1만 1천여 권, 파일자료 3천여 권, 시청각자료 7천여 권, 통일부 발간물 6천 5백여 권 등 10만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통일·북한 관련 전문도서관이다. 이 중 북한에서 생산된 북한 원전자료도 3만여 건에 이른다. 이 자료들 중에는 간혹 아무도 모르는 희귀자료도 섞여 있다. 1950년대 이전의 북한 자료는 그 자체가 귀중본이다. 3백여 권이 넘는다. 1949년 이후의 조선중앙연감, 과거 인민학교 교과서와 대학 교재를 비롯한

북한의 다양한 교과서, 6.25 전쟁 당시 미군이 노획한 북한 관련 각종 문건들을 MF으로 제작한 자료, 또한 북한의 국립영화촬영소에서 촬영한 북한정권 수립초기(1945-1950)의 역사적 장면을 수록한 기록영화 등 많은 자료들이 있다. 1958년도에 발간된 북한의 전설적인 무용수 최승희의 “무용극 대본집”도 있다. 최근에는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한 북한 정기간행물 ‘아동문학(1960년)’에서 월북 시인 백석의 국내 미공개 동시 세 편이 발견되어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북한자료센터」는 이처럼 북한의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내고 보존하여 널리 이용하게 하고 있다. 이는 민족 통일의 실현과정에서 생산되는 북한 관련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것으로서 국가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표 7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 현황

구 분	일 반	특 수	합 계	북한원전
단행본	54,496	14,073	68,569	17,640
통일부 발간도서	6,334	0	6,334	
연속간행물	7,424	3,392	10,816	4,322
시청각자료	2,212	5,089	7,301	
파일자료	2,572	431	3,003	
기타자료	896	539	1,435	
보안자료	0	215	215	
합 계	73,934	23,739	97,673	21,962

「북한자료센터」는 자료 수집 외에도 많은 국민 참여 활동을 해왔다. 그 중 하나가 북한 실상설명회이다. 북한실상설명회는 탈북자,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북한의 주민 생활과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89년 북한실상토론회로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550여 회를 실시했고 5만여 명의 학생 및 시민이 참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행사는 북한영화상영회다. 「북한자료센터」는 2천 2백여 편의 북한 영화를 소장하고 1990년부터 2010년 까지 8천 여 회 이상 북한영화를 상영해 왔다. 가장 인기 있는 영화를 연도별로 보면, 1980년대는 단연 ‘도라지 꽃’이다. 이 영화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주인공인 인민배우 오미란은 제1차 비동맹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과거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소재로 가깝게 와 닿는 ‘도시처녀 시집와요’가 있다. 동일한 이름의 이 작품의 주제곡은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보천보 전자악단이 연주한 노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경쾌하고 리듬이 단순해 따라 부르기 쉬운 곡이다. 2000년대에는 과학자로서 조국에 충성하는 모습을 담은 ‘한 녀학생의 일기’가 인기가 높았는데 이 작품은 칸영화제 필름마켓에 출품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령리한 너구리’ 등 분야별로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이렇게 북한실상의 이해와 바람직한 통일관 형성을 통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기본 목표를 갖고 단순한 북한 자료의 수집이나 공개정책의 추진이 아닌 통일문화 조성에 힘써왔다.

북한 문제는 한민족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 문제가 되었다. 이제 「북한자료센터」는 ‘북한’이라는 특수성에 ‘세계’라는 보편성을 더해 전문성과 개방성을 갖춘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개관한지 21년이 된 북한자료센터는 2009년 7월 광화문 시대 20년을 마감하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5층으로 이전하여 자리잡고 좀 더 쾌적하고 넓은 장소에서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북한자료센터」는 북한의 죽은 역사를 소장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관련 도서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자료를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나가는 글

1945년 해방공간의 대립이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비극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 힘입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교류가 시작되나 싶더니 2010년 다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다보니 남북한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는 먼 나라 일처럼 되어 버렸다. 필자가 속해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사업 중에는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자료로써 알리는 것도 하나의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사건 하나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민족통일의 실현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해서 후대에 전해서 역사적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자료센터는 단순한 북한 자료의 열람과 제공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통일사료를 축적하고 체계화시킬 사명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명을 위한 첫 단계는 우선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여 이용자들이 가능한 불편하지 않게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단계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집중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남북한 간의 정치적 상황과 국내 여론이 북한 자료의 공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술적 목적의 북한 자료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북한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일부 생산물은 e-Book으로 제공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해외에 있는 북한 관련 연구자에게도 이러한 노력들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하루속히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North Korean Resources: Current Stat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Sungseob Song*

1. Introduction

Mutual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had been focused on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has extended to social and cultural arenas since 2000, with growing interest for exchange in novel areas.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of South Korea have continued their exchange with the North, despite the many ups and downs in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July 7th Declaration¹⁾ to the June 15th Joint Statement. Academic exchange, albeit limited, has been growing in scope, too, centered around historical issues such as the Dokdo issues and the Northeast Asian Project of China as well as the area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which the North is particularly interested. As such,

* Director,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1) Former President Roh Tae-woo announced the Special Presidential Declaration for National Pride and Prosperity in Unity on July 7th, 1988. The July 7th Declaration sets out to build a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ommunity with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the nation under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peace, democracy, and welfare, thereby opening a new era of national pride and prosperity in unity. The Declaration stipulates six specific provisions: 1. Mutual exchange of people of the South and the North, and unconstrained visits to both Koreas by overseas Koreans, 2. Identifying whereabouts of family members in the other sid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llowing mutual visits, 3. Open trad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4. Approving of non-military transactions of allies with North Korea, 5. Ending confrontation in inter-Korean diplomacy, and 6. North Korea's cooperation for improved US-Japan relations.

mutual exchange of published resources, though limited, is taking place, with all possible types of support for North Korea in areas of their interest. Given the peculia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however, these efforts can be seen as rather desperate measures - as opposed to genuine academic exchange or mutual collaboration - to help bring about the opening of North Korea. For this reason, mutual exchange of publications has yet to go a long way towards true openness, even after 20 years from the July 7th Declaration.

These circumstances have inevitably put limitations on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publications. In North Korea, the purpose and mission of published resources are subject to a production scheme and control system that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what an ordinary South Korean would suppose. Publications of North Korea are first and foremost a powerful means used to propagate the political agenda of the Korea Workers Party (KWP). Kim Il Sung, in his comments on the nature of publications, states that “publications are a crucial means for the Party to reach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a powerful weapon to organize and mobilize the masses of workers in fulfilling the task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onstruction put forward by the Party”²⁾. Under this ‘guidance’ of Kim Il Sung, the publishing sector of North Korea adheres to the following three principles: 1. The Juche Ideology is to be revered as the cornerstone; 2. All publishing/reporting activities are to proceed under the guidance of the KWP; 3. Get the seed right and achieve maximum results in a given time. The term, seed, means the nucleus of a publication, namely its ‘ideological kernel’. North Korea emphasizes that only if these principles are thoroughly followed, can a publication fulfill its service to the KWP, the laboring class, and to the people, and firmly ensure its journalism, orthodoxy, science, and truth³⁾. This does not mean that North Korean publications lack the fundamental nature and informative function of publications; only that they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both form and

2) Kim Il Sung. 1980. 『Collection of Kim Il Sung's writings』 Volume 10, Pyongyang: KWP Publishers. p.296.

3) In North Korea, publications are considered to be "a mighty tool of cultural propaganda to motivate and mobilize all people into the great struggle of embodying the Juche Ideology across all sectors of the society and of building a strong nation under the wise leadership of the dear comrade Kim Jong Il, and a powerful means of information to heighten people's cultural knowledge and to develop friendship and exchange with nations around the world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Monthly *Joguk*, Nov. 2005. p.5.).

content.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publications and their characteristics, identify how these resources are collected and maintained, and explore ways to utilize them.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ublications

North Korean publications were examined in terms of several broad categories: periodicals such as newspapers and academic journals, work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other major resources.

2.1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Newspapers Published in North Korea

2.1.1 Colonial Period

Table 1 Major North Korean newspapers during the colonial period

Name of Publication	First published in	Characteristics	Major content
<i>Saenal</i>	Jan. 1928	Bulletin of Saenal Children League	Used by Saenal Children League, Anti-imperialism Youths Alliance, public offices, and women's organizations as learning materials and a means of public propaganda agitation * Publication revived in Apr. 1971, Targeted for middle school 4th to 6th graders since Jun. 1973.
<i>Seo-gwang</i>	May. 1937	Internal bulleti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 weekly political newspaper read by the members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communists
<i>Jongsori</i>	Dec. 1937	Internal weekly of the Korean People's Army	Used for opposition to Japan through political·military learning materials and articles revealing brutal deeds of Japan
<i>Cheol-hyeol</i>	1939.	Bulletin of anti-Japanese Youth League within the Korean People's Army	A weekly newspaper featuring breaking news, used to promote anti-Japan ideology

Saenal, the first publication of North Korea, targeted young people and the general public to stress the need for opposing to Japan and the contradictory nature of class society, with an aim to strengthen societal solidarity. For example, it carried an article entitled “How landlords came into existence.” *Seo-gwang*, *Jongsori*, and *Cheol-hyeol* were also intended to reinforce societal cohesion through learning and cultural resources that highlight the role of the Korean People's Army, the leading force in the anti-Japan movement, and to instill a sense of cause among members of the Army. They feature such articles as “The mission of the communists of Korea” (*Seo-gwang*), “Why I joined the guerrilla unit” (*Jongsori*), and “I pledge to become a better learner” (*Cheol-hyeol*). It is suspected that as newspapers, published in the late 1930s primarily targeting the members of the Army, became weeklies, it allowed them more carefully planned editing.

2.1.2 Post-colonial Period

Table 2 Major North Korean newspapers during the post-colonial period

Name of Publication	First published in	Characteristics	Major content
Rodong Sinmun	Nov. 1945.	Bulletin of the Central Committee (KWP)	Commentaries on the KWP's policy line, and propagation of the Juche Ideology and outcomes achiev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construction, education, and culture * Published daily in 6 pages and 1.5 million copies
Minju Joseon	Jun. 1946.	Bulleti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he cabinet	Commentaries on government policy, e.g.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external propaganda, etc. * Published 6 times a week (4 times in 4 pages, and 2 times in 6 pages)
Cheongnye-on Jeonwi	Apr. 1946.	Bulletin of the Kim Il Sung Socialist Youth League	Commentaries on and propagation of the Juche Ideology, introducing/publicizing projects undertaken by Youth Leagues, etc. * Published 6 times a week in 4 pages
Pyongyang Sinmun	Jun. 1957.	The capital newspaper	Representing the KWP's position, providing cultural resources on class and collectivism as well as useful information for daily life, etc. * Published 6 times (except Mondays) a week in 4 pages

Name of Publication	First published in	Characteristics	Major content
Gyowon Sinmun	Apr. 1948.	Newspaper on the education sector	Commentaries on the KWP's education policy, introducing /publicizing best practices of educators revolutionizing and becoming members of the laboring class, etc. * Published weekly in 4 pages
Munhak Sinmun	Dec. 1956.	Bulleti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Korean Writers Alliance	Commentaries on Juche-oriented literary ideas and theories, editing/introducing literary and art works, etc. * Published weekly in 4 pages
Tongil Sinbo	Aug. 1972.	Newspaper speaking for nonpartisan representatives	Targeting domestic and overseas compatriots to address, introduce, and propagate issues concerning reunification and South Korea, etc. * Published weekly in 6 pages

Of the major newspapers listed in <Table 2>, *Rodong Sinmun*, *Minju Joseon*, and *Cheongnyeon Jeonwi* are known to be the top three North Korean Newspapers, on each of which more details are described below.

① *Rodong Sinmun*

Rodong Sinmun, the bulletin of the Central Committee (KWP) published by *Rodong Sinmun-sa* (company), was first published on November 1, 1945 with the title *Jeongro*, and was given its current name on September 1 in the same year. Reputed as the “Joint Chiefs of Staff” of North Korean press, the newspaper basically functions to “carry out revolution-oriented reform of the society and persons, firmly binding the entire Party and all people around Kim Jong Il, and to fight to ensure political and ideological reun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ines taken by the KWP, as called for by the Great Leader's revolutionary notions and the Juche Ideology”⁴⁾.

It announces in its political articles and editorials North Korea's stance on major current issues and event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nation. The daily newspaper is published in total six pages including two slip sheet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Rodong Sinmun-sa* features

4) Encyclopedia Publishing Company (Ed). 1998. *The Grand Korean Encyclopedia* Volume 7. Pyongyang: Encyclopedia Publishing Company, p.489.

the editor in chie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who also automatically assumes the role of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f Korean Journalist Union, a senior associate editor, and three to seven associate editors, and comprises the editorial bureau, the KWP history cultivation bureau, the KWP involvement bureau, the revolution cultivation bureau, the South Korea bureau,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Besides issuing newspapers, Rodong Sinmun-sa organizes commemorative events on relevant occasions, and also produces publications such as collections of major editorials, daily logs of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events, and *Labor Correspondents* (노동통신원). On November 1, 2005, it hosted a briefing session in celebration of its 60th anniversary, where it pledged to fulfill its mission as the ideological flag bearer in the battle to realize the great task of Songun (선군, military-first) revolution.

② *Minju Joseon*

Minju Joseon was initially launched on October 15, 1945 as *Pyongyang Ilbo*, the bulletin of the people's committee of the south Pyeongan province, and was first published as *Minju Joseon*, the bulletin of the interim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on June 4, 1946. It has been published as the bulleti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he cabinet since September 1948.

The fundamental mission of *Minju Joseon* is “to arm workers and laborers of national and economic institutions with Kim Il Sung's revolutionary notions and the Juche Ideology and to firmly bind them around the Party and the Leader, organizing and mobilizing them towards the accomplishment of the Party's policy goals, thereby providing proactive support to the great cause of embodying the Juche Ideology in every corner of the society”⁵⁾.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features an editor in chief and four associate editors, and comprises the editorial bureau, people's administration bureau, industrial bureau, social and cultural bureau, regional news bureau, photo department, and accounting department. Being the government's bulletin, it carries more articles on administrative affairs than those related to the Party. Its main source of information is Korean Central News Agency, as well as the press

5) Encyclopedia Publishing Company (Ed). 1999. *The Grand Korean Encyclopedia* Volume 10. Pyongyang: Encyclopedia Publishing Company, p.97.

department, international bureau, and other departments of *Rodong Sinmun*. It is usually issued in four pages, except on Tuesdays and Fridays, and on other extraordinary occasions when it is published in six pages.

③ *Cheongnyeon Jeonwi*

Cheongnyeon Jeonwi is the bulleti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Kim Il Sung Socialist Youth League which was published on January 17, 1946 with its initial title *Minju Cheongnyeon*. Following the change of name of the institution from Korean Democratic Youth League to Korean Socialist Labor Youth League in its fifth congress on May 12, 1964, the publication was renamed as *Nodong Cheongnyun* (Labor Youth), and in January 1996, when the institution changed its name to Kim Il Sung Socialist Youth League, the newspaper was again renamed to *Cheongnyeon Jeonwi* on the 19th of the same month. The newspaper is committed to “eaching and propagating the immortal Juche Ideology among youths, nurturing them to be reliable successors with infinite loyalty to the Party and the Leader who will take on the great task of Juche revolution, and to powerfully organizing and mobilizing young members of the public towards reinforcement of the position and policy goals of the Party”⁶. *Cheongnyeon Jeonwi* is deemed to be the Party's tool for propaganda that is responsible for some of the Party's organization, propagation, and agitation programs aimed to orient young people to follow the Party's directions.

As outlined above, since the launching of the KWP in October 1945, a number of newspapers, including the Party's bulletin, the bulletin of the cabinet, and newsletters of workers associations, have been published. They share the common feature that their first and foremost mission is to reinforce the position and policies of the KWP. Although detailed features of each newspaper are difference, a lack of diversity in content is observed in that they all strictly abide by the Juche Ideology while being under thorough control of the Party.

6) Encyclopedia Publishing Company (Ed). 1999. *The Grand Korean Encyclopedia* Volume 21. Pyongyang: Encyclopedia Publishing Company, p.31.

1.2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Journals Published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not only the newspapers as described above but all other publications including generic academic journals are subject to the Party's thorough control and multiple stages of censorship, and therefore publications with ideological content in contradiction to the Juche Ideology or the Party's principles are effectively banned in the first place. This, in effect, constrains freedom and creativity in academic inquiries, and academic values of information are above all required to help raise the socialist productivity in accordance with parallel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economy. Acquisi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resources in North Korea, which forms the basis of academic distribution, is called the scientific technology information business. It focuses on thorough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all relevant resources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books, journals, invention · creation design resources, dissertations, industrial catalogs, and specification documents. scientific technology information bodies in North Korea are both sectoral and hierarchical, featuring the Central Science Technology Intelligence (CSTI), the central organization; sectoral science technology intelligence agencies organized by the cabinet committee, government departments, and other central agencies; regional information units organized under the administration and economic affairs committee of each province; and the lowest-ranking information units affiliate to factories, business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ese organizations work together seamlessly across tiers. Scientific technology information journals refer to magazines that carry articles on the development trend (trend research) of North Korea-produced scientific technologies, and selected resources on progresses made in relevant areas. They are also targeted at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who work on the collection, analysis, and stud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resources both from home and abroad. It is observed that these journals in North Korea are sometimes classified into different categories including translated journals, trend journals, index journals, and abstract journals, depending on the featured content, and classified as domestic journals or overseas journal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production.

Domestic journals, published by the CSTI, mainly feature articles on invention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in North Korea, while overseas journals specialize in specific

areas such as physics, mathematics, biology, and automobiles. Overseas journals include adapted resources, abstract resources, and index resources edited from translations of texts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trend and progresses made in foreign countries. In practice, the subjec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s mainly journals in relevant areas, but overall, it deals with science and technology literature in general. The kinds of science and technology literature in North Korea are summarized in <Table 3>.

Table 3 Types of North Korean scientific technology literature

Type	Primary literature	Secondary literature
Published literature	Books and booklets	
	Textbooks, official publications, academic papers	Reference books (encyclopedia, manuals)
	Serials	
	Periodicals, serials, newspapers	Published bibliographies·abstracts, overviews
	Specific technology literature	
	Patent documents, standardization documents, industrial catalogues	Invention index (abstracts), standardization index (abstracts), industrial catalogue index
Unpublished literature	Unified resources on science and research projects, design documents, dissertations	Academic paper index (abstract) card, dissertation index (abstract) card, design documents index card

2.2.1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Journals by Discipline

<Table 4> shows the list of all journals published in North Korea per discipline. Major journals across disciplines include 『*Workers* (근로자)』 (an organ of the KWP Central Committee, launched in Oct. 1946), 『*Chollima* (천리마)』 (a magazine for general public, launched in Jan. 1959), 『*Laborers* (노동자)』 (an organ of the General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launched in Feb. 1948), 『*Agricultural Workers* (농업근로자)』 (an organ of the Korean Agricultural Workers Union, launched in Apr. 1965), 『*Youth Life* (청년생활)』 (an organ of the Kim Il Sung Socialist Youth League, launched in Jan. 1948), 『*Korean Literature*

(조선문학)』(an organ of Korean Writers Alliance, launched in Sep. 1946), 『*Korean Art* (조선예술)』, 『*Korean Architecture* (조선건축)』, 『*Korean Films* (조선영화)』(publication ceased in 1998), 『*Youth Literature* (청년문학)』, 『*Children's Literature* (아동문학)』, 『*Poetry Literature* (시문학)』, 『*Dramatic Literature* (극문학)』,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조선어문)』, 『*Study of Philosophy* (철학연구)』, 『*Science on History* (역사과학)』, 『*Political Knowledge* (정치지식)』, 『*Party Involvement* (당 생활)』, 『*New Executives of the Party* (당 초급간부)』, 『*Korean Women* (조선여성)』, 『*People's Education* (인민교육)』, 『*Economic Management* (경제 관리)』, 『*The World of Science* (과학의 세계)』, 『*Physical Education* (체육)』, 『*Trade of Our Country* (우리나라 무역)』, 『*Juche Methods of Agriculture* (주체농법)』,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 『*Automobile Engineering* (자동차공학)』, etc.

Table 3 North Korean journals per discipline

Scientific technology	Construction,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Economic Management, Bulletin of the Academy of Sciences, The World of Science, Mining Industry, Light Industry, Mining Industry and Coal, Metals, Metals and Mining Engineering, Machinery,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Machine Making,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Natural Science, etc.), Agricultural Machinery, Agriculture, Land and Maritime Transportation, Forestry, Physics, Physics·Mathematics, Inventions and Patents, Official Journal of Invention, Use of Radioactive Isotope, Textile Manufacturing, Analysis, Analytical Chemistry, Forestry Science, Coal, Biology, Marine Products, Fishing Industry, Veterinary Science and Livestock Industry, Mathematics, Mathematics and Physics, Food, Pharmacy, Medicine, Daily Necessities, Electricity Automation Engineering, Automobile Engineering, Electronic Automation, Electrical Power, Electronics, Korean Architecture, Juche Methods of Agriculture, Juche Medicine, Heavy Industry, Geographical Science, Geology, Geological Science, Geologic and Geographic Science, Mining Engineering, Railway, Pulp and Paper, Chemistry, Chemistry and Chemical Engineering
Political theory	International Involvement, Workers, Agricultural Workers, South Korean Issues, Laborers, Party Involvement, Political Knowledge, New Executives of the Party
Literature and Art	Dramatic Literature, Poetry Literature, Children's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Korean Fine Art, Korean Films, Korean Art, Korean Music, Youth Literatur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tudy on Economy, Science on History, Study on Korean Language, Social Science, Study on Korean Archaeology, Korean Linguistics, Study on Philosophy, People's Education
Youth and women	College Students, Projects of Kim Il Sung Socialist Youth Alliance, New Generation, New Hope, Science for Boys, Guidebook for Boys Association (소년단지도원), Our Fellows (우리동무), Korea, Youth and Students, Korean Women, Youth Living, Physical Education
General	Chollima
Picture Book	Korea
Overseas and Others	Youth of Korea, Korean Academic Information, Korea, Korean Picture Book, Unification Commentary, The Juche Ideology, Juche Ideology Research Society, Nation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Trade of Our Country

In North Korea, most journals are also published by and for specific organizations, with the exception of *Chollima*, the only magazine for the general public. The KWP has its institutional magazine, *Workers* and other major organizations/institutions have their respective publications. Due to the notion that two or more journals published in the same area/discipline is a waste of national resources, the number of magazines for each area/discipline is limited to one. As a result, the number of serial publications in North Korea has recently reduced to around 70 to 80 titles. Some of the major magazines are introduced below.

The monthly *Workers*, a theoretical magazine for the KWP Central Committee published in 300,000 copies each month, uses medium-quality paper and is 90 or so pages in volume. Its publisher was Rodong Sinmun-sa when it was first launched in October 1946, but currently it is published by Geulloja-sa (근로자사, literally meaning Workers Company), an affiliate to KWP Publishers. The publication of its international edition ceased in 1992. The purpose of the journal is to inform on policy issues involving executive members of the KWP and to suggest ways of accomplishing policy goals; publicize the positions and policies of the Party; help entrench Kim Il Sung-centered unitarian ideological structures; improve knowledge of communism among the Party's executive and other members and the working public; and to fulfill the role of the organizer/propagator for the KWP Central Committee. Under these principles, it mainly features editorials and monographs aimed at the promotion and execution of the Party's policies, and its themes largely focus on theoretical explanation of the Party's policies, the fundamentals of revolution, justification of idolization and hereditaryness, international experience of communism, and reunification issues, among others. Besides those articles, it carries contents on the literature, discourse, letters, and speeche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 representative example is Kim Jong Il's 1991 editorial entitled 'Our people/public-oriented socialism is undefeatable'.

The monthly *Chollima*, the only North Korean magazine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is published by Chollima Editorial Committee, a publishing house specializing in literature and art. The magazine is printed in 90 or so pages using medium-quality paper. It was first published in 1959 to popularize the Chollima movement. Its mission is to help educate people on communism; propagate the positions and policies of the Party, particularly newly formulated ones; stimulate the struggle among people for the accomplishment of policy goals;

and to encourage people to participate actively in socialist movement on effort and competition. Its content is broadly categorized as worship for the regime, reunification issues, useful tips for daily life, etc. and is featured in essays, traveler's journals, introduction of the relics of revolution, reader's opinion, poetry, serial novels, and editorial cartoons, among others. In particular, its recent series of articles on women's clothing, make-up, and hairdos drew much interest. Other articles include those on historic places and heritage of North Korea. It usually carries some 20 photographs.

2.3 Current State of Rojak of and Major Resources on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side from the 100 or so North-published periodicals, there are approximately 10,000 book-type resources which have been brought into South Korea, an estimate based on the holdings of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hich has the largest volume of northern resources in South Korea. Of those, books that exert practical dominance over discourse within North Korean society are work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otherwise known as Rojak (meaning 'laborious work'). The term Rojak used in North Korea is Nojak in South Korean orthography. Nojak is a term that comprehensively refers to all publications containing the ideological and theoretical guidance of Kim Il Sung, the national founder, and Kim Jong Il,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⁷⁾. In North Korea, all writings, works, and speeche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even outcomes of meetings are referred to as 'classical Nojak', qualifying them as Nojak in its broad sense. North Korea maintains that the 'laborious works' of Kim Il Sung "compile the idea, theory, and methodology of Juche that represents today and tomorrow of communism, while revealing all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revolution and construction - including the struggle towards national and class liberation, construction of communism, and global revolution - and ways to resolve them." North Korean dictionaries, of course, do provide other definitions of the word Nojak, as those used in South Korea, such

7) Social Sciences Publishing Company (Ed). 2006. *The Grand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 (1). Pyongyang: Social Sciences Publishing Company. p.1410.

as ‘writings or works accomplished as a result of much effort’, and ‘to work industriously and effortfully’.

Articles and other writings published by Kim Jong Il are also called Nojak. Kim Jong Il has published a number of statements, monographs, and letters since the death of Kim Il Sung in July 1994, to date. What North Korea considers his most representative ‘laborious works’ include the article entitled “Socialism is a science” dated on November 1, 1994, and “Prioritizing ideological undertakings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fulfilling the great tasks of socialism” from June 19, 1995. His article published on October 2, 1995 under the title “The Korea Workers Party belongs to the Great Leader Kim Il Sung” is another much talked-about ‘laborious work.’ The monograph “Let us thoroughly uphold the dying injunctions of national reunification left by the Great Leader, Kim Jong Il” dated on August 4, 1997, which is also known as 8.4 Nojak, is recently one of the best-known ‘laborious works.’

Since book-type resources are usually vast in content and scope, neither a generalized introduction, as that of periodicals, nor a stereotypical categorization is easy. Below is an overview of resources that would help gain a basic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publications.

① *Korean Central Yearbook*

Korean Central Yearbook (조선중앙년감) provides the most basic reference for North Korean studies. It used to often carry statistical data of individual areas, but since 1972, no such statistics is introduced. It mainly deals with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policies of the year pursued by the KWP and the government,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It has been published by Korean Central News Agency since 1949. In particular, it features speeches, monographs, and activities of Kim Il Sung, the Great Leader, and Kim Jong Il,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long with contents on major national event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foreign relations.

For example, it is observed that its 1999 edition has different chapters including ‘domestic affairs’ - which is further divided into subsections including ‘geography and history of Korea (North)’,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xternal relations’, ‘national reunification and North-South relations’, ‘South Korea, the colony of the US’,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compatriots in Japan', 'international affairs', and 'documents and resources.' In addition to speeches and remarks by Kim Il Sung and Kim Jong Il, the Yearbook also contains important resources including statements released by the government and the foreign department, and decisions made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② *The Grand Korean Encyclopedia* and other dictionaries

These resources provide comprehensive reference material on the overview of North Korea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Scientific Encyclopedia Publishing Company completed the publication of the 30-volume *Grand Korean Encyclopedia* in mid January 2006, 38 years after the preparation for its compilation began in 1964. It is known that the *Grand Korean Encyclopedia* project had been underway since 1964 with 'special interest and direct guidance' of Kim Il Sung, and its compilation began in full swing in 1988. The publication of the total 30 volumes was completed in 2006, and it became the most frequently used North Korean reference in South Korea. Scientific Encyclopedia Publishing Company and Korean Computer Center are known to have produced an electronic version of the *Grand Korean Encyclopedia* which has yet to be published officially.

In addition to the well-known year books, monographs such as dictionaries and encyclopedias, newspapers, and periodicals introduced above, North Korea also produces and supplies a number of projected materials and electronic resources. The projected materials, in particular, are attached with great importance for the socialist country as a tool for communicating national ideology and policies, and a means of education. With great interest in the IT industry as a driving force of national development, North Korea is also putting much effort in areas of e-libraries and e-resources, but with seemingly limited success.

3. Purchasing Routes and Major Handling Agencies of North Korean Resources

3.1 Distributors of North Korean resources in South Korea

In South Korea, only 「special resources handling agencies」 are allowed to acquire North Korean resources, and therefore sellers (agents) and acquiring entities are required to hold the status of special resources handling agencies. In this view, currently Nambook Trading Company and Asia Journal, both special resources handling agencies, are two representative domestic buyers of North Korean resources. In addition to these two companies, there is Daehoon Books which is better known as the first bookshop in South Korea specializing in North Korean books, rather than a distributor. Brief introduction of these agencies is as below.

1) Nambook Trading Co. Ltd (www.nambook.co.kr)

Nambook Trading Company, formerly Ilweolseogak, a social science publisher, is a North Korean resources distributor established in December, 1990. It sells a range of North Korean publications including newspapers, magazines, books, and videos imported through China and Japan, and its core businesses include brokerage of inter-Korean commercial exchange and transactions and international supply of Korean studies resources. It qualified as a special resources handling agency in 1994. It used to import items from Guwal-seobang (구월서방, Guwal bookshop), a sole distributor of North Korean resources in Japan, in its early days, but since August 2001, its source of acquisition shifted to the Beijing office of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mpany in China. This meant a change in the route of acquiring newspapers and other periodicals - train shipment from Sinuiju in the North, Dandong, through to Beijing) - which allowed for North Korean newspapers to arrive in South Korea within three days. The company focused on books at the beginning, but more recently is performing stronger with newspapers and periodicals, positioning itself as an influential distributor of northern resources. Its annual sales revenue, however, indicates that it remains a small business due to the low domestic purchasing power of North Korean resources. Its website⁸⁾ offers an online shopping mall for North Korean books, but it is under-used due to

8) <http://www.nambook.co.kr/index.htm>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online for ordinary people to purchase. At one point after 2005, it exercised monopolistic rights over the supply of North Korean periodicals under the contract with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exclusive rights holder on northern publications, which afforded Nambook sole distributor (importer)'s status.

2) Asia Journal Co. Ltd (www.asiajournal.co.kr)

Although Asia Journal is a latecomer established in 2002, it is a specialized North Korean resources importer taking up half of the market along with Nambook Trading Company. In addition to North Korean publications, it purchases and distributes Chinese, Taiwanese, Japanese, and Russian resources, while providing North Korean information services such as *Rodong Shinmun* mailing service. The company, which was separated from Nambook Trading Company, shows a decent level of expertise on North Korean resources with relatively stable organizational structure. It used to purchase items mainly from Hagu-seobang and Guwal-seobang in Japan, but currently it is making purchases through the Beijing Office of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mpany in China. Its competitive edge lies in books and video items. It is also maintaining an online North Korean bookshop on its website⁹⁾.

3) Will Trade Co. Ltd

Will Trade, a subsidiary of UPA¹⁰⁾ is an importer and distributor of special overseas publications. UPA, a prominent importer/distributor of overseas periodicals founded in 1958, has supplied some 600 periodicals carrying various new information including daily newspapers and publications on a range of areas including current issues, economy, science, medicine, etc. In the 1990s, it launched Will Trade Company for the purpose of importing/distributing North Korean resources, mainly periodicals, which was a major competitor of Nambook Trading Company in the domestic market up until early 2000s. Since mid 2000s, however, it gave up its special resources handler status, in accordance with new market policies.

9) <http://www.asiajournal.co.kr>

10) UPA: Universal Publication Agency, Ltd. (<http://www.upa.co.kr>)

4) Daehoon Books

Daehoon Books, the first bookshop in South Korea specializing in northern books, opened its door on February 8, 2001 in front of Seoul train station, and has since been relocating to Korea Christianity Tower in Yeonji-dong, Jongno-gu, and to other places. Daehoon Books has taken the lead in disseminating North Korean books, including by selling 145 different books at 2000 Cheongju International Print and Publishing Expo, and organizing a North Korean Book Fair at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It imported *Lijosillok* (Yijo sillok) as well as integrated photographic editions of *Korean Literature* (1947-2000), a representative literary monthly on which Daehoon Books had organized an exhibition. Its other activities include import/distribution of the complete 30 volumes of the *Grand Korean Encyclopedia*, and one-off kind of events to promote awareness of North Korean books, which drew attention from the media. Keeping prices high in early days of its business, however, proved to be counterproductive, eventually leading to a drop in demand and hence profitability, a problem which continues today.

Kim Joo-pal, CEO of Daehoon Books, first took interest in collecting northern publications, when he heard someone say that “since the breakdown of the Berlin Wall, East Germany’s publishers went bankrupt and their books scattered, so it is extremely hard to obtain books published in East Germany”. He says he began collecting North Korean books thinking that Korea would be unified at some point in the future, so someone has to do the work. He added that he had spent 700 to 800 million won on books for ten years so he feels like he poured all his profit from the bookshop into buying more. His personal collection of North Korean books apparently comprises over 3,500 different kinds in some 78,000 volumes, offering a peek at his belief in collecting northern resources¹¹⁾.

Daehoon Books’ sales of its wide range of North Korean books had been targeted for the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such as North Korea experts, students, and people who have been displaced out of their homes in the North, rather than on special resources handling agencies. Books sold by Daehoon Books were mostly selected items that had been classified as non-political and non-ideological. Those resources were available for anyone to purchase for unconstrained use. Despite much effort put in, the sudden decease of CEO Kim Joo-pal in

11) Hankook Ilbo Mar. 12, 2001 People/Biography page 27 (42nd edition)

2009 and aggravated sales have forced it out of business. Daehoon Books later changed its name to Best Friend Book. It created a subsection named 'NS One Korea' dedicated to northern resources, which obtained the special resources handler's status. Its performance so far, however, has not been very visible.

5) Other companies

Other than the companies described above, there seems to be no visible player. It is known that Joongwon Corporation (중원기업) and Tong Yang Moolsan Co. (동양물산기업) had registered as special resources handlers under the mandat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th subsequent sales activities for a while. Recently, however, they show little sales record of special resources, indicating that they may not be active any more. Ohpeople.com Co.,¹²⁾ a domestic merchant trader which has made a major contribution to the acquisition of North Korean resources, organized and sponsored a North Korean Book Fair held in Harbin City, Heilongjiang Province in February 2001. The fair was co-hosted by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and Huipo Trade Limited. in Yanji, China (엔지휘포무역유한공사), and similar exhibitions of North Korean books are still held multiple times a year at different locations in China¹³⁾. Some of the books from the fair were brought into South Korea and sold to som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mong those items were some 400 university textbooks published after the 1950s, limited editions with historical values. Headquartered in Seoul, Ohpeople.com contacted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other North Korean organizations through their branch offices in Syenyang and Yanbian, China. It continued its northern publications import business, including by purchasing the resources of the Central Science Technology Intelligence (CSTI), before going through downsizing due to the recent problems in South-North relations. Currently, it is operating under a new name Bookpeople.com Co.

Garden Total Trade Co. (가든종합무역) has been involved in similar types of trade

12) <http://www.ohpeople.com/>

13) North Korea holds commemorative books exhibitions at different locations in China as well as in North Korea around the birthdays of Kim Il Sung (Apr. 15) and Ki Jong Il (Feb. 16). They usually focus on exhibiting photographs of the father and son and their so-called *Rojak*, such as *Collection of Kim Il Sung's Writings*, and *Anthology of Kim Jong Il Writings*. The exhibitions are not very large in size, usually occupying 20 to 30 pyeong (66 to 99 square meters) with around 2,500 books on display.

transactions to that of Ohpeople.com. Garden Trade was one of the major distributors of North Korean publications and other products from the North until the 1990s, but it appears rather inactive in recent days. Another special resources handler is Tong Yang Moolsan's Cultural Business Department which deals with North Korean newspapers, but with seemingly little visible business operations. Book4949 (www.book4949.co.kr), an online company run by Exsidian Co., has a 'special books' section on their website with some 1,200 items many of which are from the North. They include rare items such as those on the Korean War published around the 1950s and literary texts, and thus are worth reference. The company, however, is not a registered special resources handler, and therefore purchase of those items by individuals may have legal consequences.

3.2 Overseas distributors of North Korean resources

Overseas distributors of North Korean publications are linked to the North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nd in part under North Korea's control. In the North, production of publications are basically controlled by General Publications Bureau under the cabinet. It is well-organized and systematically managed as shown in <Figure 1>, where the Bureau Chief supervises Associate Chief and Head of Distribution, with different bureaus for the capital city and each province. It has a separate scientific research center for publishing and printing, print machinery plant, and print chemical plant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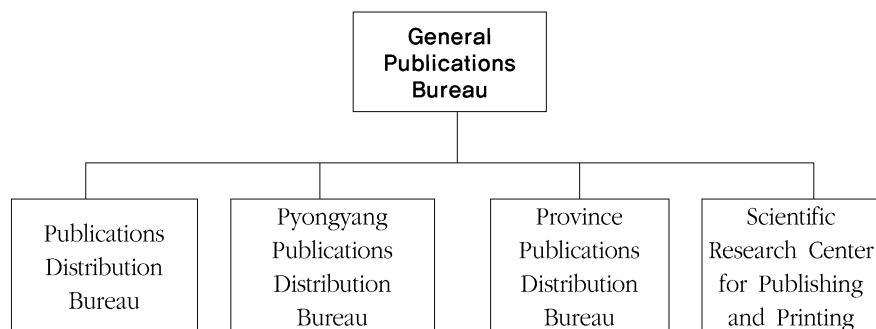


Fig. 1 Organizational structure of North Korean publishing industry

14) <Figure 1> has been adapted from relevant description on 'General Publications Bureau' in Dictionary of names of North Korean personnel by institution/organization (p.108, Ministry of Unification, 2010)

Overseas export of publications produced in North Korea is managed by the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unde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General Publications Bureau, but recently individual publishers including Pyongyang Publishers Co. is making contact with domestic publishers. This lack of unified channel for importing northern publications is a source of many problems¹⁵⁾. Currently, most of North Korean publications imported from overseas are bought from bookshops in China, Japan, Hong Kong, the US, Canada, etc. run by pro-North Korean organizations. The following section outlines some of these major overseas distributors which continue operation today in different regions, particularly in China¹⁶⁾.

1) Beijing Office of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as briefly described above, is a publications trading organ of General Publications Bureau under the cabinet and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is known to be approximately 200. Its president receives treatment afforded to a director general (국장). It has an affiliate publisher named Koryo Munhwasa Co. which prints and publishes writings upon com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In particular, 'Koryo e-publishers Co. (고려전자출판물사)' which was founded in 2002 and has approximately 30 PCs, also affiliate to Koryo Munhwasa Co., produces and sells commissioned works in CD-ROM or electronic formats.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s Beijing Office is also known as Beijing SunYong Scientific Technology Trade Ltd. (北京鮮榮科貿有限公司), its corporate name. The phrase SunYong (鮮榮) in the name means glorious Korea. The firm was founded in May 2001, and has eight employees. It was once the host of the North Korean Book Fair as part of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since 2002. The firm, which is handling as much as 60% of total external trade volume of northern publications, has integrated all the isolated and

15) Issues concerning copyrights and domestic publication of northern resources are and will likely be subject to debate. These important issues are discussed in a different chapter.

16) I attended the North Korean Books Exhibitions held in Harbin (Feb. 2001), Yanbian (Aug. 2001), and Beijing (May 2002), where I met and talked to Shin Hak-cheol, Vice President, Kim Gil-hyeon, a director, and Hong Ryong-gil, Beijing Office manager of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It is to be noted that the information below concerning China have partly been obtained from my conversation with them.

scattered distribution channels in an orderly manner centering around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and Beijing SunYong Scientific Technology Trade Ltd. Although the Office is acting as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s Beijing Office, given the zero investment from the Company, it may be considered to be an agent rather than a branch, in western business concepts.

In the past, most North Korean resources were imported through Japan, but the launch of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s Beijing Office in 2001 significantly reduced the time taken for the resources to arrive in South Korea. Moreover, North Korean resources are being sold on the Internet; Korean Info Bank¹⁷⁾, which is operated by Pan-Pacific Economic Development Association of Korean Nationals, has a sub-menu named 'DPRKorea Infobank'¹⁸⁾ which offers purchasable resources. Nevertheless, it is more efficient to use the website of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s Beijing Office¹⁹⁾, as it offers a list of items that are actually available for purchase. Procedural difficulties, however, remain, including the mandatory approval on contacting North Korean residents which must be obtained in advance of making online an contact under THE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ACT²⁰⁾.

It is trading with South Korea's Nambook Trading Co. and Asia Journal, and direct transaction is known to be possible. In case of direct transaction under a contract with an individual special resources handling agency, however, there is no support available for shipment and customs clearance. In addition, subscribing a small number of publications might not be very profitable given the high unit cost and greater work involved, and therefore, careful consideration is needed.

China's proximity with North Korea including the border areas and the large number of ethnic Koreans residing in the Three Provinces in Northeast China provide several bases other

17) <http://www.korean.dprkorea.com/>

18) <http://www.book.dprkorea.com/korean/>

19) <http://www.korea-publ.com/>

20) Email correspondence or telephone communication with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s Beijing Office is not difficult, since the president is an ethnic Korean who speaks fluent Korean. It is to be noted, however, that the president, although being a Chinese national, is representing a North Korean organization, and therefore consulting relevant authorities prior to making business contact with the company is recommended in order to avoid possible troubles.

than Beijing through which to collect North Korean resources. The Yanbian area, in particular, is important as a mediating location for academic exchange and a bridg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heonji Publishing Co. (천지출판사), Yanbian Publishing Co. (연변출판사), Minjok Munhwasa Co. (민족문화사), and other publishing houses operated by ethnic Koreans, several North Korean bookshops including Shinhwa Bookshop, Yanbian Library, and Yanbian University Central Library are potentially important channel for obtaining northern publications. Xita and nearby areas in Shenyang which are populated with a large number of ethnic Koreans are also worth attention, since they have North Korean bookshops, together with high quality infrastructure such as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making them a much talked-about alternative for Yanbian²¹⁾.

2) Japan-based Guwal-seobang, Hagu-seobang, and Rainbow Trading

Geographically, Japan is more distant to North Korea than China, yet there is closer support for the North. This is because North Koreans residing in Japan stand strongly united centered around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²²⁾, and are subject to direct orders and supervis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such, bookshops in Japan led by the General Association are not only engaged in distribution of items produced in the North, but they also produce resources themselves for sales. Two major bookshops run by the General Association that deal with northern publications are Guwal-seobang and Hagu-seobang, and they are operating with close ties with Korea News Company (조선신보사)'s Division of Book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both businesses features a vice president and an advising panel. Guwal-seobang has department of management and distribution, and department of resources, while Hagu-seobang has editorial department and publishing bureau.

Hagu-seobang, established in May 1949, is the oldest (63 years) bookshop and publisher of North Korean resources which distributed Anthology of Kim Il Sung writings for the first time

21) Some firms, operated by ethnic Koreans in China and which acquired publication rights from North Korea, sell North Korean resources to South Korean publishers and entrepreneurs. They are based in Beijing (Lee Choon-il: CEO, Shinhong Youngshi Cultural Development Co. Ltd. 北京新弘影视文化发展有限公司), Shenyang (Jeon Jeong-hwan: Director, Koryo Nation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and Yanji (Kwon Soo-dong: CEO, Huipo Trade Ltd.),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South Korea's acquisition of northern publications.

22) <http://www.chongryon.com/index-k.htm>

and other various 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across Japan. Currently it focuses on textbooks including those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run by the General Association, and textbooks for adult schools.

Guwal-seobang, a business run by the General Association launched on Apr. 1, 1954, is a sole distributor of all publications, videos, CDs, games, and other items published/manufactured in and exported from North Korea. Nambook Trading Co. and Will Trade Co. used to also rely in most part on Guwal for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of northern publications in South Korea. Currently, however, as acquiring resources through the Beijing Office of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particularly periodicals, is more convenient, these bookshops are not as influential as they were in the past. Nevertheless, they are still useful sources of information for individual institutions of North Korean studies or for those seeking specific resources. Many researchers of North Korean studies do, in fact, make it a rule to visit these bookshops when visiting Japan²³⁾. They are currently operating Korea Book Center, named after the Internet domain name koreabookcenter used since 1995, in their proprietary building, Korean Publication and Culture Hall.

Another bookshop, which is increasingly known as having valuable resources, is Rainbow Trading Co. (レインボー通商)²⁴⁾. It deals with books from North Korea and ethnic Koreans in China, and is located at Kanda Jinbocho (神田神保町), a street in Tokyo filled with secondhand bookshops. The bookshop, also known as ‘little Pyongyang’ is run by Miyakawa Zun (宮川淳), a Japanese national whose perception of North Korea is not so favorable but whose business made him a knowledgeable North Korean ‘expert’. It is not very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Miyakawa the manager²⁵⁾ over telephone or email, because he speaks and understands some Korean. His connections with North Korea began when he worked as an assistant for a company which had exclusive rights for selling the 1992 North Korean edition of Joseon Wangjo Sillok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ince then, he engaged in

23) The management of Guwal-seobang falls in the hands of Chairman of Korea News Company (www.korea-np.co.jp/korea). A separate website for Korea Book Center (www.nrbook.net) has been under operation since November 1995, where it provides for online transactions.

24) <http://www.rainbow-trading.co.jp>

25) The manager used to visit North Korea about twice a month and provided South Korean personnel with a number of northern resources which are hard to get from agents. It is known, however, that he is not very active lately, following a controversial press report in Japan.

different business activity involving North Korea such as tourism for Japanese travellers, through which he came to become a reputed North Korea 'expert.' Purchases can be made online as well as offline, making it convenient to buy items in small quantities. In fact, the manager, as a Japanese national who could travel freely to and from Pyongyang, obtained and supplied a number of rare publications of the North, which earned the bookshop high reputation among scholars of North Korean studies. It has been known, however, that due to frictions with North Korean authorities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the publications, it has currently shifted its source of items to Beijing SunYong Scientific Technology Trade Ltd.,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s Beijing Office. Other companies which sell North Korean resources online include Tangun Asia Film²⁶⁾ which deals with video items from North Korea including movies.

In summary, the General Association is playing a pivotal role in Japan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northern resources of northits so-called 'Businesse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ing forward, given the history and traditions of Japan, acquisition of more in-depth northern publications would require more earnest investigation of Japan-based bookshops and publishers.

3) US-based Koryo Trading Company

Koryo Trading Company is known as the US agent (15417 S. Western Ave., Gardena CA 90249) for Korean Publication Interchange with Foreign Countries. Kim Byung-joo, the CEO of the company and a North Korea advocate in Southern California, founded it in 1985 and has since imported and distributed in the US not only North Korean publications, but other products including health foods. Kim has long been providing US libraries and universities with North Korean promotional materials. His recent effort to establish Korean Central TV (KCTV), a state-run media organization of North Korea, in LA drew much attention. He has been named the sole distributor in the America of products of Korean Publication Interchange with Foreign Countries (newspapers, magazines, and books) and Korean Film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films), both the North's public enterprises, and continues to be an influential figure in businesses concerning North Korea. The company has approximately

26) <http://www.tangun.co.jp/moviekr/>

20,000 northern books on different subject areas including liberal arts, social sciences, fine art, performing art, film, thesauri, annuals, picture books, photo books, and academic papers, 600 North Korean movies, and some 100 CDs and cassette tapes. It is one of the largest bookshops dealing with northern publications. Its items are also available for online purchases²⁷⁾.

While pro-North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etc. have engaged in northern publications sales activities at different locations, they were hardly successful due to low profitability and weak support from the North. It appears that few companies other than Koryo Trading Company is an active player in the scene. Notwithstanding the high cost for shipment, such as airfare, that makes the companies in this region a less attractive source of northern publications, they are still worth attention in that the resources are more freely circulated than in other regions²⁸⁾.

3.3 Major domestic/overseas collecting institutions of North Korean publications

In addition t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Unification Ministry's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there are 173 special resources handling agencies across South Korea. That they are special resources handlers does not mean that the resources they hold are all original publications from the North; the quantity of other domestic/overseas resources concerning North Korea is larger than that of original northern publications in most of the institutions. The difference would be the usual practice where original northern publications are kept in a separate location in the library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n handling special resources. As a matter of fact, domestic/overseas resources concerning North Korea are more frequently utilized than the originals for research purposes, with relatively greater influence. Most of the institutions, however, with limited budget and lack of organizational support, can only purchase a limited number of publications on North Korea through the agents or bookshops described above, and full-fledged acquisition of the

27) http://www.koreansuperpages.com/koryo_trad/default.html

28) Even though circulation of North Korean publ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is subject to constraints, some US libraries including the Library of Congress and UCLA library, have collections much larger than those in South Korea. ('Little Korea' in the UCLA library/Choi Yong-sun, Oh My News Jan. 16, 2002. See www.ohmynews.com).

items through direct import or direct transaction is extremely difficult.

Some ten institutions including government bodies such as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which has been making a long-term investment with a large budget and relevant organizations in pla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sia Culture Studies (which played an important part in securing fundamental resources for North Korean studies by means of acquisition,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NARA resources) are especially active collectors of North Korean resources. These institutions display several characteristics of the way overseas resources on the North are currently collected and utilized.

Institutional aspect: Among the institutions,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s considered the No. 1 collector of overseas resources and literature with superior expertise, budget, and workforce, but it focuses mainly on Korean history research, and is not as strong when it comes to resources on North Korea. The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oncentrates its research capacity on the study of Korean War-related themes, whil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hich operates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provides the list of North Korean resources. Aside from these public agencies, there are also a significant amount of work done by private research houses, individual researchers and publishers.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sia Culture Studies, in particular, is a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that has been consistently collecting, organizing, and compiling resources on the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for more than 20 years.

Historical periods covered in the publications: The content of most of the publications mainly concerns the post-independence period, followed by the Korean War period, the years right before independence, and the post-Korean War period. The majority of the content is on the post-independence period (three years after liberalization) and on the Korean War. Political topics are most frequently addressed, followed by military affairs. Inter-Korean and foreign relations and economic matters are also discussed substantially. Overall make-up of the resources shows a great proportion of US materials, which could be construed as indicating that US-originated resources are strong in most areas including politics, military, diplomacy,

and economy.

Furthermore, most of domestically available resources on North Korea have been produced in the US. One particular thing to note about the scope of the themes addressed in US-based resources is the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The records provide the most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resources for the study of North Korean history, and therefore they include a larger quantity of documents and publications produced in the North in the relevant time period than any collection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North Korea. It is welcome that as the disclosing of the government documents of former Eastern Block countries has meant increasing availability, albeit limited, of some important basic resources. Also, it is to be noted that resources from Japan, Germany, China, etc. have been rarely organized or utilized for research purposes.

4. Use of North Korean Resources

4.1 Use of digital resources related to North Korea

Whereas domestic use of North Korean resources is subject to constraint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guidelines on handling special resources, they can be used freely in foreign countries. The single biggest problem might be the difficulty of acquisition. As such, this section outlines digital resources of North Korea that can be easily accessed from overseas.

Amid great attention on e-book markets sparked by the success of Kindle, an e-book reader developed by Amazon, followed by the launch of Apple's iPad, it has been found that North Korea also has its e-book system operating at quite an advanced level. North Korea has recently opened its e-book system 'e-library Mirae 2.0' to the public. Mirae 2.0 is run on Microsoft Windows, and its starting page looks similar to common library search systems. Item categories listed on the left include 'Juche Ideology', 'Literary Works', 'Collection of Korean Songs', 'References for Writing', 'Grand Literature Dictionary', 'Grand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 'Grand Dictionary of General Knowledge', etc. and clicking on each category would unfold the sub-listings. 'Literary Works', for example, is further classified into

‘Antholog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thology of Korean Contemporary Literature’, ‘Collection of Korean Short Stories’,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for Children’, ‘Literary Works of Korea’, ‘Literary Works of Foreign Countries’, ‘Works of Children’s Literature’, etc. Upon clicking 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 it showed a list of works such as ‘Ilias’, ‘水滸誌 (All Men Are Brothers)’, ‘Collection of Shakespeare Plays’, ‘Don Quixote’, ‘Jane Eyre’, ‘Les Misérables’, ‘Works of Gor’kii’, and ‘Gone With the Wind’ which are also well-known in South Korea. In case of ‘Collection of Shakespeare Plays’, the entire content of the book which was published by Joseon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Co. (조선문예출판사) in 1991 can be viewed on a computer monitor. This system stores approximately 1,500 books and 350,000 documents in the areas of politics, literature, etc., a substantial amount of which, including contemporary North Korean literature, is assumed unknown to South Korea. Features of Mirae 2.0 include voice recognition, and keyword search for contents of books, lyrics, and thesauri. According to an official’s analysis, “copyright schemes which are less complicated in North Korea than in the South, and the direct influence of the authority on the publishers enabled them to secure large volumes of digital contents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²⁹).

<Table 5> lists names of North Korean periodicals available in CD-ROM formats, with almost all major magazines being in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Besides these resources, North Korea has also produced and published CD-ROM versions of *Korean Central Yearbook* (1970-2005), *Korean Literature and Art Yearbook* (1985-2003), *Mt. Baekdo, A Sacred Place for Revolution* (혁명의 성산 백두산), and *Grand Science and Technology Dictionary - Gwangmyeong* (2003), others. As for distribution in South Kore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DongBang Media Co. have jointly produced *Collection of Kim Il Sung’s Writings* (total 47 volumes) and *Anthology of Kim Il Sung Writings* and sold them through a domestic agent.

29) Yonhap News (Feb. 4, 2010)

Table 5 List of CD-ROM archives of North Korea-published periodicals

No.	Name of Magazine	Years	No.	Name of Magazine	Years
1	Study on Economy	1986-2005	16	Bulletin of the Academy of Sciences	1957-2005
2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History and Law	1997-2005	17	Metals	1989-2005
3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Language and Literature	1997-2005	18	Mechanical Engineering	1989-2005
4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Philosophy and Economics	1997-2005	19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Natural Science	1991-2005
5	Science on History	1977-2005	20	Physics	1962-2005
6	Study on Korean Language	1977-2005	21	Official Journal of Invention	1966-2005
7	National Culture and Heritage	2001-2005	22	Analysis	1989-2005
8	Journal of Academy of Social Sciences	1997-2005	23	Biology	1975-2005
9	Information Science	1991-2005	24	Mathematics	1962-2005
10	Politics and Law Studies	2003-2005	25	Preventive Medicine	2001-2005
11	Korean Literature	1977-2005	26	Electrical Automation	1991-2005
12	Korean Linguistics	1987-2005	27	Korean Pharmacy	2002-2005
13	Chollima	1977-2005	28	Korean Medicine	1991-2005
14	Study of Philosophy	1996-2005	29	Geologic and Geographic Science	1989-2005
15	Youth Literature	1977-2005	30	Mining Engineering	1969-2005

4.2 Web databases of North Korean academic resources and scholarly journals

There are two domestic companies operating database on North Korea: CNC (www.yescnc.com) and Korea Contents Lab. CNC offers DBs of North Korean academic resources, while Korea Contents Lab (<http://www.kclab.com/>) runs a Consolidated DB of

North Korean Academic Journals (<http://www.kpjjournal.com/>). They have either directly signed a digital publications contract with relevant North Korean parties or a copyright contract under the mediation of the Foundation of Inter Korea Cooperation, and are providing readers and institutions with original northern publications through online services within legal limits. Most of the resources are non-ideological items on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major content of CNC's DB outlined in <Table 6>. The items can be sold in individual DBs, and the company also provides latest updates regularly under a web service subscription contract or a license contract. Institutional service is provided using the IP band method through the Internet.

Table 6 Databases of North Korean academic resources

No.	Name of Database	Major Contents
1	Law	North Korean Law Books, North Korean Code, South-North Korean Agreement
2	Language & Literature	History of Linguistics, Lexis, Semantics, Phonetics, Grammar Theory, Stylistics, Appellation Theory
3	Cookery	Main Food Cookery, Traditional Cookery, Banquet Cookery, Dinner Cookery, Hunted Animal Cookery • Regional Cookery
4	Traditional Culture	Home & living, house, custom, clothing, traditional culture, traditional dance, craft
5	Proverbial Phrase Dictionary	About 8,700 proverbs 6,000 set phrases currently used in North Korea
6	Sites & Relics	Art works and tool patterns from ancient times to Koryo period
7	Central History Museum	Dawn of Joseon History, Ceramic Crafts, Tile & Brick Crafts, Wood Crafts, Metal Crafts
8	Mt. Baekdo	Fauna, geological feature, microbe, topography, meteorology-hydrology
9	Mt. Geumgang	Nature, history & culture, sites, chinese character poems, travel essays
10	Palaeobios	Biological and geological references (103 pieces of animal fossils, 51 pieces of plant fossils)

The Consolidated DB of North Korean Academic Journals, developed by Korea Contents Lab, is a website which offers original contents of North Korean academic publications. Its web-based service of original contents of North Korean academic journals, papers, books, and

collections published after 1945 in the form of e-books or web DBs are offered to public/university libraries, research houses, government bodies, etc. through authorized IP system. Individuals can also get a membership by paying e-subscription fees. The DB is jointly developed by Korea Contents Lab, Minjog 21 (South), and Korean Publicatio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North), respectively responsible for development and sales; liaison and clearing legal procedures; and internal consultation necessary for collection of selected contents and relevant actions to be taken.

The project to build the consolidated database is a cultural contents transmission project in which the two Koreas are to exchange agreement and contract for development directly with each other in Pyongyang - not via a third country - for the first time, and it represents the first official contract North Korea signed since their accession to the Berne Convention. It is also meaningful that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right of transmission', a newly introduced copyright term, are commonly acknowledged by the two parties. Most academic journals developed to date deal with those published since the 1960s, and they usually include items listed in <Table 5>.

4.3 Database of Physical and Human Geography of North Korea

Because of the repeated rearrangement of administrative units implemented about 60 tim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old maps and resources are little helpful to obtain information on specific regions. Most documents produced in South Korea concerning administrative units of North Korea were those from the pre-liberation period or isolated items produced after independence. Maps also lacked in accuracy significantly due to inconsistent geographical names and inexact demarcation, even though they were based on satellite photographs. Under this circumstance, in 1999, the Institute for Peace Affairs, with the initiative of Joseon Research Center for National Culture in China, reached an agreement for joint compilation of the *Encyclopedia of North Korean Geography and Culture* with Scientific Encyclopedia Publishing Company, its North Korean counterpart after multiple rounds of consultations. The publication of the 20-volume encyclopedia was completed in 2004. Considering the extremely lower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North Korea's physical

and human geography relative to other resources due to the North's closure policy in the past, the compilation of the Encyclopedia was a meaningful undertaking in that it created a channel through which to obtain relevant information to the maximum extent, and thus providing an important basis for North Korean studies and inter-Korean exchanges.

Database of North Korean Human geography, which was built based on the *Encyclopedia of North Korean Geography and Culture* by the Institute for Peace Affairs (www.ipa.re.kr) under copyright agreement from the North, from 2006 to 2008 as part of National Knowledge Management Projec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the largest DB on the northern geography that can be accessed free of charge by ordinary citizens as well as researchers. 480,000 pages of text resources, 28,000 photographs, and 340 video clips are currently being offered through North Korea Information Net (www.cybernk.net), as well as on the website of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unibook.unikorea.go.kr). North Korea Information Net, in particular, is the largest information portal on North Korea where digitalized information of all regions in the North is available; the information, classified as administrative units, physical·human geography, sites and relics, traditional culture, etc., can be easily searched and conveniently used.

4.4 Unification Ministry's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Current State and Services Available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is the largest library specializing i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topics, whose collection consists of over 100,000 items including some 69,000 books, 11,000 items of 150 periodicals, 3,000 digital documents, 7,000 audiovisual items, and 6,500 Ministry of Unification publications. Of those resources are some 30,000 original publications produced in North Korea, and some of very little-known rare items; North Korean resources dating back to before the 1950's are in themselves precious items, and the Center has over 300 of those. It also holds *Korean Central Yearbook* from after 1949, various northern textbooks including those used in People's Schools and universities, and microfilms of the documents seized by the US forces during the war times, as well as documentary films of

historical moments from the early years (1945-1950) of North Korean regime produced by the National Film Studio (국립영화촬영소). *Scripts of Dance Dramas* by Choi Seung-hee, North Korea's legendary dancer, published in 1958 is also held in the collection. Three Children's poems, unpublished in South Korea, composed by Baek, Seok, a poet who defected to the North, have recently been discovered in *Children's Literature* (1960), a periodical held in the Center's collection, drawing much attention. All these represent the Center's effort to discover valuable resources on North Korea and promote their usage. It is nothing but a nationwide responsibility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North, produced along the path of national reunification, as much as possible and hand it down to next generations.

Table 6 Resources held by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Category	General items	Special items	Total	Original northern publications
Books	54,496	14,073	68,569	17,640
Ministry publications	6,334	0	6,334	
Periodicals	7,424	3,392	10,816	4,322
Audiovisual resources	2,212	5,089	7,301	
Digital documents	2,572	431	3,003	
Other resources	896	539	1,435	
Limited-access resources	0	215	215	
Total	73,934	23,739	97,673	21,962

In addition to collecting resources, the Center organizes a number of public awareness programs, one of them being Informational Session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북한실상 설명회). This program provides a forum for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 specialists, college students, and general public to openly and freely discuss the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other areas of their interest. Launched in 1989 with its initial name Panel Discussion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북한실상토론회), it has been hosted about 550 times across the nation as of last year, with participation of some 50,000 students and citizens.

Another such program, a favorite of ordinary citizens as well as students, is the North

Korean Movie Meeting (북한영화상영회). The Center holds about 2,200 North Korean films, and has publicly played them over 8,000 times from 1990 to 2010. As for the popularity of different movies in different time periods, the 1980's saw the big hit of 'Balloon Flower (도라지꽃)'. This movie tells a story about a woman who sacrifices herself for the sake of her hometown. Oh Mi-ran, a people's actress who played the main character, was the winner of the best actress award at the first Nonalignment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favorite of the 1990s was 'Marry Me Please, City Girl (도시처녀 시집와요)' with some of its features similar to South Korea's Saemaeul Movement in the past and thus relatable to South Koreans. Its theme song, with the same name as the movie itself, is well known for being played by the Bocheonbo electronic band (보천보 전자악단), the most famous music performers in the North, and is light, simple, and easy to sing along. In the 2000s, people favored 'A Female Student's Diary (한 녀학생의 일기)', which featured a scientist's loyalty to the nation, and was presented at the Cannes Film Festival. 'A Smart Racoon (령리한 너구리)', an animation popula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any other films addressing many different themes are available at the Center.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has endeavored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reunification issues - as opposed to mere expansion and publishing of resources - with the underlying aim of promoting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situation and constructive ideas towards a reunified country, thereby restoring the homogeneity of the nation.

Issues concerning North Korea are not confined to the Korean n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come a globally relevant matter.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now pledges to renew itself for more expertise and openness by combining the specific topic 'North Korea' with global and universal features. The Center, celebrating its 21st anniversary, relocated to its current venue on the 5th flo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July 2009, after 20 years of operation at its Gwanghwamun location. It opened a new chapter in its history where it is set to provide better services to the citizens in a more convenient and spacious environment. It is hoped that the Center will develop as a dynamic place where people can look forward to hopeful future of the nation, instead of simply carrying the stories of the past. It is also anticipated that the Center will create links with relevant domestic as well as overseas libraries for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5. Conclusion

The confrontation after the 1945 independence led to the Korean War in 1950, and after six decades, the nation still carries the residues of tragedy. The 6.15 Joint Statement in 2000 seemed to signal budding reconcili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two Koreas, but then the sinking of Navy corvette Chonan followed by the firing of artillery by the North against Yeonpyeong Island has made the inter-Korean relations look more hopeless than ever before. These circumstances have made mutual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seem very distant. One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of which I am a member, is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resources that show realities of North Korea. Most important of all, however, is not the documented resources on individual events, but the collection and accumulation of all information produced in the process of realizing national reunification, so that its value will be assessed through history by later generations. In this sense, the Center is called on to go beyond the mere collection and supply of resources, and accumulate and organize resources on national reunification with historical values.

Such an effort should begin with appropriate collection of resources produced in North Korea to make them available to users with maximum convenience. That appears to be, in fact, how things are at the current stage and something that needs to be concentrated upon. It is largely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concern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domestic public opinion exerting great influence on the disclosing of North Korean resources. Under these circumstances, great care needs to be taken i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northern resources even for scholarly purposes. In this vein, the Center is focusing on building a digital archive of North Korean resources internally, while providing Ministry publications in e-Book formats so as to offer better online access to the resources. For these efforts to reach overseas researchers studying North Korea, it is hoped that relevant support systems are put in place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4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관련 기록 자료 영인 수집 사업: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한국 관련 기록 자료 수집 및 정보 서비스 현황

최 유 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영인 수집 사업은 1993년 문민정부가 채택한 문화창달 5개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선정되면서 도서관의 미소장 자료 수집을 위한 한 방안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국에서 발간, 제작된 자료라 하더라도 한국과 관련된 자료일 경우, 국가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수집 범위를 망라적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장서 개발 정책(2010년 10월 공포)이 수립되면서 국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영인 수집 사업의 정책적 배경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영인이나 기증 유치를 통한 소급 출판 자료 및 출판 전 자료(pre-prints) 등 특별 장서로서의 1차 자료 수집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디지털 장서를 확충함과 동시에 디지털 테마 컬렉션을 적극 개발한다는 의미에서도 국외 소재 한국 관련 영인 수집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학 연구 정보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주력해 온 국립중앙도서관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한국 관련 기록 자료 수집 사업에 관해 소개하고, 일부 주요 수집 문서와 웹DB이용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과 사서, kormo@mail.nl.go.kr

1. NARA 소장 한국 관련 기록 자료 수집 사업 현황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일제 강점기와 미 군정기, 한국전쟁 전후기의 정치·군사·사회적 특수 상황을 겪으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직접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게다가 그나마 기록된 자료의 일부가 외국으로 흘러나가거나 유실된 탓에 과거사를 규명하고 재조명하는 데에 필요한 1차 자료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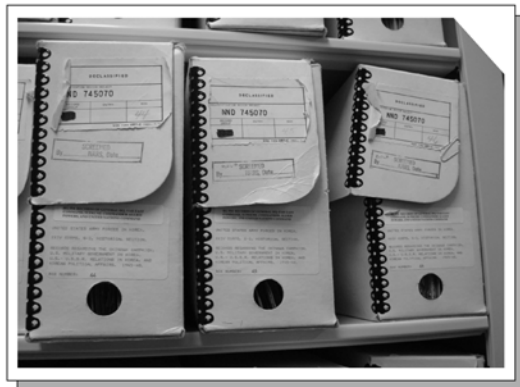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미국의 각 행정부가 생산한 공문서들을 이관해 보존하고 있는 국가 기관으로, 방대한 양의 한국 관련 자료도 소장되어 있다. 구한말 개항기에서부터 공문서 비밀 해제 하한 시기인(생산 후 25~30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는 물론 한반도 분단 이후의 남북한 관련 자료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한국 관련 1차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많은 수의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이곳의 한국 관련 문서들을 1차적인 연구 정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많은 연구 논문과 저서, 국내외 언론들의 탐사보도 기사들에 이곳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문서들이 자주 인용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 1차 자료들의 가치와 중요성은 이미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된 바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점에 주목해 국내 개별 연구자어나 기관의 NARA 문서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1994년부터 NARA 문서의 체계적인 수집을 계획하였다. 국내 학자들과 사료 수집 기관들은 관련 분야 연구와 사료 편찬에 필요한 NARA 소장 한국학 기록 자료 수집을 위해 각각 개별적으로 NARA를 방문하는 데 따른 불편함과 이미 수집된 자료를 공유하는 데 따른 제도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특정 시기의 문서를 선별해 수집하거나 특정 주제에만 국한해 수집하는 데 따른 자료 활용의 제한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국내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NARA의 한국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NARA 자료의 불분명한 출처와 원질서 보존에 대한 의혹 탓에 자료 인용의 어려움이 자료 이용자들에게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난제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보 공유를 통한 연구 정보 지원이라는 도서관 고유의 업무 목적을 위해 NARA 소장 한국 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일괄 수집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이미 1978년부터 USCAR Project로 NARA의 일본 관련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영인 수집하기 시작해 2011년 6월말 현재 33년째 수집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수집 자료들을 도서관 내의 현정

자료실(The NDL's Modern Japanese Political Documents Division)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문서 형태의 기록(textual records)을 모두 555개의 문서군(RG, Record Group)으로 구분해 놓았다. 국무부 일반 문서군(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군(Records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백악관 문서군(Records of the White House Office), 국방정보국 문서군(Records of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등 개별 행정부처를 문서군 분류의 기초 단위로 했고, 같은 행정부처 안에서도 경제분석국 문서군(Records of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도서(島嶼) 문제국 문서군(Records of the Bureau of Insular Affairs) 등 주요 실, 국, 처, 소(Office, Bureau, Agency) 별로 별도의 문서군을 가지고 있다.

한국 관련 문서는 미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미 주요 행정부처는 물론 미국의 대외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다른 행정부처의 문서군에도 거의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농무부(USDA) 해외농사서비스국(FAS), 해외경제처 등 민사 분야의 문서군, 전쟁정보국(OWI, Office of War Information), 미 공군본부,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등 군사 분야 문서군에도 한국 관련 사료들이 그득하다. 특히,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기의 문서들, 동남아시아 주둔 미군 문서철 중 베트남전쟁 참전 한국군 관련 문서 등 군사 분야의 문서군들과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기에 미군이 수집한 NARA 전쟁노획문서컬렉션(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중 북한(노획)문서군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 작업 첫 단계로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한국 내의 어떤 수집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의 손길이 가닿지 않은 NARA 소장 한국 관련 문서군 25개 RG(Record Group)에서 약 25만 장의 한국 관련 문서를 우선 발굴해 디지털 문서 형태로 일괄 수집했다.

- 1907년 조선의 금융 상황을 비롯해 한국은행 창립 초창기의 흑백 사진 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는 미 도서국(島嶼局, Bureau of Insular Affairs)의 한국 자료, (RG 350, Records of the Bureau of Insular Affairs)
- 해방 전인 1943년 당시 조선에서 생산되는 어류 및 어업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담긴 어족 및 야생동물국문서(RG 22, Records of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자료
- 1924년 조선의 공중보건 상태를 낱알이 기록하고 있는 공중보건 서비스국(RG 90 Record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의 문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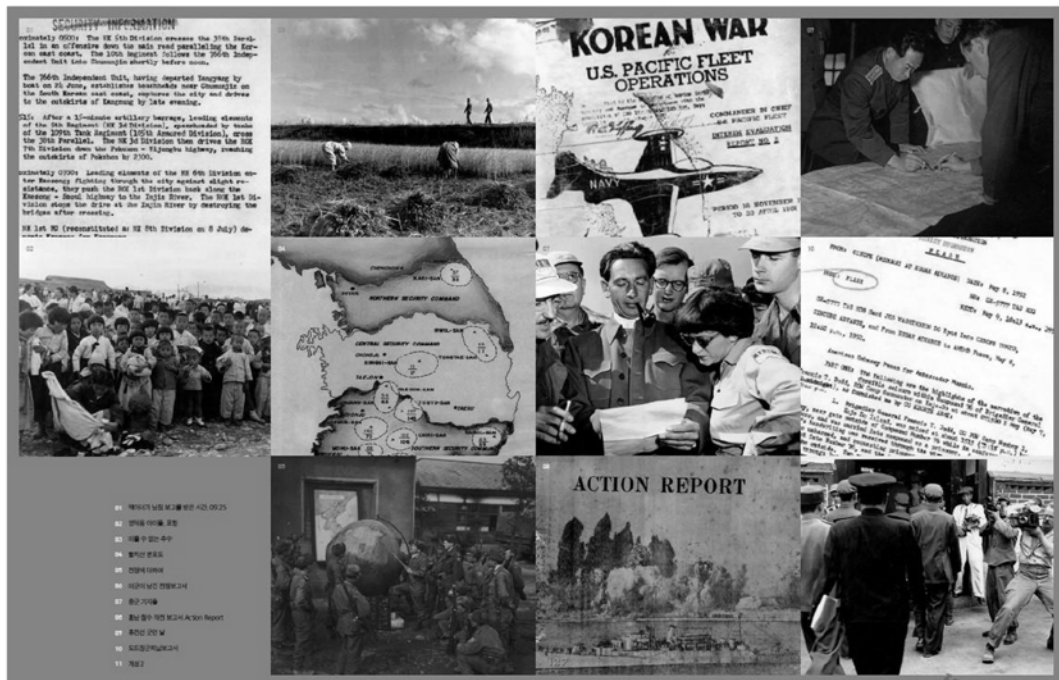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은 또 1960년대 경제 개발 시기의 국내 사회상은 물론, 당시 경제 개발 프로젝트의 상세한 면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의 한국 관련 문서 전량을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 파병 한국군 관련 자료도 전량 수집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는 RG242로 통칭되는 북한(노획)문서 전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개별 문서들을 전량 수집하기 시작함으로써 국내 기관 중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처음으로 NARA 소장 북한 노획 문서 전체를 수집하는 기관이 되었다.

2010년 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 영인 수집한 NARA의 한국 관련 문서는 총 46개 문서군의 1,433,888면(장)에 달한다.

미국 매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에 있는 NARA현지에서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수집되는 이 문서들은 자료의 특성에 맞는 기술 규칙을 적용하여 목록 데이터베이스와 원문 이미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며, 모든 수집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와 디브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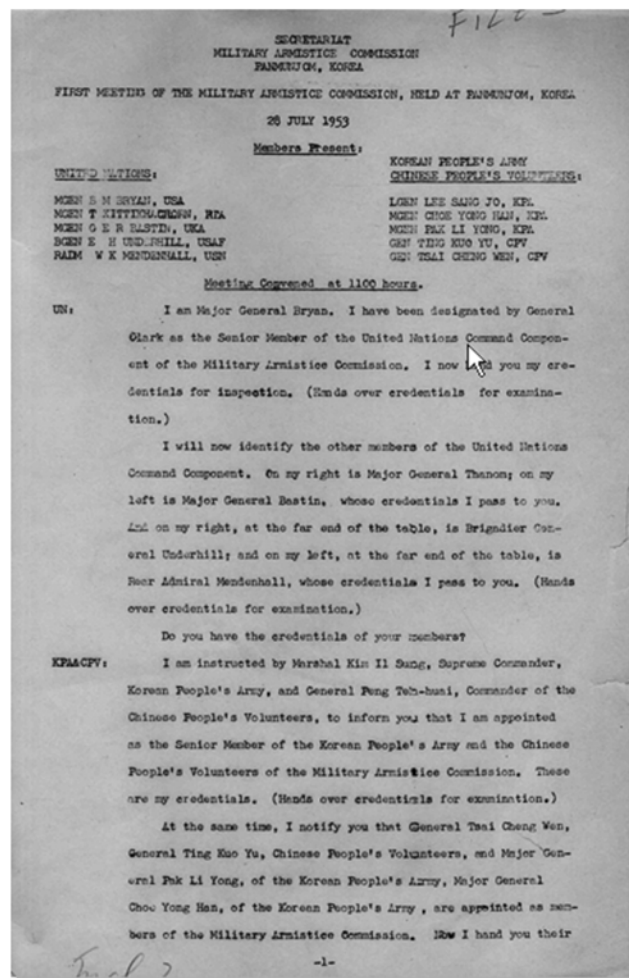
2010년도에는 해외 수집 기록물로 233,843면(장)을 정리하여, 현재 총 19,602건의 서지 목록 데이터베이스와 1,408,014면(장)의 원문 이미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한국 관련 NARA문서 보기

2.1 1953년 7월 28일 정전협정 조인 후 첫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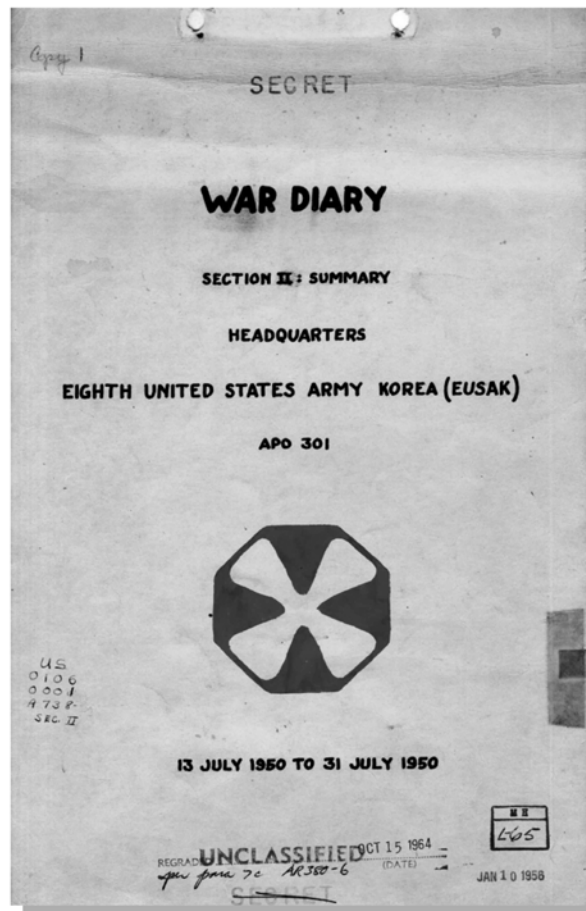
정전협정 조인식이 있는 다음 날인 1953년 7월28일 군사정전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회의록



● 문서 출처: 미 육군 참모부 문서(RG 319)

2.2 미8군의 한국전쟁 ‘전쟁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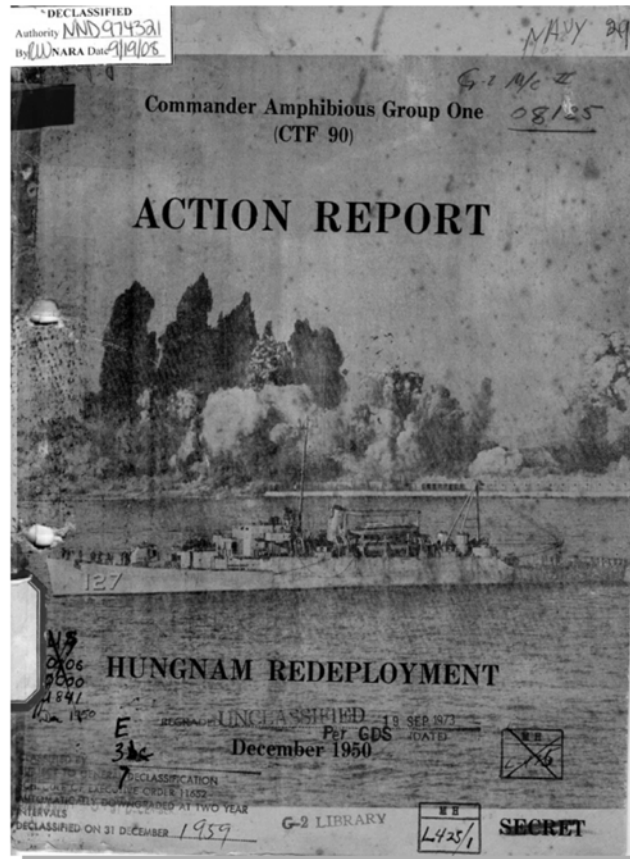
2차세계대전 기간이었던 1944년 6월에 창설된 미8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작성한 ‘전쟁 일지(War Diary)’. 이야기체(narrative)로 기술되어 있는 미8군의 이 전쟁 일지는 6·25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점령 임무를 맡았다가 한국전에 투입되는 과정을 기술하면서 3년에 걸친 짧지 않은 기간의 일지를 작성하게 된다.



● 문서 출처: 미 태평양군 문서군

2.3 흥남 철수 작전 보고서(Actio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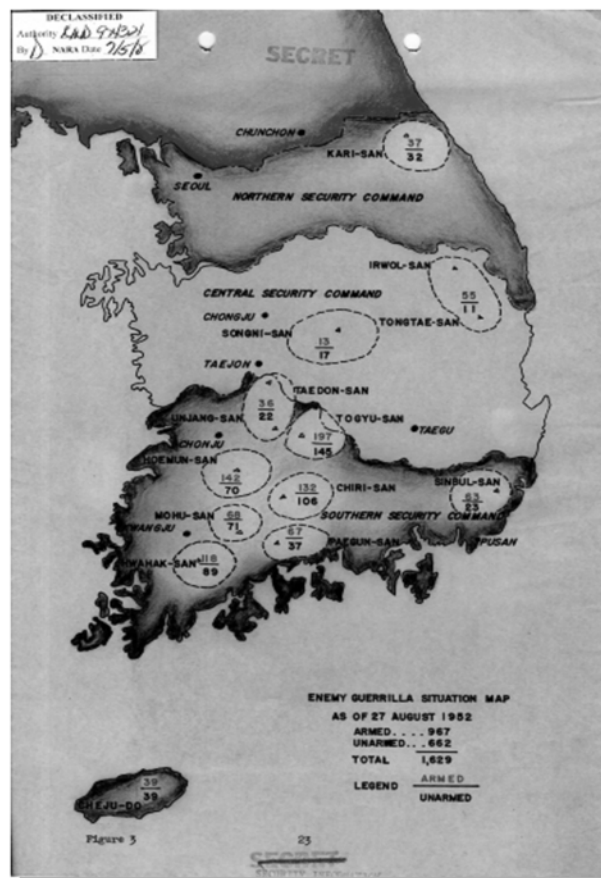
1950년 12월 미군의 흥남 철수 작전 보고서의 표지와 첫 페이지이다. 흥남 철수 작전을 위한 첫 작전 회의가 열렸던 12월 9일에서부터 철수 작전이 완료된 12월 25일까지의 작전 전개 상황을 서술형으로 기술한 보고서이다.



• 문서 출처: 미 태평양군 문서군

2.4 빨치산 분포도

이 문서는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가 작성한 정보 보고서 가운데 1952년 8월 27일 현재 남한 내 빨치산 1,629명의 분포 지역과 활동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빨치산 분포도에는 지리산, 회문산, 백운산, 덕유산, 대둔산 등 주요 거점별로 무장 및 비무장 인원수가 표시되어 있다.



• 문서 출처: 미 태평양 사령부 문서군

1)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개

○ 설립

1934년 설립, 1985년 국립문서기록관리청법 44 U.S.C. 2101에 의해 행정부 내 독립 기관(Independent Agency)로 설치 운영됨

○ 소재지

-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제1청사(NARA I)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408-0001
-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제2청사(NARA II, 1993년 신축)
8601 Adephi Road College Park, MD 20740-6001

○ 주요기능

- 연방 기관의 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관련된 표준, 업무 지침, 업무 절차 개발 등 총괄 조정 기능 수행
- 입법, 사법, 행정부의 필수 기록자료의 인수, 정리, 기술, 보존, 열람서비스 제공
- 대통령도서관 관리
- 법, 규정, 대통령 및 기타 공공문서의 발행
- 연방 문서 비밀 분류 및 해제 정책 수립
- 미국 역사 기록의 확인, 보존, 열람 제공 등을 장려 등

○ 기록물 소장량

- | | |
|---------------------|----------------------|
| - 문서 : 100억 페이지 | - 지도 및 도면자료 : 720만 장 |
| - 사진 자료 : 2,000만 점 | - 필름 자료 : 365,000릴 |
| - 비디오테이프 : 110,000점 | - 전자 자료 : 10억 데이터세트 |



국립중앙도서관 NARA 소장 한국 관련 기록자료 수집 현황

2010년 12월 현재

번호	RG 번호	내 용	총수집량(매)
1	12	Records of the Office of Education 교육국 문서	160
2	1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농무부 장관실 문서	144
3	22	Records of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1940년 어족국 및 생물학 관찰국을 합병해 설립한 어족 및 야생 서비스국의 아태 관련 문서	220
4	51	Records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예산관리국(OMB) 문서	13
5	52	Records of the Bureau of Medicine and Surgery 미 국방부 의약 및 외과국에서 생산된 문서	1,281
6	56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재무부 일반 문서	12,304
7	59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Lot File 문서군	19,075
8	81	Records of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무역회의 문서	123
9	82	Record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미 연방준비제도 문서	1,350
10	84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88-1964 미 국무부의 해외 공관 문서군	96,046
11	90	Record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1912-1968 미 국립보건위원회 문서	192
12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한국전 시기 극동군사령부 산하 군수참모실 문서	24,020
13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주통신대 문서	9,376
14	112	RG 11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미 군 의료단(AMEDD) 및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8군 의료단 생산 문서	14,295
15	127	RG 127 Records of the U.S. Marine Corps 미 해병대 생산 문서	38,581
16	151	Records of the Bureau of Foreign and Domestic Commerce 상무부 문서	681
17	153	RG 153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1952년에서 1954년 사이 당시 미 육군 법무관실(국제관계국 전쟁범죄처)에서 생산된 전쟁 포로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 문서	50,776

번호	RG 번호	내 용	총수집량(매)
18	160	Records of U.S. Army Service Forces (World War II) 미육국 지원단 본부 문서(제2차 세계대전)	381
19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전쟁부(War Department) 문서	8,809
20	166	Records of 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외국 농업국 문서	18,374
21	169	Records of the Foreign Economic Administration 해외경제처 문서	2,519
22	175	Records of the Chemical Warfare Service 화학전부 문서	250
23	200	National Archives Gift Collection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기프트 컬렉션	20,011
24	208	Records of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전쟁 정보부 문서	885
25	226	Records of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전략기획처 문서	1,494
26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the Seized Document 북한노획문서	243,873
27	273	Record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 대통령 직속 정책 자문 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생산된 한국 관련 자료	3,690
28	286	RG 286 Records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60~70년대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에서 생산된 한국 관련 문서	206,014
29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미 정보처의 1960년대 한국 관련 문서	11,177
30	313	Records of Naval Operating Forces 해군 운영부대 문서	14
31	319	Records of the U.S. Army Staff 미 육군참모부 문서	47,636
32	33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Transportation 주운송부대 문서	913
33	337	Records of Headquarters Army Ground Forces 육군지상군 사령부 문서	5,492
34	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 (Air Staff) 미 공군본부 (항공 참모) 문서	91,417
35	350	Records of the Bureau of Insular Affairs 도서 국가에 대한 문서로 1907년 당시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자료	241
36	371	Records of the 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 방위정보국 문서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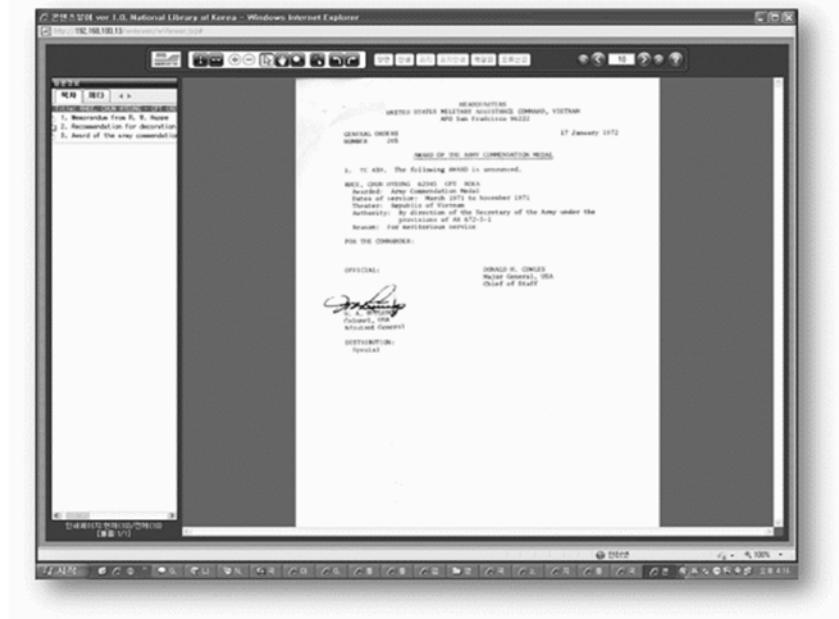
번호	RG 번호	내 용	총수집량(매)
37	377	Records of the U.S. Travel and Tourism Administration 미국 관광국 문서	138
38	389	RG 38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Provost Marshal General, 1941 ~ 한국전 당시 미 헌병사령관실에서 생산된 문서	6,436
39	428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NAVY, 1947~1947년 이후 해군부 문서	3,494
40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8~1961 미 국제개발처(USAID) 전신 격인 미 해외원조처의 1950년대 초 한국 개발 관련 문서	25,670
41	472	RG 472 Records of the U.S. Forces in Southeast Asia, 1950~1975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관련 문서	29,202
42	476	Records of the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수출관리국 문서	2,154
43	489	Records of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국제무역관리국 문서	1,250
44	490	Records of the Peace Corps 평화봉사단 문서	445
45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미 태평양군(US Army, Pacific)	103,300
46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미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	329,688
합계			1,433,888

3. 해외 수집 기록물 웹 정보 서비스

3.1 디브러리 통합검색에서 키워드로 자료찾기¹⁾



- 1) 2011년도 4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디브러리 홈페이지의 자료검색시스템이 통합되면서 데이터컨버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외수집기록물의 검색결과를 ‘온라인자료>기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향후에 데이터 보완 작업이 완료되면 ‘온라인>기록물’에서 그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3.2 디브리리 통합 검색에서 계층별 검색



<http://www.dibrari.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자료 클릭

하단의 해외수집기록물 클릭



하단의 레코드그룹(RG) 선택 후 클릭

하단의 시리즈(2계종) 선택 후 클릭

자료찾기 - 해외수집기록물 검색 - 계층별찾기

상위계층 정보 : [문서문] RG 127 Records of the U.S. Marine Corps

상세정보

표제/책임표시사항	1st Provisional Marine Brigade, 1950 / *U.S. Marine Corps*
주거사항	시리즈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①국MdcPNA
원문소장정보	미국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계층정보	시리즈(2계층)
자료이용하는곳	동북아자료실

하위계층 정보

번호	계층수준	표제	제작자	발행년	특차정보
1	파일 (3계층)	1st MarDiv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on Chosin Operation [Hist Div Study]	U.S. Marine Corps	1950	🔍 📄
2	파일 (3계층)	1st MarDiv Inchon-Seoul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U.S. Marine Corps	1950	🔍 📄
3	파일 (3계층)	1st MarDiv SAR Appendix B Oct-Dec 1950 G-2	U.S. Marine Corps	1950	🔍 📄
4	파일 (3계층)	1st MarDiv SAR Oct-Dec 1950	U.S. Marine Corps	1950	🔍 📄
5	파일 (3계층)	1st MarDiv SAR Oct-Dec 1950 Annex	U.S. Marine Corps	1950	🔍 📄
6	파일 (3계층)	1st MarDiv SAR Oct-Dec 1950 Annex AA Inspector	U.S. Marine Corps	1951	🔍 📄

자료찾기 - 해외수집기록물 검색 - 계층별찾기

상위계층 정보 : [시리즈] 1st Provisional Marine Brigade, 1950

상세정보

표제/책임표시사항	1st MarDiv SAR Oct-Dec 1950 : *보고서 / *U.S. Marine Corps*
발행사항	1950
형태사항	78 p.
주거사항	파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자료 2009년도 영인한 자료임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9, JPG300dpi(010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①국MdcPNA 분할연어는 영어임 *특자료: 문서문RG 127 Records of the U.S. Marine Corps *특자료: 시리즈1st Provisional Marine Brigade, 1950
분류기호	US/MdcPNA/RG127-E.4(UO-040)
원문소장정보	미국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계층정보	파일(3계층)
특차정보	Special action report for period 8 October - 15 December 1950 = 1 Introductory note = 6
자료이용하는곳	동북아자료실

하위 계층 정보가 없습니다.

하단의 파일(3계층) 선택 후 클릭

하단의 원문보기 클릭 후 열람^^

9

Declassified Documents Collection Project (DDCP)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troduction of Collecting and Information Service for Korea-related Historical Documents from NARA

Yujin Choi *

Introducti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launched new project in 1993 for systematic collecting of Korea-related primary sources and materials located in overseas. This challenging project was to meet Kim Young Sam administration's policy decision which focused on newly stimulating enhancement for the nation's cultural field. After repeated task force team discussions and serious considerations based upon this new policy, the Library, as nation's leading institute, has decided to gather Korea-related data or materials in overseas through the format of photographic reproduction if the original copies or documents are not allowed for our Library's own holdings. Such a significant decision of the Library was later supported efficiently by a brand new in-house regulation which proclaims that the Library could include overseas materials as wide as possible for collecting if the materials cover Korea-related topics regardless they were produced or published outside of Korean territory.

In addition, as a special collection to reward the Library's endeavor to expand the copyright-free digital resources and develop a thematic digital collection, the Library's DDCP needs continuous support in broad range. We believe that this project will furnish a successful path of securing materials which could not be found at our Library's shelves before.

* Librarian, Serials and Government Publications Division, kormo@mail.nl.go.kr

The followings are to introduce the Library's special collection of declassified Korea-related documents from 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of the U.S. to build and support research infrastructure for Korean studies. And it will show some highlights which reveal the hidden stories of modern period of Korean history. It also provides the basic guideline how to use the Library's web database which was built up since 2004 out of these fascinating historical documents from NARA.

1.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ng Records on Korea Preserved at the NARA

While we have got through tough experiences like as Japanese ruling, administrating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Korean War, unfortunately we've failed to keep our own historical records in various aspects. And bunch of our historical records were even taken away by occupying foreign authorities or forces. In result, it is true that the first-hand primary records which can elucidate our own history were very limited and not enough to shed light on the path we've been through in recent history.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is the U.S. record keeper. Of all documents and materials created in the course of business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some documents are so important for legal or historical reasons that they are kept by NARA forever. By now, they add up a formidable number, diverse in form as well as in content. Among those valuable records, we can find formidable amount of declassified documents and various types of materials like as microfilms, still pictures, audio records and moving pictures (reels and videotapes) which contain clues about Korean history and countless historical topics that interest us.

The major holdings of Korean topics and subjects date back to late Yi Dynasty as earliest time period to mid 1970s as recent one. And the range of topics includes politics, economy, military affairs, diplomatic relations and South-North Korea issues as well as Korea-U.S. relationships. All of these documents were declassified after completed declassification

processing. These materials have been widely used as primary sources for researchers of Korean studies in Korea as well as abroad.

The Library began to collect NARA materials in 2004. This project has couple of goals: (1) Assisting Korean researchers - individual scholars, journalists and institutions who need NARA documents. They had to pay individual visits to NARA separately to get the same materials in most of cases. But they don't need to visit NARA personally anymore since the Library started to service of providing them NARA documents; (2) Providing any researchers who need NARA documents and sharing information without any restrictions. Those who want to get NARA documents which were already collected by other researchers or institutes but cannot have chance to reach them due to restriction are welcomed to the Library to access NARA materials anytime; (3) Providing researchers exact identifications of credit and sources for each documents. Due to unclear credit or ambiguous sources identification, researchers had often faced with troubles for quote. We are proud of providing researchers the accuracy and correctness of each document's credit and sources of the Library'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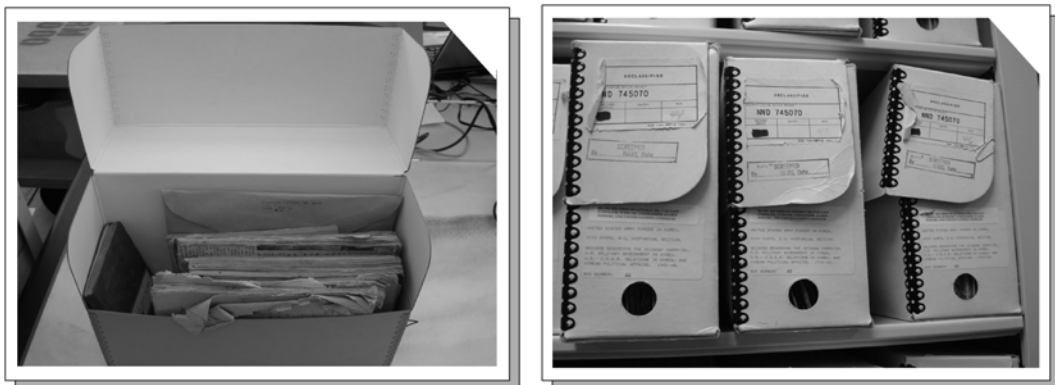
The National Diet Library (NDL) of Japan had started their project of collecting microfilm copies from NARA under the project named USCAR in 1978. Through USCAR Project they stored collected materials at Modern Japanese Political Documents Division and provide researchers valuable information which covers World War II and the period of Allied Occupation of Japan.

NARA stored approximately 9 billion pages of textual records; 7.2 million maps, charts, and architectural drawings; more than 20 million still photographs; billions of machine-readable data sets; and more than 365,000 reels of film and 110,000 videotapes.

Textual records are organized into about 555 record groups (RG); the Records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s of the White House Office, and the Records of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Each agency is the basic unit of the RG classification, and even in the same department significant offices,

bureaus, and agencies have their own RGs separately, as shown in the Records of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d the Records of the Bureau of Insular Affairs.

Among those RGs, Korea-related ones include some RGs in civil affairs, such as the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the Records of the Foreign Agriculture Service (FAS); and the Records of the Foreign Economic Administration. They also include military RGs like records on the period of Japanese rule and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Korea War, including the Records of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OWI); the Records of the U.S. Air Force Headquarters, the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records on Korean military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as part of the Records of the U.S. Forces in Southeast Asia. Also included are the (captured) North Korean records as part of RG 242, Records of the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In particular, over two years until December 2005 since it began collecting the NARA records in March 2004, the NLK discovered about 250,000 pages of Korea-related records in 25 RGs at the NARA, which had been untouched by any Korean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Some examples of those records are as follows:

- The Korea-related portion of RG 350, Records of Bureau of Insular Affairs report Joseon's financial conditions in 1907 with some photographs of the Bank of Korea in its foundation period included.

- RG 22, Records of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include reports on fish and fisheries status in Joseon in 1943.
- RG 90, Record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contains the details of the public health conditions of Joseon in 1924 during the Japanese rule.

In addition, the NLK collected various kinds of report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on the economic conditions of Japanese-controlled Joseon before its restoration of independence in 1945 and its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s. The Library also garnered all the records on Korea produced by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 independent agency guided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s provide a picture of Korean society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eriod in the 1960s as well as detailed accounts of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during that period. Furthermore, the Library has since 2006 been collecting digital image files of RG242, Captured North Korean Documents together with their list. As a result, the Library could collect 1,433,888 facsimile pages of Korea-related records from a total of 46 NARA RGs from 2004 until 2010.

The records acquired in the form of digital image files in the State of Maryland in the United States are converted into catalog and image databases of the original tex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technical standards, and can be accessed on the NLK's website (www.nl.go.kr), through the virtual integrated search of resource



collections on the Dibrary Portal (www.dibrary.net), and through the virtual integrated search of the original full texts on the website of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www.dlibrary.go.kr/WONMUN). In 2010, the NLK compiled 233,843 pages of overseas records and is currently providing services of a bibliographic catalog database of a total of 19,602 items and an information database of image files of the original texts.

2. Examples of the NARA Records on Korea Collected by the NLK

2.1 The minutes of the first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eeting held after the signing of the Truce Agreement on July 28, 1953

This is the minutes of the first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eeting held the next day after the signing of the Truce Agreement on July 28, 1953.

SECRETARIAT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PANMUNJOM, KOREA

FIRST MEETING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LD AT PANMUNJOM, KOREA
28 JULY 1953

Members Present:

<u>UNITED NATIONS:</u> MEM: S M BRYAN, USA MEM: T KITTING, GERMANY, RFA MEM: G E R BASTIN, USA MEM: E H UNDERHILL, USAF ADM: W K MENDENHALL, USN	<u>KOREAN PEOPLE'S ARMY CHINESE PEOPLE'S VOLUNTEERS:</u> LGM: LEE SANG JO, KPA MEM: CHOE YONG HAN, KPA MEM: PAK LI YONG, KPA GEN: TING KUO YU, CPV GEN: TSAI CHENG WEN, CPV
---	--

Meeting Convened at 1100 hours.

UN: I am Major General Bryan. I have been designated by General Clark as the Senior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Component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 now hand you my credentials for inspection. (Hands over credentials for examination.)

I will now identify the other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Component. On my right is Major General Thanom; on my left is Major General Bastin, whose credentials I pass to you. And on my right, at the far end of the table, is Brigadier General Underhill; and on my left, at the far end of the table, is Rear Admiral Mendenhall, whose credentials I pass to you. (Hands over credentials for examination.)

Do you have the credentials of your members?

KPA/CPV: I am instructed by Marshal Kim Il Sung, Supreme Commander, Korean People's Army, and General Peng Teh-huai,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o inform you that I am appointed as the Senior Memb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ese are my credentials. (Hands over credentials for exam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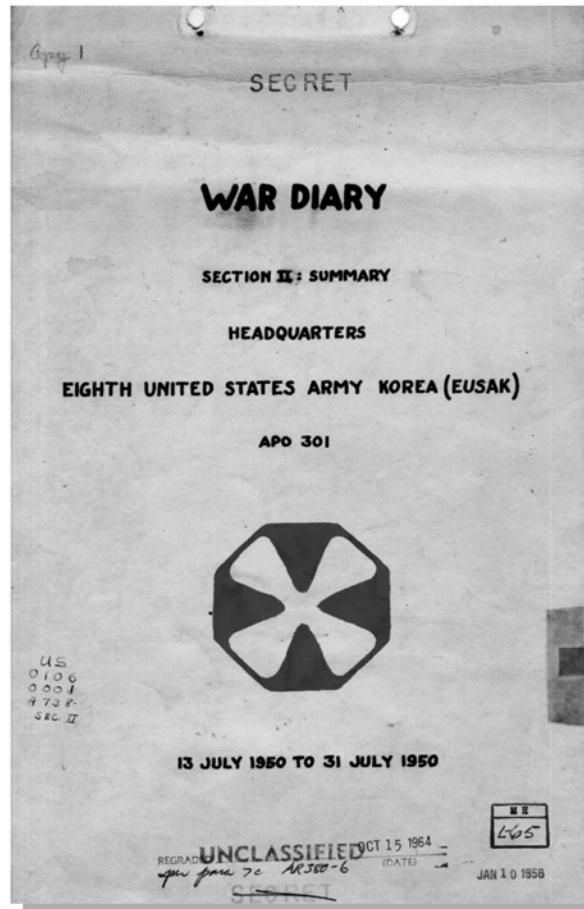
At the same time, I notify you that General Tsai Cheng Wen, General Ting Kuo Yu, Chinese People's Volunteers, and Major General Pak Li Yong, of the Korean People's Army, Major General Choe Yong Ha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re appointed as memb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Now I hand you their

-1-

● Source: Records of the Army Staff (RG 319)

2.2 The War Diary of the Eighth United States Ar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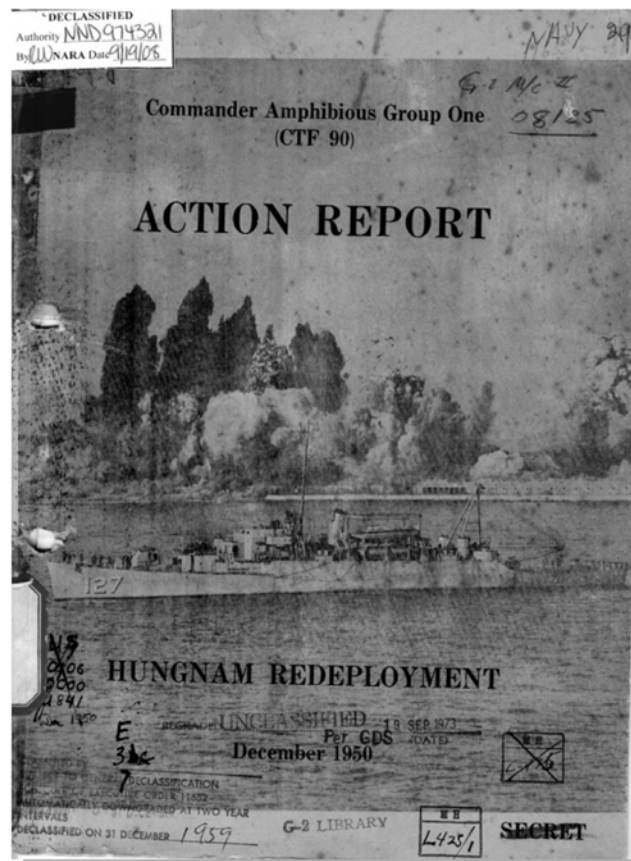
Organized in June 1944 during World War II, the Eighth United States Army kept this war diary. It was written in a narrative style, recording the whole process of the Korean War for three years, including the description of how the army had been deployed in the war after completing its mission to occupy Japan



● Source: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2.3 The Action Report on the Hungnam Redepl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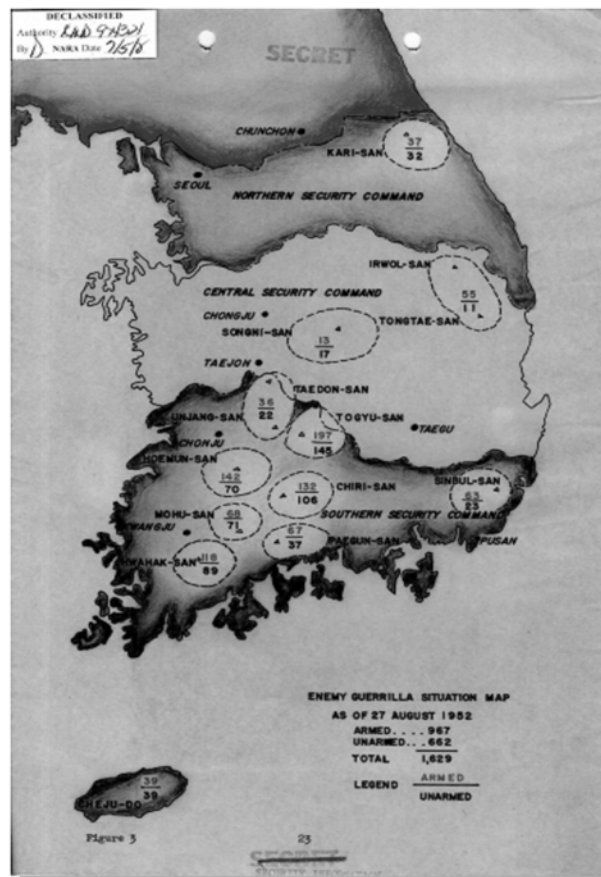
This is the cover and first page of the Action Report on the Hungnam Redeployment in December 1950. The report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the Hungnam evacuation operation from the first meeting for the operation held in December 9 to its completion in December 25.



• Source: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2.4 The Enemy Guerilla Situation Map

Part of the reports produced by the Korean Communication Zone (KComZ), this map shows the distribution of 1,629 communist partisans in South Korea and their activities as of August 27, 1952. Marked in the map are the numbers of armed and unarmed guerrillas based in major strongholds, such as Jiri, Hoemun, Baegun, Deogyu, and Daedun Mountains.



• Source: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

What is the NARA?

The U. 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 Information on the NARA

○ Establishment

Founded in 1934 and later designated as an independent agency of the U.S. government by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ct, 44 U.S.C., 2101

○ Location

- The first National Archives building (NARA I)
7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408-0001
- The second National Archives building (NARA II constructed in 1993)
8601 Adelphi Road College Park, MD 20740-6001

○ Main Functions

- Supervising and coordinating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work guidelines, and work procedures relating to the records management programs of the Federal agencies
- Offering acquisition, arrangement, preservation, and perusal services of essential recorded materials of the Legislature, Judiciary, and Administration
- Managing the Presidential Library
- Issuing laws, regulations, presidential orders, and other official documents
- Establishing policies on classifying and declassifying the federal documents
- Promoting confirmation, preservation, perusal services of American historical records

○ Amount of Collections

- | | |
|--|--|
| - Records: 10 billion pages | - Maps and architectural drawings: 720,000 pages |
| - Photographic materials: 20 million items | - Film materials: 365,000 reels |
| - Video tapes: 110,000 items | - Electronic materials: 1 billion data se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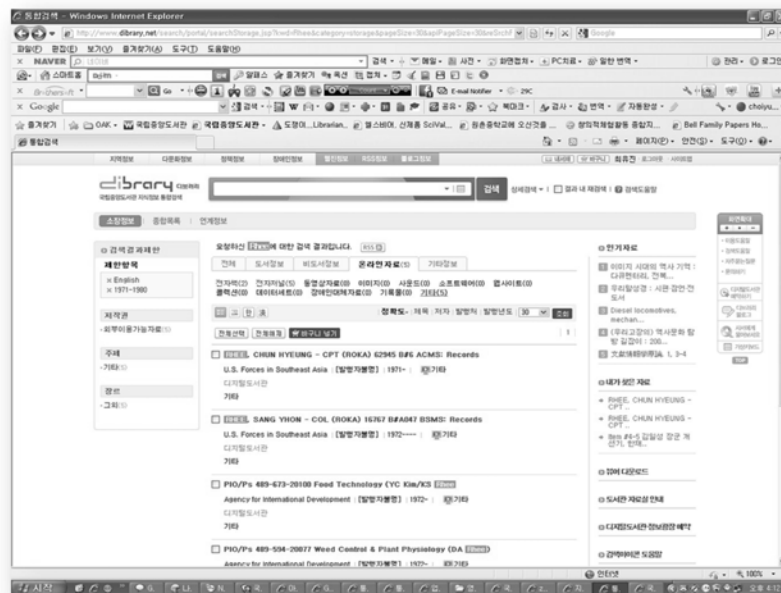
The Current Status of the NLK's Collection of the NARA Records Relevant t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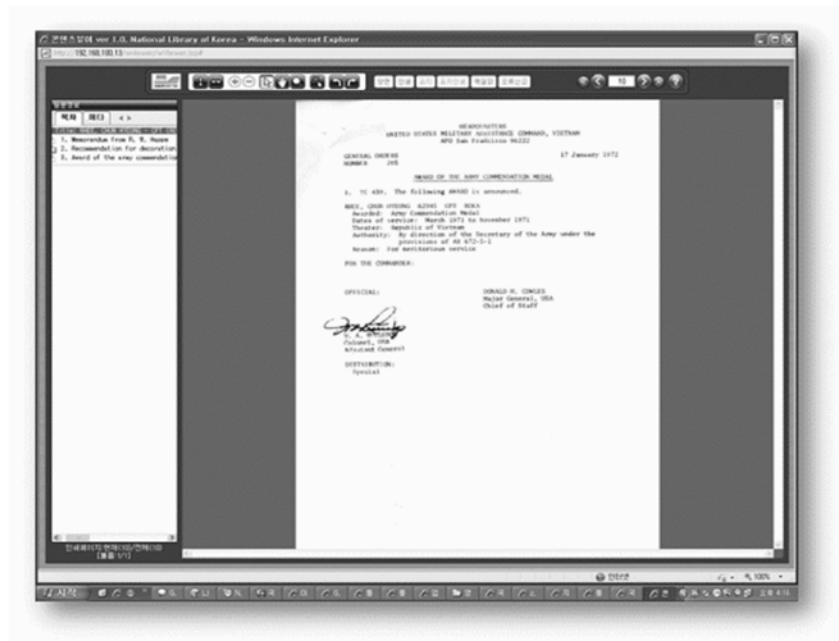
No.	RG number	Title	Total amount collected (pages)
1	12	Records of the Office of Education	160
2	1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144
3	22	Records of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created through the merging of the Bureaus of Fisheries and Biological Survey in 1940	220
4	51	Records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13
5	52	Records of the Bureau of Medicine and Surger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1,281
6	56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12,304
7	59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Lot Files	19,075
8	81	Records of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123
9	82	Record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1,350
10	84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88-1964	96,046
11	90	Record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1912-1968	192
12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under the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during the Korean War	24,020
13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9,376
14	11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 Documents produced by the Army Medical Department and the medical team of the Eighth United States Army participating in the Korean War	14,295
15	127	Records of the U.S. Marine Corps	38,581
16	151	Records of the Bureau of Foreign and Domestic Commerce	681
17	153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 Investigation reports of atrocities against POW's in Korea 1952-1954 produced by International Division War Crimes Branch	50,776
18	160	Records of U. S. Army Service Forces (World War II)	381
19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8,809
20	166	Records of 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18,374
21	169	Records of the Foreign Economic Administration	2,519
22	175	Records of the Chemical Warfare Service	250
23	200	National Archives Gift Collection	20,011
24	208	Records of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885
25	226	Records of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1,494
26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the Seized Document * Captured North Korean documents	243,873

No.	RG number	Title	Total amount collected (pages)
27	273	Record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Korea-related materials produced by the NSC, a group of Presidential advisors	3,690
28	286	Records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Korea-related materials produced by the USAID during the 1960s-70s	206,014
29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 Korea-related materials produced by the U.S. Information Agency in the 1960s	11,177
30	313	Records of Naval Operating Forces	14
31	319	Records of the U.S. Army Staff	47,636
32	33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Transportation	913
33	337	Records of Head quarters Army Ground Forces	5,492
34	341	Records of Head quarters U.S. Air Force (Air Staff)	91,417
35	350	Records of the Bureau of Insular Affairs *Korea-related materials in 1907 during the Japanese rule	241
36	371	Records of the 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	284
37	377	Records of the U.S. Travel and Tourism Administration	138
38	38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Provost Marshal General, 1941-, including documents produced by the Office of the Provost Marshal General during the Korean War	6,436
39	428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NAVY, 1947-	3,494
40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8-1961 * Korea-related materials produced by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an antecedent of the USAID, during the early 1950s	25,670
41	472	Records of the U.S. Forces in Southeast Asia, 1950-1975 *Documents on Korean troops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29,202
42	476	Records of the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2,154
43	489	Records of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1,250
44	490	Records of the Peace Corps	445
45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103,300
46	554	Records of General Head 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329,688
Total			1,433,888

3. The Web Information Service of the Overseas Records Collection

3.1 Searching by keyword using the Dibrary Virtual Integrated Search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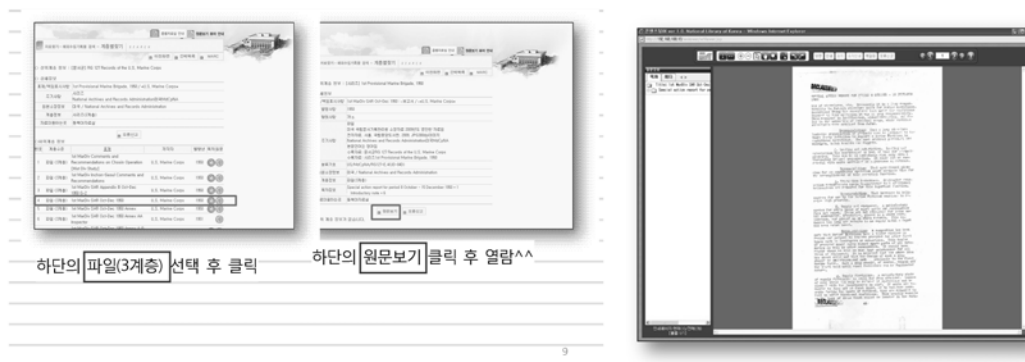
3.2 Searching by keyword using the Dibrary Virtual Integrated Search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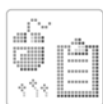
하단의 레코드그룹(RG) 선택 후 클릭

하단의 시리즈(2계층) 선택 후 클릭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도서관계〉가 〈오늘의 도서관〉으로

2011년부터 <도서관계>가 <오늘의 도서관>으로 새롭게 발행되었다. <도서관계>는 도서관계의 동향과 자료 소개 등을 게재하고 있는 소식지로, 1991년부터 학술지 ‘도서관’의 별책부록으로 발간되다가, 1994년 1월부터 월간 소식지로 독립하여 발행되어 왔다.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홍보 진단 및 전략연구” 연구용역결과와 관내외 자문위원들의 자문회의를 거쳐 <도서관계>의 성격을 국립중앙도서관의 홍보지로서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사업이나 정책, 행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국립중앙도서관 홍보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또한 책과 도서관에 관련된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도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호는 관내외 공모를 통하여 <오늘의 도서관>으로 결정하였으며, 제호 글씨체와 2011년 표지 그림은 최석운 화백의 작품이다. <오늘의 도서관>은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식과 내용을 더욱 더 알차게 전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림 1> 오늘의 도서관(1, 2월)



<그림 2> 오늘의 도서관(3, 4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일본 지진 피해 관련 직원성금 전달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은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이 깊은 애도의 마음을 모아 모금한 소정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우진영 국립중앙도서관장이 3월 16일 방송된 <일본대지진 MBC 특별생방송 - 함께 나누는 세계>에 직접 출연하여 직원들이 직접 모금한 성금과 격려메시지를 통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또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도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의 위로 서신을 보냈다. 양 기관은 지난 1997년부터 해마다 한·일 업무교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과제를 논의하는 등 활발히 교류해 오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이용자를 위한 도서정보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4월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대표 홈페이지(www.nl.go.kr)를 비롯하여 12개 도서정보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구축 하였으며, 개별 운영하던 6개의 도서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를 통합하여 지식정보 통합검색 사이트인 디브리리포털(www.dlibrary.net)에서 통합 서비스 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접근 경로를 단일화하였다.

또한, 9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도 제공하던 검색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 검색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검색서비스는 검색 후 원문보기, 디지털도서관 예약, 각종 서비스 신청 등 자료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 외부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자료만 따로 분류해 놓아, 안방에서도 쉽게 저작권 없는 온라인 도서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도 대폭 강화하여 손안의 도서관을 구현하였다. 디지털도서관 예약, 각종 온라인 신청 등 이용자에게 유익한 도서정보 및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찾고자하는 도서를 검색하면 현 위치에서 소장한 가까운 도서관 정보 및 위치를 제공하고, 그 도서관까지 가는 길을 가상현실을 통해 안내해 준다.

스마트폰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 모바일홈페이지(m.nl.go.kr)에 접속하거나, 아이폰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폰 마켓에서 APP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모바일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화면>



국립중앙도서관, 이집트 국립도서관·문서관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개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은 2011년 5월 24일(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국립도서관·문서관(총관장 무함마드 사비르 아랍/Dr. Mohamed Saber Arab)’ 5층에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를 개실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마드 아부 가지(Dr. Emad Abu Ghazi) 이집트 문화부 장관, 윤종곤 주 이집트 대사, 제인 압둘 하디(Dr. Zain Abdul Hady) 이집트 국립도서관장 등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고, 한국에서는 여위숙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이 참석하였다.

이집트 국립도서관·문서관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한국자료실로 약 40평방미터의 면적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원한 한국 관련 도서 및 DVD, CD 등 3,847여 책(점)의 자료와 서가, PC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자료실 운영을 돕기 위해 2015년까지 매년 200여 책 이상의 한국 관련 자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여러 한국드라마가 지속적으로 방영되며 아랍권에서 처음으로 한국학과가 개설(2005년)된 정규대학교인 아인샴스대학교가 있고 한국어능력시험도 시행되는 등 한국어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이집트 국립도서관 한국자료실이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한국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9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 개최 “미래 비전: 새시대 국립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은 5월 17일(화) 제19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in Asia and Oceania)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07년에 유치한 회의로서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 20개국 국립도서관장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미래비전: 새시대 국립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정보자원의 납본 문제, 디지털화에 따른 적용 표준, 국가 간 협력사업 등 국립도서관의 현안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는 1979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로 아시아·오세아니아 각국 국립도서관의 현안과제 토론, 네트워크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방안 증진을 논의하는 연차회의이다. 한국은 200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 시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적이 있으나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5월 18일에는 “국립도서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인 대구대학교 윤희운 교수의 기조발표와 국립도서관장회의에 참가한 앤-마리 쉬비츠리히(Arne-Marie Schwirtlich) 호주 국립도서관장, 니옌 렉 초(Ngian Lek Choh)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장, 판 디 킴 중(Phan Thi Kim Dzong) 베트남 국립도서관장을 비롯한 6명의 외국 국립도서관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도서관 학계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각국 국립도서관의 리더십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국가도서관의 리더십을 제고하고, 국제도서관계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8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과 공동으로, 일종의 특별세션인 ‘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는 지금 하나로 연결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도서관이 지닌 정보도 세계적 공유를 위해 연결되어 가고 있다. 새로 개설된 이 회의는 앞으로 급변하는 디지털도서관 정보 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발전시켜가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일련의 국제회의를 통해 해외 도서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회의 참가 인사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세계 도서관계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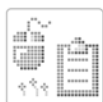
<제19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 참가자>



<제19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



NLK News



Newsletter of Libraries has changed to Today's Library

This year Newsletter of Libraries changed to *Today's Library*. Newsletter of Libraries is the newsletter to show the trend in libraries and introduce materials. Newsletter of Libraries has published as a supplement to *Doseogwan* (a library periodical) since 1991 and became an independent daily newsletter in January of 1994.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itled Review on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Research on its Strategy, and upon consultation of advisors of the Library and other institution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has decided Newsletter of Libraries as its official PR newsletter. It includes more stories about major projects, policies and events of the Library to solidify its footing as the promotion newsletter. It also offers fun and interesting stories about books and the Library to make people feel free to access. The new title Today's Library was decided through a contest. The calligraphy and picture on the cover of 2011 *Today's Library* is a work of painter Suk Woon Choi. *Today's Library* will give more news on NLK and do its best to promote the values and role of the library as a bridge between past and future.



<Fig. 1> Today's Library (Jan. & Feb.)



<Fig. 2> Today's Library (Mar. & Apr.)



NLK Staff Gave Donations to Japan Quake Victims

Staff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raised donations for Japan earthquake that happened on March 11 in deep mourning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Jin Yung Woo, the Chief Executive of the NLK appeared MBC TV Live Special Donation for Japan-Shared World (aired on March 16) to give the donations raised by all staff members of the NLK. He expressed sympathy and condolence about what had happened, and cheered Japan quake victims up. The NLK also sent a consolation letter to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and expressed its sincere wish for rapid disaster recovery and its will to help them if they request. The two national libraries have held the Exchange Program of the Librarian between the NLK and the NDL each year since 1997, and actively discussed major issues and communicated with each other.



NLK Website Renewal

The NLK has upgraded its book information services for online users and started the service on April 4. The NLK has renewed 12 book information websites including its main website (www.nl.go.kr). It unified various user access channels into one by consolidating separately operated six book information search sites to the Dibrary portal (www.dibrary.net) and providing integrated services. The NLK also consolidated search systems separately provided from nine databases and offers the integrated search service which would enable users to enjoy one-stop search services. Through the integrated search service, only few clicks of search allow users to use a variety of functions such as view, reservation for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of Korea, and application for various services; the NLK separately classified free online materials that users can read even outside the Library, so users can read copyright-free online books at home.

Moreover, it added a great deal of services useful to smart phone users and embodied “Library at Hand.” It expanded book information services such as reservation for the digital library, and application for various services. By pressing few buttons, users are provided with the information and location of the nearest library holding the books they are searching for, and they are guided the way to the library by virtual reality. The smart phone service is available at the NLK mobile website (m.nl.go.kr), or can be used by downloading an application for the smart phone service at iPhone App Store or Android Market.



<NLK MobilePage>



<Main page of the NLK website>



Opening “Window on KOREA” at Egyptian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On Tuesday, May 24,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hief Executive: Jin Yung Woo) opened “Window on KOREA” at the Egyptian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Chairman: Mohamed Saber Arab) in Cairo, the capital of Egypt.

At the opening ceremony on the 5th floor of the Egyptian Library, distinguished guests including the Minister of Culture Emad Abu Ghazi and Jong-Kon Yoon,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gypt participated in the event and showed their sincere interest. From Korea, Weesook Ye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Library Service Department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oined the event.

“Window on KOREA” is the first Korean materials room in Africa. In the room of about 40 square meters, there are about 3,847 books, DVDs and CDs that introduce Korea as well as bookshelves and PCs provided by the NLK. The NLK will additionally support about 200 books each year by 2015 in order to help the operation of “Window on KOREA.”

Egypt is the country with rising demand for Korea: various Korean dramas have been aired; Ain Shams University opened a Korean language department in 2005 for the first time in the Arabic region; and the Korea language proficiency test is taken in Egypt.

It is expected that “Window on KOREA” will not only to enhance cultural ties between Egypt and Korea, but also to become a venue to give easier access to all Egyptians who want to have information on Korea.



The 19th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in Asia and Oceania under the theme of Envisioning the Future: the Role of National Libraries in the New Era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hief Executive: Jin Yung Woo) held the 19th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in Asia and Oceania (CDNLAO)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of the Library. This is the conference that the NLK was decided to hold in 2007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trend in the future of digital libraries and to enhance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bout 30 delegates from 20 National Libraries of China, Japan, Australia, Singapore, Vietnam, etc.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Under the theme of Envisioning the Future: the Role of National Libraries in the New Era, many issues were discussed such as e-publications legal deposit,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for various materials including digitized contents, and cooperation projects with other countries.

The CDNLAO conference is the annual conference founded in 1979 to discuss issues of national libraries in Asia and Oceania, solidify networks and promote cooperation with member countries. Korea held the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during the 2006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in Seoul, but it is the first time for Korea to host the meeting of the CDNLAO.

On May 18, an international seminar on “Leadership, Governance and Policy in National Libraries” was held. The seminar started with the keynote speech by Hee Yoon Yoon, the Professor of Daegu University and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followed by presentations of six presenters including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nne-Marie Schwirtlich,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Singapore Ngian Lek Choh, and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Vietnam Phan Thi Kim Dzung. Scholars from academy and people in the field also joined the seminar. This seminar served as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library by sharing leadership policies with other national librarie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libraries by examining the trend in the international library circle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going to hold a special sessi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Special Interest Group in the next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scheduled to open in coming August in San Juan of Puerto Rico, in partnership wit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and the Planning Group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hyper connection society that connects the world as one is coming and information at libraries is also connected for international sharing. The NLK expects that the special session will be a good venue to discuss and promote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roles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ever-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of digital librarie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ns to expand the role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library field by promoting exchanges with foreign libraries through a serie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by maintaining systematic networks with conference participants.



<Participants of the 19th CDNLAO Meeting>



<The Meeting of the 19th CDNLAO>

[비매품]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 5 호 (2011년 6월)

2011년 6월 28일 인쇄

2011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화 : (02) 590-0797

팩스 : (02) 590-0502

인쇄 : 원화디앤피(Tel. 2266-4410)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5 (June 2011)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npo-ro 664, Seocho-gu,

Seoul, Korea

Tel : (02) 590-0797

Fax : (02) 590-0502

www.nl.go.kr
